



## 2007. 4. 28 평양 순안 양묘장 준공식 및 남북공동나무심기

민화협은 2006년부터 묘목 보내기 등 북한 산림녹화 협력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2007년 4월 28일에는 평양에서 양묘장 준공식 및 남북공동나무심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양묘장 조성사업은 북한 스스로 양묘생산 기반을 확보하여 자체적으로 생산한 묘목으로 산림을 복구할 수 있도록 산림녹화 사업의 방향을 전환한 것으로 이후 산림협력사업의 새로운 모델로 정착되었습니다.

# 민족화해

Korean Council for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2014 11/12 vol.71

민족화해

2014. 11/12 VOL.71

특집 | 남북관계, 새로운 접근법을 찾는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특집  
남북관계,  
새로운 접근법을 찾는다

권두 인터뷰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

# Contents

2014  
November / December  
Vol.71

민족화해 2014년 11-12월호(격월간, 통권 71호)  
등록번호 종로, 마00069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69, 구세군회관 3층  
전화 02.761.1213  
홈페이지 www.kcrc.or.kr

발행일 2014년 11월 3일  
발행인 홍사덕  
편집인 이경형  
홍보위원장 김영만  
편집기획위원 공용철, 김용현, 노태호, 오한샘,  
윤법달, 정영태, 정은미, 정진아  
편집장 이운식  
편집부 이현희, 염규현  
디자인 및 제작 (주)풍경인소풍 070.7433.1123



## COVER STORY 남북 선수들의 어깨동무

인천아시안게임 여자 축구 시상식에서 만난 남북의 선수들이  
활짝 웃으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

## 02 화보 아시안게임에서 만난 남과 북

### 04 권두 인터뷰 홍석현 중앙일보·JTBC 회장

“북핵문제 해소·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남북의 합리적 온건 세력이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 이경형

### 12 특집 남북관계, 새로운 접근법을 찾는다

- 서울과 평양을 연결하는 메가 수도권을 제안한다 ! 민경태
- ‘머리 위의 핵’ 어떻게 내려놓을 것인가 ! 김준형
- 남북관계 개선으로 북한의 경제 개혁 추동해야 ! 이해정

### 24 진단

#### 인천아시안게임과 北 대외 행보

- 국제무대 반경 넓혀도 핵·인권 문제 장벽 높아 한계 ! 안정식

#### 개성공단 가동 10년의 성과와 과제

- 새로운 10년 위한 비전과 모델을 준비해야 ! 장환빈

### 32 지금 북한은 북한 사회, 어디로 가고 있나

물질 중심적 사고와 개인주의 높아졌지만  
여전히 친숙한 사회주의 체제 선호 ! 장인숙

### 36 만나고 싶었습니다 조동섭 윤이상평화재단 부이사장

“윤이상의 염원과 예술혼을 담아 남북의 평화와 화해를 꿈꿉니다” ! 염규현

### 40 남북교류협력

####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의 역사적 의미

남북공동발굴로 만여 점의 유물 출토,  
역사적 성과가 남북관계 발전으로 이어지길 ! 지병목

### 44 논란

북한인권 문제, 민간 역할분담으로 남북관계 개선과 병행해야 ! 서보혁

### 46 기고

한민족의 미래 위한 ‘재외한인 비전 하우스’ 세우자 ! 홍면기



04



12



36



68

## 48 내가 본 코리아

“통일의 기폭제는 남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어” ! 라이언 러셀

## 50 2030통일론

젊음, 그 힘을 믿고 통일 만들기를 실천하자 ! 장유을

## 52 그린 코리아

두만강 유역 개발에 따른 환경문제,  
우리가 기술적 지원을 해야 ! 김지영

## 56 통일디자인

광복 70주년, ‘문화’로 먼저 통일을 만들어가자 ! 강동완

## 60 분단 언저리를 거닐며

부산 그리고 평양의 국제영화제 ! 전영선

## 62 길에서 만나는 평화와 통일

### EBS 청춘 토크 콘서트 ‘통일드림’

가슴 뛰는 통일 이야기 ! 정경란

## 65 민족화해 Network

## 68 현장

### 2014 민화협 통일문화축제

- 가족과 함께 한 2박 3일의 통일 캠핑  
뜨거운 가슴과 냉철한 이성으로 통일을 상상하다 ! 편집부

### 민화협 해외협의회 전체회의

- 통일은 문제가 아니라 해답입니다 ! 박지용

## 74 르포 북·중·러 접경지역 본 초국경 협력의 길

두만강 유역의 초국경 협력, 남북관계 진전이 중요 ! 이현희

## 78 남북관계 새로 나온 책

## 80 독자 의견

민족화해  
통일을 준비하는 격월간지



01



02



03



04



05

©연합

## 인천에서 만난 남과 북

인천에서 맞잡은 손이  
남북관계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여전히 밀고 당기기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남북 선수들이 보여준  
선의의 경쟁과 투지,  
그들이 맞잡은 손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게 빛났다.

- 01 9월 21일 인천 도원체육관에서 열린 인천 아시안게임 유도 남자 8강전에서 한국 김재범 선수(오른쪽)와 북한 박홍위 선수가 치열한 경기를 펼치고 있다.
- 02 10월 1일 인천 문학경기장에서 열린 2014 인천 아시안게임 여자 축구 경기에서 각각 금메달과 동메달을 획득한 북한(붉은 유니폼)과 남한 선수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03 10월 21일 인천 송도 글로벌대학체육관에서 열린 인천 장애인 아시안게임 탁구 남자 개인 4강전에서 만난 남북의 선수들이 악수를 하고 있다.
- 04 9월 24일 인천 선학체육관에서 열린 인천 아시안게임 남자 권투 라이트급(60kg) 32강전에서 한순철(왼쪽)과 북한 한상령이 경기가 끝난 후 포옹하고 있다.
- 05 10월 2일 인천 문학경기장에서 열린 인천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결승전 한국과 북한의 경기에서 북한 장성혁이 넘어진 한국 이용재를 일으켜 세우고 있다.

**홍석현**  
중앙일보·JTBC 회장

## “북핵문제 해소·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남북의 합리적 온건 세력이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홍석현 중앙일보·JTBC 회장이 지난 9월 26일 자신이 고문직을 맡고 있는 ‘한반도포럼’ 주최 학술회의 기조연설에서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북핵문제를 단계적·장기적 과제로 다룰 필요가 있다”고 역설해 화제를 낳은 바 있다. 이어 홍 회장은 “우리의 이니셔티브로 남북한이 핵과 한반도 문제를 주도하고 미국과 중국을 견인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메이저 언론사의 사주이면서, 주미대사를 역임하는 등 한반도 및 동북아 문제에 오랫동안 관심과 연구를 기울여온 홍석현 회장, 지난 10월 22일 본지 이경형 편집인과의 인터뷰를 통해 그가 생각하는 ‘남북화해와 통일의 해법’을 들어보았다. 그는 “남북의 합리적 온건세력이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담 이경형 『민족화해』편집인  
정리 염규현 민화협 정책홍보팀 부장  
사진 김성현 객원작가



— 지난 9월 한반도포럼에서 “북핵문제를 단계적, 장기적 과제로 다루자”고 제안하셨습니다. 현재 북한이 핵·경제 병진노선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제안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남북관계는 분단 이후 지금까지 본질적으로 대립적 양상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은 대립이 심화됐지요.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남북 사이에 경제·사회·문화 교류가 활발했던 것이 사실이지만 정치·군사적인 대립관계도 해소됐다고 말하기는 부족합니다. 2002년 연평해전이 대표적이지요. 이후 물리적 충돌은 이명박 대통령 집권 때까지 없었습니다만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개발을 진전시켰고 그 때문에 군사적 긴장이 언제든 높아질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은 오히려 더 커졌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잠재적 위험이 이명박 대통령 정부 때나 최근까지 남북한 관계 경색으로 표출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최근 남북관계가 좋아질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만 남북 양측이 관계 개선을 위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인 노력을 펴지 않는다면 언제든 다시 경색될 위험이 있겠지요. 연설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핵문제는 남북한 사이에 ‘안보 딜레마’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딜레마는 본질상 해결하기보다 해소돼야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과감한 결단이 없이는, 또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다시 말해 패러다임의 전환이 없이는 풀어내기 어려운 것이죠.

정치·군사적인 측면에서의 남북대립을 풀어내려면 남북이 벗어던지지 못하고 있는 상호불신의 두꺼운 벽을 깨트려야만 합니다. 그런데 핵문제 해결에 올인(all in)하는 방식으로는 그럴 수 있는 여지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건 all-or-nothing으로 귀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핵문제 해결을 모든 문제에 우선하는 입장을 재검토하자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남북이 만나 상대방에 대한 정치·군사적인 불신을 해소하고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북핵문제를 단계적, 장기적 과제로 다루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렇다고 핵문제를 방치하자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자는 것이지요. ‘정교한 로드맵’을 만들어 핵문제 해결에 접근해야 한다는 제안이라고 할 수 있죠. 핵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이유가 뭘겠습니까.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시아 지역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이를 토대로 남북한이 공동으로 번영하는 터전을 닦음으로써 한민족이 제2의 도약을 해나갈 수 있고 궁극적으로 통일을 이루기 위함 아닙니까.”

— 북한의 핵 개발 수준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저 역시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는 수준입니다만, 탄두 수가 10개 전후가 되는 것은 확실하다고 하더군요. 플루토늄 방식 외에 우리늄 활동 규모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일 년에 몇 개씩은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공격 무기화로 어느 정도까지 발전했느냐인데, 소형화, 이동성 면에서 볼 때, ‘노동’ 미사일에 탑재할 수준은 되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한국과 일본은 사정권에 틀림없이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 북핵 해결의 주도권, 우리가 쥐고 나가야

— 북핵문제를 현 단계에서 동결하고 핵보유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남북 안보 딜레마 해결의 출발점으로 하고, 동시에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구축의 출발점으로 삼자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북미회담, 6자회담 등 남북관계를 뛰어넘는 여러 관문이 남아 있고, 미중 경쟁의 심화와 미일 동맹 확대 등 급변하는 동북아 세력균형의 재편과도 맞물려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북한의 핵개발 의지와 관련해 여러 가지 평가가 있었습니다. ‘포기할 수도 있다, 아니다’ 논란은 결국 2년 전 북한이 헌법 전문에 핵보유국임을 밝힘으로써 일단 정리된 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이 이긴 셈이지요. 그 이후 북한은 외무성 성명 등 공식적인 대외적 입장을 표명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핵을 포기하는 일은 절대 없다고 강조하고 있지요. 한편으로 북한은 핵·경제 병진노선이라는 걸 표방하고 있습니다. 핵보유 이전까지는 북한이 처한 안보적 위협 때문에 경제에 집중하기 어려웠는데 핵보유로 안보 위협에 대처할 자신이 생겼기 때문에 경제에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런 해석이 맞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핵·경제 병진노선은 오늘날 국제사회의 틀 안에서 성립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특히 동북아지역은 더욱 그렇지요. 북한의 외교적 고립은 핵 때문에 초래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어떤 나라가 외교적 고립에 처한 상태에서 경제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북한이 아무리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해도 결국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고 봅니다. 다만 핵을 포기해도 체제를 지키고 살아나갈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어야겠죠. 북한과 같은 특수한 체제가 그런 자신감을 갖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또 주변의 도움이 없다면 그 시간은 더 길어질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만 주변의 도움이란 게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겠다는 의사 표시도 없는데 가능하진 않을 겁니다. 추가적인 핵개발을 중단하고 투명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마도 주변의 도움을 촉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중단돼 있지만 9·19공동성명이든 제네바 합의든 출발점은 핵개발 중단과 투명성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동북아 정세가 급변하고 미중 경쟁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

닐 겁니다. 하지만 전 조금 희망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매달리면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북핵문제를 두고 무수한 논의와 해법이 제시돼왔습니다. 더 이상 새로운 해법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해도 될 정도입니다. 문제는 그 해법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문제 해결이 가장 절실한 우리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제가 핵문제 해결을 장기적 과제로 삼자고 한 건 그런 점을 염두에 둔 때문입니다. 남북관계의 진전, 동북아정세의 안정화, 북한 경제의 발전 등 많은 요인들이 호전되는 것과 함께 핵문제도 단계적으로 풀어나가자는 것이지요. 이 과정을 한국이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나 중국은 핵문제를 단기적으로 풀기 어려운 문제로 옆으로 밀어둔 상황 아닙니까. 우리가 아니면 핵문제



01



02

01 2014년 10월 6일 J글로벌 - 채텀하우스 포럼에서 개회사 모습  
02 2014년 6월 9일 한반도포럼 독일통일 학술회의에 참석

©중앙미디어네트워크

를 풀어나갈 수 있는 주체도 사실상 없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 ‘정교한 로드맵’을 강조하셨습니다. 북한 핵문제와 남북관계를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핵문제도 단계적으로 풀어나가면서 남북관계도 함께 개선해 나가는 것이죠. 정교한 로드맵에는 북한이 핵 동결을 하면 국제제재를 해제하고, 투명화를 하면 경제지원을 한다, 그리고 핵 폐기를 하면 북미관계 국교정상화를 한다든가 하는 이런 단계적인 연계 조치를 생각하게 되는데, 그렇습니까?

“당연히 그렇지요. 하지만 동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말한 신뢰 역시 중요합니다. 신뢰는 결국 서로 마음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북한이 주장하는 ‘일괄 패키지 제안’도 하나의 옵션으로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한 번에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보다는 대화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우리의 진정성이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교한 로드맵이라는 것도 남북한 둘만이 짤 수는 없고, 6자회담의 나머지 네 국가들과 같이 협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 북핵문제와 남북관계를 일단 시차를 두고 분리해서 접근하지는 제안에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북핵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남북관계 발전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 것이라 보십니까?

“북핵문제는 지금까지 계속 악화되지만 했습니다. 3차에 걸친 핵실험과 계속 이어지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북한의 핵능력이 상당한 정도로 진전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저도 북핵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북관계의 발전이 일정하게 제약을 받을 것이라는 시각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북한이 핵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것을 늦추기 위해서라도 일정한 단계까지는 남북관계를 먼저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합니다. 이 문제를 닦이 먼저냐 달같이 먼저냐는 식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딜레마는 우리가 지금까지 충분히 겪어왔던 문제지요. 그런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않고는 결코 풀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구요.

그럼 무작정 양보부터 하지는 것이냐고 반박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앞서 정교한 로드맵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그런 그랜드플랜을 가지고 접근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일방적 양보라는 생각은 하지 않아도 좋을 것입니다. 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을 어떻게 연결시키느냐는 바로 그 로드맵에 포함돼야 할 문제지요. 지난 연설에서 핵문제의 완전한 해결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과 남북의 공동번영이 상당히 진전되는 시점으로 잡아야 할 것 같다고 했는데 핵문제 해결의 단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남북관계 개선도 그에 맞추어 진전시킬 수 있을 겁니다. 다만 핵 해결이 먼저라는데 집착하기보다 상호 보완적으로 진전시킬 수 있다는 발상은 지켜져야 합니다.”

## 남북 정상회담 국민 여론 결집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많은 국민들이 남북 간의 오랜 갈등과 오해를 풀고, 획기적으로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남북 정상회담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시기는 언제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북한체제의 특성상 중요한 결정은 최고지도자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상 간의 대화가 중요하다는 데 동의합니다. 핵문제를 포함한 남북관계 전반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문제는 먼저 국민 전체의 의견이 제일 중요합니다. 과거 두 차례의 정상회담에 대해 국내의 여론은 일부 갈리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통일준비위원회를 활용하는 등 여러 방



“드레스덴 선언이라는 것이 북이 느끼기에는 일단 흡수통일 노선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았어요. 상대가 있는 게임에서 상대가 그렇게 읽었다면 진의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이죠.”

법으로 국민 여론을 결집시키면서 정상회담에 나선다면 그 효과는 극대화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회담의 결과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는 것도 방지할 수 있겠지요. 2016년 총선 등 여러 가지 정치적 변수를 생각할 때 내년 8·15 전후가 가장 이상적이고 그전이면 더욱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 말에 이뤄진 10·4남북정상회담은 국민의 합의나 동의를 이끌어내는 작업이 거의 없이 이뤄진 것이죠. 박 대통령은 워낙 신중한 분이니, 충분한 정지 작업 없이는 정상회담을 안 하실 것으로 봅니다. 개인적 바람은 담대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 “드레스덴 선언 진의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 현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에 대한 평가가 상반적인 것 같습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드레스덴 선언, 동북아평화협력구상, DMZ 세계평화공원 등 ‘레토릭의 홍수’ 속에서 정작 구체적인 실천이나 성과는 미흡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요.

“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전진과 후퇴를 반복해 온 남북관계의 악순환을 끊고, 북한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전인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했습니다. 불안정한 평화와 대결구도가 지속되는 남북관계를 타파하고 지속가능한 평화모델을 구축하고자 하는 구상은 방향 설정이 잘 된 것으로 평가합니다. 여기에 저는 북한을 대화와 협상의 테이블로 유도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전략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남한을 향해 대화의 손짓을 하길 기다릴 수도 있지만 우리가 북한에 대화의 손짓을 보낼 수도 있어야 합니다.

사실 현 정부가 출범한 이래 남북관계는 굴곡이 많았습니다. 정부 정책을 둘러싼 불안감이나 비판도 꽤 있었지요. 예를 들어 드레스덴 선언이라는 것이 북이 느끼기에는 일단 흡수통일 노선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았어요. 상대가 있는 게임에서 상대가 그렇게 읽었다면 진의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이죠. 올 초에 나온 ‘통일대박론’도 결국 결과만을 놓고 대박이라고 한 인상을 주었지요. 그렇지만 남북 접촉이 이뤄질 수 있는 시점에 그런 불만을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 독일의 통일은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독일 통일의 과정 속에 우리가 어떤 교훈을 중시하고 또한 원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울러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남북이 한반도 문제의 이니셔

티브를 가져야 한다는 주장을 하셨는데, 우리가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쥐고, 미국과 중국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6월 한반도포럼은 ‘독일통일과 한반도’를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독일 통일은 도둑처럼 갑자기 오지 않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서독은 통일을 의도하기보다 유럽평화를 앞당기는 데 집중한 결과 통일의 결정적 동인을 확보했다고도 합니다. 이는 분단을 극복하고 한반도의 통일을 달성하는 과정의 복잡성을 이해하는 데 좋은 참고가 됩니다.

남북관계에는 북핵문제 외에도 신뢰구축, 인도지원, 군사적 긴장완화, 경협과 교류확대 등 다양한 문제가 놓여 있습니다. 우리도 독일과 같이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하면서 나아가면 상호보완적이고 선순환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독일이 통일과정에서 그랬듯이 남북한 사이의 관계 개선과 발전이 국제사회의 동의와 지지를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반도의 통일, 그 이전에 평화 정착과 남북 공동번영은 국제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야만 실현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최근 북중관계의 변화를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은 통일 한반도를 어떻게 볼까요?

“중국이 북한이나 한반도 통일문제를 생각할 때는 역시 그들의 국익 차원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반도가 남한 주도로 통일되었을 때 미국의 역할이 어느 정도 남아있을까 등 여러 가지 정교한 계산을 할 것입니다. 그래도 제 생각에는 아직은 북한이 망해도 좋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전혀 아닌 것 같고, 여러 가지 옵션을 두고 생각하는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와 미국과의 관계, 통일한국이 미국과 중국과 어떤 관계를 정립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계산을 할 텐데, 그 계산에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통일한국이 중국의 국익에 나쁘지 않다는 설득 노력을 꾸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편 미국이나 중국을 오래 관찰한 입장에서 보면 그들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 그리 깊이 생각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합니다. 특히 고위급 수준에서는 관심도 훨씬 떨어집니다. 때문에 저는 남북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도발이나 일정한 ‘악역’ 역할을 해주는 것이 현재의 동아시아전략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요. 이런 점을 어떻게 우리 주도로, 남북의 이니셔티브로 해소해 나가느냐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북핵 문제나 한반도 문제에 있어 남북의 역할을 높이는 발언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쩌면 미국에 대해 약간의 도발적인 발언일 수도 있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북한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현재 북한이 핵 문제나 평화협정 문제에 있어서 우리를 대화상대로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러니 ‘북한이 정말 번영하고 체제안정을 이루려면 우리를 상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보내야지요. 북이 아무리 미국에 메시지를 던지고 신호를 보내도 미국은 북한을 상대하지 않는다는, 그런 인식을 북이 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보내야 합니다. 남북의 합리적 온건세력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이, 어렵지만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남북 간 불신 해소를 위해서는 남북 주민의 교류, 스포츠, 문화, 예술, 유적지 공동 발굴, 생태·환경 협력 등 비정치적, 비군사적 교류도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차원의 남북교류 확대에 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가요?

“남북의 불신해소를 위해 민간차원의 남북교류가 활

성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동의합니다. 민간차원의 남북교류는 남과 북의 관계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남과 북의 주민이 만나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공간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남북 간 소통의 채널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주는 수단으로써 정치·군사적인 긴장 발생 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구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교류방식은 일회성에 그치는 식이어서 큰 의미를 갖기 어려울 겁니다. 이 점에서 민간차원의 교류 가운데 경제교류와 같이 지속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교류에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개성공단이 그 좋은 예지요. 남북한 주민이 공동의 목표와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힘을 모으는 일만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사회분야에서도 거래말큰사전공동편찬사업처럼 지속적이고 성과지향적인 사업이 중요합니다. 북한의 산업을 복원하는 사업도 그런 점에서 하루빨리 재개돼야 합니다.”

## 통일 로드맵, 효과가 입증된 사실을 기반으로 만들어가야

— 올해로 10주년을 맞는 개성공단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리고 남북경제협력력을 더 발전시키기 위한 방책은 무엇이라고 보시지요?

“개성공단은 남과 북이 협력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상징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2010년 3월 천안함 사건이 벌어진 후 정부는 5·24조치를 통해 대북 무역과 투자를 금지했지만, 개성공단은 계속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지난해 북측이 5만 5000여 명의 근로자를 개성공단에서 철수했던 상황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은 인내와 협상을 통해 공단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한국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근로규율과 근면성이라는 양측의 장점이 결합한 개성공단은 2004년 12월



“정책은 국민들의 지지와 공감을 받을 때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으며, 한반도의 통일을 향한 국론의 결집이야말로 통일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제품을 생산한 이래 23억 달러에 달하는 제품을 생산했습니다. 무역 규모도 94억 5000만 달러나 됩니다. 하지만 개성공단은 그보다 훨씬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조성 계획을 살펴보면 2007년까지 250개(2014년 현재의 두 배)의 한국 기업을 유치하고, 2012년까지 70만 명의 북한 근로자를 고용할 예정이었습니다. 남과 북 모두 2004년 개성공단을 조성했을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은 남북한이 가진 공통의 목표입니다. 통일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남과 북이 공유하는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통일을 향해 나아가는 로드맵은 효과가 입증된 사실을 기반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개성공단은 이미 효과를 입증해 보인 사업입니다. 개성공단을 확장하고 새로운 공단들을 추가적으로 건설함으로써 우리는 두 가지를 북한에 보여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진정성이고, 둘

째는 남과 북이 상생하는 윈윈(win-win)이 대결보다 좋다는 것입니다.”

— 김정은 체제 3년 동안 북한에 많은 변화가 이뤄진 것 같습니다. 김정은 체제 3년에 대한 평가와 함께 이러한 변화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리라 보십니까?

“김정은 시대 들어 경제부분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예컨대 2년 전에 ‘6·28방침’을 시행했다고 합니다. 협동농장의 분조단위를 축소하거나, 농민은 물론 공장근로자들에게도 인센티브를 늘린다거나, 시장의 기능을 더 적극 활용하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라고 합니다. 또 최근 노동신문은 각 경제 단위들의 성과를 크게 부각하는 보도를 매일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북한 당국이 ‘경제가 중요하다’는 점을 크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외교적 고립 속에서 자력갱생 방식으로 이뤄낼 수 있는 성과는 한계가 뚜렷하지 않겠습니까. 최근 북한이 활발하게 대외관계 개선에 나서는 이유가 그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이러한 움직임은 긍정적인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을 실행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 남북관계 발전 및 한반도 통일에 있어 언론의 역할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언론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남북 간의 신뢰를 강조하지만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정책은 국민들의 지지와 공감을 받을 때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으며, 한반도의 통일을 향한 국론의 결집이야말로 통일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언론의 역할이 중요한 거지요. 물론 언론이 취하고 있는 입장에 따라 서로 다른 주장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북한 문제는 더욱 그

렇습니다. 다만 큰 틀에서 한반도 평화, 나아가 통일에 기여하겠다는 자세는 결코 버려선 안 되겠지요.”

— 오랫동안 분단 및 통일문제에 관해 고민하고 연구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주미대사 등을 역임하며 동북아 및 국제정세에 대한 일가견도 가지고 계십니다. 한반도 분단과 통일 문제에 대해 어떠한 인식과 철학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무슨 거창한 철학을 가졌다고 말할 순 없습니다. 다만 언론사 운영 경험을 통해 다양한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인 한반도 문제, 통일문제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 여러 계층에 계신 분들의 의견을 듣고 토론도 하면서 제 나름 방향성을 가질 수 있게 됐다고 나 할까요.

마침 북한이 ‘고난의 행군’을 겪을 당시 북한을 방문해 전국을 돌아본 적이 있습니다. 언론사 경영자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겠지요. 당시 저를 맞이한 북한 관계자들은 극심한 고통을 겪으면서도 더없이 정중하고 성심성의껏 저를 대해주었습니다. 그런 경험이 북한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2년 중앙일보가 ‘예산의 1%를 북한을 지원하는 데 쓰자’고 제안하는 캠페인을 벌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북한문제는 그리고 통일문제는 대단히 복잡하고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20년 가까이 북한 문제를 들여다보니 세부적 내용까지 알게 되고 나름의 견해를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제 견해가 진리라는 생각은 전혀 안 합니다. 저는 다만 많은 분들이 함께 생각해볼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일까를 찾아내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앞으로도 제 능력과 역할에 맞게 이 땅의 평화, 그리고 남북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서울과 평양을 연결하는 메가 수도권을 제안한다

민경태 북한미래학자, 『서울 - 평양 메가시티』 저자

올해 들어 정부의 주도로 시작된 ‘통일 대박’에 대한 관심은 기존의 논점을 바꾸어 놓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물론 통일 과정을 어떻게 진행하느냐의 논의가 더욱 중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기존에는 통일 논의 자체가 부정적으로 인식되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제는 어떤 비전과 미래 전략을 가지고 남북한 모두에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통일을 추진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이다.

“2030년, 서울과 평양은 이제 하나의 도시와 같이 기능하고 있다. 최첨단 교통·통신 기술에 의해 초고속 네트워크로 연결된 광역경제권의 모습을 갖추고 한반도를 대표하는 메가 수도권으로 성장하였다. 이 지역에는 남북한 연합정부의 기관들만이 아니라 아시아연합,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유라시아철도청 등과 같은 여러 국제기구의 사무소가 서울, 평양, 인천, 남포, 해주, 개성 등 주요 도시에 분산 배치되어 있다. 인천공항을 출발한 고속열차는 15분 만에 해주를 지나고, 40분 후에는 평양에 도착할 수 있다. 남북한과 미·중·러·일 4개국은 남북한 경제통합을 허용하고 공동투자를 진행하는 조건으로, 한반도 전역을 세계자유무역지대로 전환시키는 방안에 합의하였다. 이제 서울 - 평양 메가 수도권은 동북아시아 물류의 중추적 거점이자 관광, 컨벤션, 비즈니스의 허브로 변모하였다.”

이것은 서울과 평양을 연결하여 이루게 될 미래 한반도의 비전을 묘사해 본 것이다. 과연 한반도에서 이와 같은 일이 가능할 것인가? 한국 경제는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북한과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까?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시아는 결정적 전환기에 접어들고 있다. 주변 열강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국제정치 전략의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는 가운데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은 북한과의 협력을 심화하거나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 주변 국가들이 북한의 경제적 가치를 선점하는 사이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만 기회를 놓치는 안타까운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 바로 지금 우



인공위성에서 바라본 한반도의 야경

리의 선택이 한반도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점이 도래한 것이다.

만약 현재의 분단 상태가 그대로 지속된다면 어떻게 될까?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남한의 경제 의존도만 보아도 그러한데, 하물며 전적으로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북한의 상황을 보면 동북4성으로 전략하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혹시라도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하게 된다면 남한 주도의 통일로 이어지기보다는 한반도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더욱 확대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한반도의 반쪽만을 가진 남한이 동북아의 강대국들 틈에서 생존해 나가기에는 더욱 어렵게 될 것이다. 북한이라는 완충 역할이 사라지게 될 경우,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이러한 상황은 결국 미국 입장에서도 부정적인 것이다. 이

를 방지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남북한의 경제협력과 교류를 진행시키는 것이다.

## 점진적 남북한 경제통합이 가장 효과적

어떠한 통일 방안이 우리에게 가장 유리할 것인가? 독일 통일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갑작스런 흡수통일이 경제적으로 매우 비효율적이라는 점이다. 철도·도로 등 동독 지역 인프라 구축에 투자된 비용은 12.5%에 불과한 반면, 복지수준을 일시에 상향시키다 보니 전체 통일 비용의 50%가 사회보장성 비

용으로 사용되었다. 만약 남북한의 갑작스런 정치적 통합에 의해 고용시장을 통합하고 복지수준을 동일한 수준으로 가져가면, 남한 경제에 엄청난 부담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북한 경제에도 실질적 도움을 주지 못하게 된다. 노동생산성은 정체된 상태에서 북한 근로자들의 임금만 상승하게 되면 북한에 투자한 기업이 부실화되고 결국은 한반도 전체가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도 있다.

통일 비용은 북한의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지, 일시적으로 북한 주민의 소득보전 정책에 쓰이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유리한 남북한 통합 방안은 국경선이 유지된 상태에서 점진적으로 경제적 교류와 협력이 진행되는 것이다. 정치적 통합은 유보한 채로 경제적 통합을 진행시키면, 상호보완적 협력을 통해 양쪽 모두 이익을 보면서 남북한의 격차를 점차 완화시켜 나갈 수 있다.

그렇다면, 점진적인 남북한 경제협력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여기에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북한을 과거 개발도상국 성장모델로 발전시키려는 시도보다는 한반도의 미래 비전에 맞추어 북한의 성장전략을 새롭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세계적으로 국경을 초월한 광역경제권 도시들의 발전 모델이 여러 국가에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도 한반도를 대표하는 글로벌 광역경제권을 만들어 남북한 경제협력의 무대로 활용하고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전략적 구상이 필요하다. 남북한 협력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서 서울과 평양을 연결하는 ‘서울 - 평양 메가 수도권’을 제안한다.

남북한의 체제가 다른 상태에서 이런 구상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이미 중국에는 성공적인 사례가 있다. 홍콩과 광둥성의 여러 도시를 포함하는 주장삼각주 지역은 세계적으로도 경쟁력 있는 광역경제권으로 성장하였다. 초기에는 홍콩과 중국의 선전(深圳)특구를 중심으로 진행되다가, 나중에는 광둥성의 전체지역으로 협력이 확대되었다. 홍콩 기업들이 중국 생산시설의 임금 경쟁력을 활용하기 위해 시작되었으나, 지금은 오히려 중국의 여러 도시가 성장하여 서비스업 위주의 홍콩 경제를 견인하고 있다.

### 한반도 메가 수도권의 지경학적 중요성



출처: 민경태, 「서울-평양 네트워크 경제권 구축을 통한 한반도 성장전략 구상」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3), p. 96.

### 서울 - 평양 네트워크 경제를 통한

#### 한반도 성장전략

중국의 주장삼각주 모델을 한반도에 적용해 보면, 서울과 개성공단의 협력으로 시작된 범위를 확장하여 인천, 해주, 평양, 남포, 사리원 등을 모두 포함하는 광역경제권을 만들고, 이들 도시를 점단의 교통·통신·에너지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구상이다. 인프라 구축이 완료되면 서울과 평양의 200Km 거리 정도는 한 시간 이내로 이동할 수 있게 되어 마치 하나의 도시와도 같이 기능하는 동일한 경제권으로 발전하게 된다.

남북한의 네트워크 경제를 구축함으로써 북한은 남한의 발전된 역량에 효과적으로 접속하고 단기간에 경제성장을 위한 기반을 갖추 수 있다. 특히 앞으로 다가오는 새로운 미래의 경제 체제에서 물질적 생

산요소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지식기반 경제의 비중이 높아지게 된다는 관점에서 보면, 남북한의 네트워크 경제 구축이 더욱 타당한 미래 발전 방향이 될 수 있다. 아울러 남한은 북한의 강점인 자원과 노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해외로 이 전시켰던 제조업을 다시 한반도로 가져오는 리쇼어링(Re-shoring) 전략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서울 - 평양 메가 수도권에서의 협력 방식은 기존의 방식과는 차원이 다르게 구상할 필요가 있다. 남북한의 경제적 격차가 매우 크고 서로가 가진 경쟁력이 매우 다르다는 점은, 오히려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유례가 없는 폭발적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북한의 장점인 노동·자원 부문에 남한의 R&D·디자인·마케팅 역량을 결합하면 단기간에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남한은 기존의 강점인 기술·자본 부문을 더욱 확대 발전시키고 동시에, 미래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는 신성장산업 분야에서는 북한과 함께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다. 남북한 거점 도시 사이를 첨단 인프라로 연결시키고 남한의 기업이 북한의 우수한 인재 양성에 노력하면 지식기반 산업을 위해 필요한 남북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구성된 서울 - 평양 메가 수도권에는 정부 기관들과 여러 국제기구의 사무소가 거점 도시들에 분산 배치되는 것도 가능하다. 과거 군사적 긴장과 분단을 상징하던 이 지역이 자유로운 투자와 경제활동의 중심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동북아의 중심에 위치하여 유라시아 대륙과도 원활하게 연결될 수 있는 강점을 살려 물류와 비즈니스의 허브로 성장할 수 있다.

### 내일 북한 급변사태가 온다 해도, 오늘 경제협력은 필요

이러한 비전이 현실성을 갖기 위해서는 한반도를 둘러싼 기존의 이익구조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개방적 이익 공유 시스템이 필요하다. 즉, 우리들만의 잔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 세계의 모든 이들이 한반도에 투자하고 그들의 에너지가 서로 교류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보자. 한반도 주변 국가들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함으로써 북한 개발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을 분담할 수 있다. 아울러 분단 체제를 통해 이익을 얻고 있었

던 집단이나 국가들이 새로운 이익구조에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한반도 통일에 우호적인 세력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서울 - 평양 메가 수도권은 한반도를 대표하는 이익 공유 시스템이자, 남북한의 협력을 가장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

이제 막연히 북한의 붕괴를 기다리는 한반도 통일에 대한 안일한 꿈은 접자. 그것은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볼 때 매우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국제 정치적으로도 한국이 통일의 주도권을 상실할 수 있는 위험한 방안이다.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북한과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점차 북한에 대한 남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북한 주민에게 우호적인 인식을 확산시키는 것이다. 남북한의 협력은 더 이상 정치적 협상 타결에 대한 경제적 보상의 성격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초기 단계에서부터 남한과 북한이 모두 경제적 이익을 볼 수 있는 상생적인 협력 모델을 구상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혹시라도 내일 북한에 급변 사태가 발생한다고 해도, 오늘 경제 협력은 반드시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 길만이 한국의 국제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우리 주도로 통일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다. 🌐

**민경태**는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동대공과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삼성건설에서 일했으며, 벤처기업 데코드림(주)을 공동 창업하여 운영했다. 2003년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MBA 과정을 졸업하고, 현재까지 삼성전자에서 근무하고 있다.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경제·IT 전공으로 북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 ‘머리 위의 핵’ 어떻게 내려놓을 것인가

김준형 한동대학교 국제정치학 교수

지난 7년간 한반도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 남한에는 두 보수정부가 집권했으며, 북한에는 김정은 정권의 등장이 있었다. 주지하다시피 북한의 핵무장 능력은 계속 높아졌고, 남북관계는 악화일로였다. 남한은 진보정부 10년의 햇볕정책을 폐기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모든 남북문제의 전제조건으로 설정했다. ‘비핵·개방·3000’으로 대표되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전형적인 선택폐기론이었다. 박근혜 정부가 남북신뢰회복을 제기함으로써 변화 가능성을 보이는 듯 했지만 프로세스의 유연화는 없었으며, 사실상의 선결조건이 되면서 전임정부와의 차별성은 거의 사라져버렸다. 북한의 핵개발과 도발에 일차적 책임이 있지만, 남한 역시 문제해결의 적극적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남북관계개선과 통일을 위한 여러 제안들을 내놓았으나 지속가능한 정책대안의 모습 없이 하나같이 표류하고 있다.

지난 7년간 핵문제는 실질적 남북관계개선을 막는 최대의 걸림돌로 작동해왔다. 북핵문제의 진전 없이는 단 한 발짝도 나가지 않겠다는 한국 정부와, 전략적 인내라는 이름의 사실상 무대책으로 일관해온 오바마 정부로 말미암아 북한의 핵무장은 오히려 강화되었다. 게다가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북한의 대중의존도는 지속적으로 심화되었으며, 북한에 대한 남한의 제재전략은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남한을 찌르는 자충수가 된지 오래다. 우리의 의도와 이익과는 상반된다는 것이 자명해지고 있지만 관성의 탓에 걸려 꼼짝달싹할 수 없는 상태다.

## 명분에 묶여 실질적 성과 놓친 ‘선택폐기론’

제네바에서 극적 합의를 이룬 지 벌써 20년이 지났다. 제네바 합의로 대표되는 1990년대는 기나긴 냉전대결구도를 해소할 수 있다는 상당한 기대를 갖게 하는 시기였다. 그러나 미국 네오콘 정부의 등장과 9·11테러 사건으로 말미암아 북미관계는 주고받는 ‘교환게임’에서, 한쪽이 무너져야 결판이 나는 이른바 ‘엔드게임’으



2007년 9월 27일 중국 베이징 다오위타이(釣魚臺)에서 제6차 6자회담 2단계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는 모습. 6자회담에서 도출해낸 9·19공동성명은 비핵화부터 한반도 평화체제수립, 관련국의 관계 정상화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다.

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부시 정부 8년의 강경책도 북한의 행동변화를 이끌어내지는 못했으며, 엔드게임은 역설적으로 ‘끝나지 않았고’ 협상 재개와 파기 사이를 오갔다. 변화와 희망으로 시작했던 오바마 정부도 그 한계를 드러내기까지 긴 시간이 필요 없었다.

이제 북핵문제는 미국 내부변수와 미중 패권경쟁의 블랙홀에 빠져들면서, 미국의 아시아 전략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 북핵문제는 분명 위기상황인데 아무도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될 뿐만 아니라, 동북아 6개국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도 문제의 ‘해결’보다는 ‘이용’에 경도되고 있다. 북핵 위기의 디폴트와 현상이다. 특히 미국은 북한 핵문제를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는 아시아 재균형 전략의 정당화 빌미로 삼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냈다. 해결되지 않는 북핵위협은 한·미·일 삼각군사협력을 추동하는 연료로 쓰이고 있다.

북핵문제의 해결이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해결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념의 색깔차이와 무관하게 이론(異論)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핵을 머리에 이고는 살 수 없다는

박 대통령의 언급은 분명 타당한 명제이지만, 문제는 머리의 핵을 어떻게 내려놓느냐에 있다. 공멸을 가져올 군사력 사용은 거론할 가치도 없고, 북한이 스스로 항복하거나 무너지는 방법 역시 희망적 사고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봉쇄하고 압박해서 항복한 국가는 역사상 전례가 없다. 오히려 봉쇄와 압박은 북한으로 하여금 생존을 위한 핵개발에 더욱 매달릴 수밖에 없게 만든다. 그렇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남북관계개선을 통해 북한의 핵무기 폐기를 유도하는 방법만 남는다.

## 대북정책을 핵문제와 일단 독립시켜야

따라서 이 지점에서 요구되는 것은 대북정책의 일대 전환이다. 지금까지 남북 교류와 협력의 가능성을 핵 문제 하나에만 연동시키는 정책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



2014년 3월 24일 네덜란드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이 세계 정상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개막식 기조연설을 통해 '핵무기 없는 세상'의 비전하에 국제 비확산 체제 강화를 위해 '핵안보·핵군축·핵비확산에 대한 통합적 접근' 등 4대 제안을 한 바 있다.

다. 대북정책을 북핵문제로부터 일단 독립시키고, 북핵문제를 관계개선의 선결조건이 아니라 남북교류와 관계개선을 통해 북핵문제해결에 일정 부분 기여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대북정책에 있어서 '기능주의'라는 가면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이다. 박근혜 정부 스스로도 헬싱키프로세스를 벤치마킹하고 있고, 신뢰프로세스가 바로 기능주의의 전형적 논리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동북아평화구상 역시 아시아 패러독스를 해결하기 위해 연성 이슈들을 통해 신뢰를 쌓아가다 보면 어려운 경성 이슈들도 해결할 수 있다는 기능주의를 바탕으로 깔고 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의 이런 대북정책은 3가지 심각한 오류를 내재하고 있다. 첫 번째 오류는 기능주의 방법론 자체의 실효성 문제다. 성공을 위해서는 참여국들의 실천의지와 헌신이 매우 중요하데 끌어내기가 쉽지 않고, 연성 이슈에서의 협력이 일어난다 해도 경성 이슈로의 확산은 결코 쉽지 않다. 무엇보다도 한반도 문제는 하나가 성공해서 전이효과(spillover)가 나는 기능주의 친화적 구조가 아니라, 하나가 실패하면 모두를 망치는 구조에 가깝다. 따지고 보면 아시아 패러독스라는 용어 자체가 높은 경제적 상호의존도라는 연성 이슈에서의 협력관계가 경성 이슈로 확산되지 않는다는 어려운 현실을 바탕으로 해서 나온 용어가 아닌가? 결국 순환논리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두 번째 오류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론은 모양만 기능주

의일 뿐 실체는 아니다. 비핵화를 선결조건으로 삼아 모든 연성영역의 교류를 차단하고 있는 것은 기능주의 방법론이 될 수 없다. 핵문제를 포함한 정치군사적인 문제가 예민하고 어려우니, 연성 이슈에서 시작해서 핵문제로 가자는 것인데 박근혜 정부의 기능주의는 경성 이슈가 연성 이슈의 진전을 가로막고 있다. 비핵화 진전 없이 금강산 관광 재개도, 개성의 발전적 정상화도 불가능하다. 인도주의 교류를 열겠다고 했지만 이 역시 말과는 달리 진전이 없다. 박근혜 정부 스스로도 기능주의에 의한 해결 가능성을 거의 믿지 않는 듯 보인다. 겉으로는 기능주의를 추구한다는 이미지를 유지하고, 속내는 북한체제 붕괴를 기다리는 시간벌기로 생각하고 있는 지도 모른다. 세 번째 오류는 현재의 기능주의적 노선에 진정성이 있다 해도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기엔 역부족이라는데 있다. 그 이유는 과거와 달리 북한이 원하는 것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경제적 지원을 원했지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정권

의 공고화를 포함한 생존문제의 해결이다. 여전히 북한은 경제지원을 매우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해진 것이 생존이고, 핵무기에 집착하는 가장 큰 이유이다. 남한이 이를 무시하고 과거방식을 답습해서는 북한을 변화시킬 수 없다. 남북이 서로 손을 내밀고 있지만,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내밀고 있다. 자기 손을 잡기만을 기다리고 자기는 상대방의 손을 잡지 않는 양상이 지속되는 한 해결은 없다.

### 기능주의적 접근의 근본적 변화 필요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안보담론이 남북관계를 지배해왔다. 북한의 도발이 시발점이었으나 한국정부가 이를 대승적으로 극복하지 못하고 도리어 '안보 대 안보' 프레임으로 들어가 버렸다. 평화담론은 자취를 감추었고, 통일론은 특정목적을 위해 제한적으로만 사용된다. 지금과 같은 분단 및 냉전구조의 강화는 책임소재의 경중을 떠나서 남북한 모두에게 손해다. 현 휴전체제를 유지한다면 남북한 공히 분단체제의 변덕스러운 동학을 피하기 어렵고, 지속가능한 평화는 없다. 특히 강대국의 갈등이 교묘하게 남북에게 이전되고, 증폭되며, 갈등의 해결을 서로 미루는 무책임성과 종속성을 내부권력들이 의식적으로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조장하는 형태가 반복될 것이다. 결국 박 대통령의 과감한 결단이 나와야 한다. 실천성과 효용성 모두에서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는 현재의 기능주의 접근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며, 그 핵심은 남북관계개선과 핵문제의 분리와 병행추진에 있다. 이를 통해 분단구조를 약화시키고, 평화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북한의 비핵화는 이루어야 할 목표이지만, 그것이 우리가 남북관계 또는 한반도 문제를 푸는데 있어 최종 목표가 될 수는 없다. 복잡한 매듭처럼 꼬인 한반도의 문제를 핵이나 미사일 문제에만 집착해서 그 줄을 당기면 오히려 더욱 조여지고 헝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지난 20여 년 동안 경험했다.

지금까지 핵문제 해결은 물론이고, 남북교류와 협력의 제도화 수준은 대단히 높았으나, 실행수준은 대단히 낮음으로 인해 국민들의 피로감을 확산시켰다는 점을 인지하고, 새로운 제안과 제도를 '옥상옥'으로 쌓는 행동을 지양하고, 이미 합의한 사항들을 실천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우선 비핵화와 남북

관계개선의 병행추진을 담아내는 그릇은 역시 6자회담이 되어야 할 것이다. 9·19 공동성명은 비핵화부터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그리고 관련국의 관계 정상화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다. 결국 실천의 문제다. 또한 남북이 함께 7·4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그리고 10·4 정상선언 등 그동안의 합의들을 통합하는 작업도 시도해볼 만하다.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이 되었다. 포용과 강경정책, 회유와 대치, 협상과 압력 등 가능한 방법을 거의 모두 동원해봤지만 결국 막지 못했다. 북한을 힘으로 굴복시키는 시도는 자존심을 세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파국의 위험은 더욱 가중될 뿐이다. 현재의 악화된 남북관계는 누구의 책임을 떠나서 냉전구조의 부활이다. 이를 단절하지 못하면 민족의 미래는 패권 경쟁의 인질이 될 수밖에 없다. 최근 합의된 전작권환수 재연기의 합의는 확실하게 담고 있다. 안보에 전부를 걸고, 미국의 동북아전략에 한반도를 맡기고, 이를 위해 우리가 지불해야 할 비용은 천문학적이다. 안보를 튼튼히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는 최소한의 목표일뿐 우리가 지향하는 한반도의 바람직한 미래는 될 수 없다. 우리의 목표는 분단의 대결구조를 방치 또는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해소하고 평화체제를 건설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

김준형은 미국 George Washington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현재 한동대학교 국제정치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 남북관계 개선으로 북한의 경제 개혁 추동해야

이해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북한 경제는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김정은 체제 출범 전후 북한의 1인당 명목 GDP 추이를 살펴보면 2011년 770달러, 2012년 815달러, 2013년 854달러로 경제력이 소폭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sup>1)</sup> 농업 생산량도 다소 개선되었는데, FAO에서 발표한 2013년 북한의 곡물 생산량은 526.7만 톤으로 2012년 503.1만 톤보다 4.7%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가 재정도 확대되었다. 2013년 예산은 71억 달러로 전년대비 4.3% 증가하였으며, 2013년 결산을 보면, 수입 67.6억 달러, 지출 66.2억 달러로 1.4억 달러 규모의 재정흑자가 발생하였으며, 6년 연속 재정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up>2)</sup>

## 김정은 체제, 각 분야 자율권 부여로 경제성장 촉진

북한은 주민생활향상과 외자유치를 통한 경제강국 건설을 강조하면서 대내외적인 개혁·개방을 추진 중이다.<sup>3)</sup> 대내적으로는 2012년 6·28농업개혁 조치와 12·1기업소개혁 조치를 통해 부분적인 경쟁시스템 도입으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였다. 2012년 6·28농업개혁 조치를 통해 분조관리제의 개선과 수확물의 자율처분권 확대 등 협동농장 개혁을 통한 농업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였다. 종전 10~25명 단위 분조를 4~6명 단위로 축소하는 한편, 제한적으로 운영되던 자율처분권을 크게 확대하여 목표생산량을 초과 달성할 경우에는 생산량의 70%는 국가, 30%는 목표생산물 초과 분조에 처분권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2012년 12·1기업소 개혁 조치를 통해서도 공장·기업소들이 독자적으로 생산품을 결정하고, 가격과 판매 방식, 수익·배분도 자체 결정하도록 자율성 보장하였다. 각 기업소가 독자적인 생산 계획, 인원, 설비 등을 자율적으로 책임지도록 하는 독립채산제를 확대하였으며, 기존 동일 임금 적용에서, 노동시간과 기여도 등에 따른 성과급제를 도입함으로써 일한 만큼 수익금을 차등 분배하도록 하였다. 한편, 2014년 5·30조치를 통해서



©윤이상평화재단

고층아파트들이 인상적인 최근 평양 중심가의 모습

2015년부터 모든 협동농장과 기업소 등을 대상으로 자율경영제를 본격 도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sup>4)</sup> 농업 부문 개혁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생산체제는 기존 4~6명의 분조단위 관리제에서 가족단위 자율경영제로 바뀌고, 생산 분배도 기존에 생산량의 70%를 국가가 가져가고 30%를 분조가 처분하던 방식에서 향후에는 국가가 40%만 가져가고 개인이 60%를 가져가게 된다. 더욱이, 토지도 가족 1명당 땅 1,000평을 지급할 예정이다. 기업 부문에서도 북한 전역

의 모든 공장·기업소·회사·상점에 자율경영권을 부여하여 생산·분배뿐 아니라 무역권까지도 자율권을 부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진다.

대외적으로는 외자유치와 수출확대를 위해 외국인 투자 관련 법제를 정비하는 한편, 외자유치기구를 정비하여 특구정책을 확대하였다. 북한은 합영법·합작법

1) 현대경제연구원, "2013년 북한 GDP 추정과 남북한의 경제·사회상 비교", 『경제주평』, 2014. 3. 자료 참고.

2) 통일부 추정 자료에 따름.

3) 현대경제연구원, "최근 북한 경제정책 특징과 통일에의 시사점 - 「2050, 통일 한국의 경제적 미래」보고서 시리즈 4", 『VIP 리포트』, 2014. 5. 자료 참고.

4) 2012년 6·28조치 및 12·1조치, 2014년 5·30조치의 경우 북한의 공식발표가 없음. 본 내용은 일본의 조선신보를 비롯해 국내의 언론 보도 내용을 종합·정리한 것임.

[ 김정은 체제의 경제관리개선조치 ]

| 구분        | 김정일 체제                                                            | 김정은 체제                                                                                 |                                                                               |
|-----------|-------------------------------------------------------------------|----------------------------------------------------------------------------------------|-------------------------------------------------------------------------------|
|           | 2002년 7·1조치                                                       | 2012년 6·28 및 12·1조치                                                                    | 2014년 5·30조치                                                                  |
| 농업<br>부문  | - 국가수매량 축소<br>- 농장의 경영자율성 확대<br>- 분조관리제 실시<br>· 분조규모, 10~25명      | - 분조관리제 전면 확대(분조 축소)<br>· 분조규모, 4~6명<br>- 초과생산물 자율처분권 대폭 확대<br>· 생산량의 70%(국가), 30%(분조) | - 2015년부터 가족단위<br>자율경영제 도입(예정)<br>· 가족 1명당 땅 1,000평 지급<br>· 국가 40%, 개인 60% 분배 |
| 기업소<br>부문 | - 제한적 지배인 책임경영제 실시<br>- 제한적 임금 인센티브제 도입<br>· 사실상 기업소, 분조별 동일임금 적용 | - 지배인 책임경영제 전면 확대<br>- 차등 임금제 전면 도입<br>· 성과급 중심 분배(최고 100배 차등)                         | - 2015년부터 기업소<br>자율경영제 도입(예정)                                                 |

자료 : 각 언론매체 종합  
주 : 7·1 조치는 경제난 해소, 2중 경제 개선, 국가 재정부담 경감 등을 목적으로 추진된 조치로, 주요 내용은 가격 및 임금의 인상, 노동생산성 향상, 배급제 개선, 공장·기업소의 자율성 확대 등임

· 외국인 투자법·라선경제무역지대법 개정, 황금평 위화도 경제지대법·경제개발구법 제정 등 14개 외국인 투자 관련 법제를 집중적으로 제·개정하였다. 특히, 2013년 5월 경제개발구법의 제정으로 단일 법규에 의해 각 지방에서 외자 유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동법을 통해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 정부 차원에서도 당 위원장과 인민위원장이 주도권을 갖는 경제개발구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다. 또한, 2013년 10월 국가경제개발총국을 ‘국가경제개발위원회’로 승격하여 외자유치기구를 정비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의 합영투자위원회가 수행해 온 모든 대외 경제사업도 동 위원회로 이관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함께, 각 도별 경제특구 개발과 외국기업 지원을 전담할 ‘조선경제개발협회’도 새롭게 출범하였다. 조선경제개발협회는 경제특구에 대한 외국인 투자의 유치는 물론, 각종 토론회, 정보 교류, 자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3년 11월에는 지방급 경제개발구 13개를 각 도에 설치하는 계획을 발표하여 지방 특성별 소규모 특구를 추가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방급 경제개발구와 병행하여 새로운 중앙급 경제특구를 개발할 계획이다. 기존 4개 경제특구를 비롯하여 10개의 신규 중앙급 경제특구를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마식령 스키장을 포함하여 종합관광지로 개발될 원산 특구의 개발 대상 규모는 약 414.8km<sup>2</sup>이며, 예상 투자액은 78억 달러 수준인 것

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북한의 대내외적 정책 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 정색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지속 등으로 인해 북한의 경제 개혁·개방 정책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 북한이 추진 중인 중앙급 경제 특구 현황 ]



자료 : 북한 국가경제개발위원회 투자제안서

남북관계 개선은 북한 경제 개혁·개방 추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경제 개혁·개방 추진 확대는 북한 경제 회생과 주민 생활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북한 경제 회생은 남북 간 경제력 격차 해소 및 북한 경제 회복을 위해 소요되는 ‘경제적 투자비용’ 등 통일비용 절감에도 도움이 된다. 우리 입장에서라도 남북관계 진전을 통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 통일 및 대북 정책의 실질적 추진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

대규모 경험 프로젝트 가동 위한 단계적 신뢰구축 중요

남북상생·공영의 협력을 위해서는 첫째, 전반적으로는 단계적인 추진 전략을 통해 남북 간 신뢰 형성의 기반을 형성하되, 초기에는 인도적 지원과 기존 추진 남북 협력 사업에 집중해야 한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인도적 지원과 사회문화 교류를 중점 추진하되, 남북 간 신뢰가 진전될 경우 대규모 경험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도록 신뢰프로세스 가동의 기반 구축에 주력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5·24 조치의 단계적 해제와 함께, 개성공단 1단계 사업 완료 및 2단계 개발과 국제화 추진, 금강산·개성관광 재개 등 기존 추진 사업의 활성화와 기존 남북 협력 사업의 우선 재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금강산 관광 재개와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사업을 연계하는 등 전략적인 정책 적용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둘째, 단순한 지원에서 벗어나 농업·보건의료·녹색사업 등 개발협력을 구체화하여 지원 효과를 제고하고, 교류 협력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북한에 대한 영농기술 전수 및 우수 품종의 남북 공동 개발, 대규모 농업 인프라 지원과 함께, 황폐지 조림, 수력발전소 개보수, 풍력발전소 건설 등 대규모 CDM 사업<sup>5)</sup>을 추진하여 남북 상생의 경험 모델

을 구축해야 한다. 셋째, 남북 양자 간 사업뿐 아니라 다자간 사업 추진 기반도 마련되어야 한다. GTI<sup>6)</sup> 사업 추진, 나진~하산프로젝트, TSR~TCR~TKR 연결 등 북중·북러 간 철도·도로·항만 사업과 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 등 북중·북러 간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한 역내 경제 협력 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 다자간 사업 추진을 통해 사업 추진 리스크를 경감 시킴으로써 지속발전 가능한 경제 협력 추진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문화 교류 부문에서도 이산가족 상봉 재개 및 정례화 실천을 통해 민족공동체 형성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이산가족 사망자는 연간 약 3,800명에 달하며, 사망률과 상봉률 격차로 인해 상봉 기회를 갖지 못하고 사망하는 이산가족은 연 2,200명에 달한다.<sup>7)</sup> 따라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납북자·국군포로 고향 방문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동서독 간 프라이카우프<sup>8)</sup>와 같이 경제·재정적 지원을 통한 협상력 제고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해정**은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북한학 박사학위를 수료하고, 현재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5)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 청정개발체제) 사업이란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수행하여 달성한 실적의 일부를 선진국의 감축량으로 허용하는 제도임.  
6) 1991년 유엔개발계획(UNDP)의 주도로 두만강개발계획(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rogramme, TRADP)이 설립되어 한국, 중국, 러시아, 몽골, 북한(2009년 탈퇴) 등이 참여. ~ 2005년 ‘광역두만강개발계획’(the Greater Tumen Initiative, GTI)으로 개칭.  
7) 현대경제연구원, “80세 이상 고령 이산가족을 위한 긴급 대책 필요”, 『현안과 과제』, 2014. 2 자료 참고.  
8) 서독의 프라이카우프 정책은 ‘자유를 산다’는 의미로 서독은 현금과 현물을 동독 측에 제공해 정치범들을 석방, 1963년 이래 1989년까지 서독은 3만 3,755명을 송환한 대가로 34억 6,400만 마르크에 해당하는 현물을 동독에 지불하였음.

# 국제무대 반경 넓혀도 핵·인권 문제 장벽 높아 한계

안정식 SBS 기자



꽤 막힌 정치상황에서 스포츠는 종종 관계의 물꼬를 트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한다. 비정치적 이슈라는 특성이 적대적 정치 주체들 사이에서도 교류를 하는 데 있어 부담감을 덜어주기 때문이다. 미중관계 개선의 계기를 마련했던 핑퐁외교가 대표적인 예이다.

이번 인천아시안게임 또한 남북관계라는 정치적 측면에서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 스포츠 행사로 기록될 수 있을 것 같다. 북한 응원단 파견 무산 등 여러 우여곡절로 인해 당초 기대했던 만큼의 남북관계 개선 효과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남북의 정치상황이 안 좋은 상태에서 남한에서 하는 국제 스포츠 행사에 북한이 대규모의 선수단을 파견하면서 꽤 막힌 남북관

계의 물꼬를 트는 계기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대회 기간 동안 북한 선수단의 경기에서 우리 동포들이 열렬히 응원을 펼친 것도 남북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찾는 데 중요한 계기로 작용했다.

인천아시안게임으로 마련된 정치적 이벤트의 백미는 물론 황병서 북한 총정치국장 일행의 인천 방문이다. 폐회식 전날부터 전격적으로 추진된 황병서 일행의 남한 방문은 국내외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정치적 대형 사건이었다. 표면적으로는 인천아시안게임에 참가한 북한 선수단을 격려하고 폐회식에 참석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지만, 이들이 인천아시안게임만을 위해 남한에 왔다고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이다. 실제로 이들은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우리 정부의 외교안보 당국자들과 오찬을 함께 하며 많은 대화를 나눴다.

## 예상치 못한 파격, 황병서 일행의 방남

황병서 일행이 왜 전격적으로 남한에 왔느냐에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하다. 대내적으로는 김정은 제1비서가 고위대표단을 인천에 보내 아시안게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북한 선수단을 격려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체육 강국을 강조해 온 자신의 지도력을 부각시키는 장으로 삼으려 했다는 시각이 있다. 또 발목 등의 부상으로 잠적기 길어지던 김정은 제1비서의 건강이상설에 대한 관심을 희석시키기 위해 대형 이벤트를 벌였다는 시각도 있다. 여기에 남북관계 개선의 가능성을 타진하려 왔다는 시각,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 북한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효과를 노

렸다는 시각 등도 있다.

황병서 일행은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하지는 않았지만,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류길재 통일부 장관 등 우리 측 고위인사들과 장시간 대화를 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했다. 회담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북한이 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잘해보자는 얘기만 했다”고 전했다.

황병서 일행의 방남 이후 NLL에서의 사격전과 연천에서의 대북전단 사격, 남북 간 군사접촉에서 북한이 NLL 무력화를 시도했던 정황들을 보면, 북한이 황병서 일행의 방남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협상 구도로 이끌기 위해 활용하려 했음을 짐작하게 된다. 의도적인 NLL 도발과 이를 매개로 한 군사접촉을 주장하면서, 황병서 일행이 방남 당시 얘기했던 ‘남북관계 개선의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서’라는 이유를 제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한의 이러한 행보를 ‘황병서 일행이 얘기했던 남북관계 개선은 전술에 불과했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과도해 보인다. 오히려 북한은 ‘북한이 원하는 방식’으로 남북관계를 풀어보기 위해 남한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다.

## 적극적 대외 행보에 나선 북한

북한의 이 같은 대남 행보는 좀 더 넓게 보면 최근 들어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적극적인 대외 행보와도 맞닿아 있다. 북한은 관계가 좋지 않은 남한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에 참가했을 뿐 아니라, 강석주 노동당 국제담당 비서가 9월 7일부터 16일까지 유럽 4개국을 방문했다. 강석주 비서는 독일과 벨기에, 스위스, 이탈리아를 방문해 국제현안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설명하고 북한과 유럽의 관계발전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석주 비서는 유럽 방문에 이어 몽골을 찾아 엘벡도르지 대통령을 면담하기도 했다.

리수용 외무상의 행보도 적극적이다. 리수용 외무상은 북한 외무상으로는 15년 만에 처음으로 유엔총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했다. 핵문제는 자주권에 대한 위협이 사라져야 해결될 것이라며 북한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지만, 유엔의 기후변화회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인권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와 대화할 뜻을 밝히는 등 이전과는 다른 행보를 보였다. 반기문 유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류길재 통일부장관 등 우리 측 관계자들이 10월 4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영빈관에서 2014 인천아시아게임 폐막식 참석차 방남한 북한 김양건 당 통일전선부장 겸 대남담당 비서, 황병서 북한군 총정치국장, 최룡해 노동당 비서와 대화하고 있다.

엔 사무총장을 만나 김정은 제1비서의 친서를 전달하는가 하면, 거리에서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았다. 리 외무상은 유엔총회 참석 이후에는 곧바로 러시아를 열흘 넘게 방문하는 강행군도 이어갔다. 북한 외교라인이 전에 보기 힘든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외교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또 사상 처음으로 방대한 분량의 자체 인권보고서를 발표했다. 물론 북한의 인권상황에는 아무 문제가 없으며 인권문제는 다른 나라가 간섭할 것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긴 했지만, 자신들은 “인권대화를 반대한 적이 없다”며

인권을 의제로 다른 나라와 대화할 뜻을 밝힌 것은 이례적이었다. 실제로 북한은 10월 초 뉴욕에서 유엔 북한 대표부가 각국 외교관과 기자들을 상대로 북한 인권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북한의 이 같은 일련의 행보는 국제사회의 이단아로 남아있던 북한이 국제사회에 대한 접근방식을 서서히 변화시켜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관측을 불러일으키게 한다. 국제사회가 원하는 수준까지 북한이 변화해가는 것은 아니지만, 국제사회에 접근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북한이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북한의 시도는 김정은 시대 들어 나타난 북한의 변화와도 맞닿아 있다. 김정은 시대 들어 북한은 경제개혁 조치를 시도하는가 하면 경제개발구를 전국적으로 만들어 외자유치를 시도하는 등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파격적인 옷차림

으로 미국 노래를 연주하는 모란봉악단이 등장하는가 하면, 김일성·김정일 시대와는 달리 최고지도자가 부인과 함께 공개석상에 나서는, 북한으로서는 이례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칙칙한 배경의 조선중앙TV 또한 김정은 시대 들어 세련미를 더해가고 있다. 스위스 유학 경험에 있는 김정은 제1비서가 나름대로 국제 감각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고나 할까? 북한이 내세우고 있는 핵-경제 병진노선은 핵을 포기할 생각은 없으며 경제는 발전시키고 싶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경제발전을 위해 북한에게 지금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 김정은 정권은 그러한 조건이 남한을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관계개선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핵은 포기하지 않겠지만, 국제사회와 협력할 부분은 협력해 북한의 경제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 한계는 여전... 북한의 궁극적 선택은?

하지만 북한의 적극적인 대외 행보에도 불구하고 한계는 여전해 보인다. 강석주 노동당 국제담당 비서가 유럽 4개국을 방문했지만, 스위스를 제외하고는 정부 고위 당국자들과의 면담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무차관이 강석주 비서를 만난 스위스마저도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수교국간 정례 정치대화 차원에서 이뤄진 만남으로 최소한의 수준에서 진행됐다”고 의미를 축소했다. 북한의 외교수장인 강 비서가 열흘씩이나 유럽을 찾았음에도 뚜렷한 외교적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이다. 리수용 외무상이 유엔총회에 참석해 적극

적인 외교 행보를 보였다고 하지만, 북한에 대한 이미지가 크게 바뀐 것은 아니다. 국제사회에서 북한은 여전히 ‘문제 있는 국가’로 낙인찍혀져 있다. 북한이 자체 인권보고서를 처음으로 발표하고 인권을 의제로 국제사회와 대화할 뜻을 밝혔다고 하지만, 북한이 극심한 인권탄압 국가라는데 국제사회에서 별다른 이견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유엔 산하의 북한인권조사기구로 설립된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올해 2월 ‘북한에서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인권침해가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데 이어, 유엔에서는 조만간 북한인권결의안도 채택될 예정이다.

북한의 적극적인 행보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대외적인 성과가 미흡한 것은 근본적으로 ‘북한은 불량국가’라는 이미지가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이미지의 한가운데에 핵문제가 놓여 있다. 북한은 핵-경제 병진노선을 추구한다며 핵포기 없는 경제발전을 추진하겠다고 하지만, 경제발전의 필수조건인 국제사회와의 협력은 핵포기 없이는 이뤄지기 힘들다. 미국 주도의 NPT 체제가 국제안보의 기반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틀을 벗어나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도모하겠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상상일 뿐이다.

북한의 최근 행보를 보면, 김정은 제1비서는 김정일 시대와는 다른 적극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은둔형 지도자였던 아버지와는 달리 좀 더 넓게 국제사회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핵-경제 병진노선을 고수하는 한 그러한 변화의 시도들이 결국은 핵이라는 장애물에 가로막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김정은은 어떤 선택을 할까? 예전의 지도자들처럼 폐쇄적 리더십으로 되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좀 더 과감하게 근본적인 변화의 길을 걸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1차적인 답이 향후 몇 년 안에 나오게 될 것이다. 🌀

**안정식**은 1995년부터 SBS 기자로 재직 중이다. 현재 정치부 기자로 10년 가까이 북한 문제를 취재하고 있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SBS 기자로 재직하면서 경남대 북한대학원에서 북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 새로운 10년 위한 비전과 모델을 준비해야

장환빈 한반도개발협력연구네트워크 운영위원장

도라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개성공단과 개성 시내 ©민화협

개성공단 가동 10년을 회고해 보면 공단 탄생의 주역인 현대그룹 고 정몽헌 회장을 생각지 않을 수 없다. 2000년 8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공단개발지역으로 개성지역을 확정·통보하면서 “개성은 한민족이 화해한 도시의 의미만 가지면 안 돼요. 현대화로 영원히 남는 도시로 만들어야 합니다. 시범적으로 서울식이든, 미국식이든 마음대로 해 봐요. 행정만 우리가 틀어쥐고, 나머지는 현대가 다 알아서 하세요”라고 통 큰 결단과 함께 정몽헌 회장에게 개발사업권을 포함한 거의 전권을 부여해 주었다. 2003년 1월 남북한 군부 간 ‘임시도로 통행에 관한 군사보장 합의서’가 타결되어

후전선에 남북을 하나로 연결하는 통로가 열리게 되면서 공단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 해 2월 개성공단으로 연결되는 경의선 임시도로를 통해 육로답사를 다녀온 정몽헌 회장은 “이제 자전거를 타고 중국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감개무량해 했다. 2003년 6월 개성공단 착공 식후 7월 초 미국 시카고의 세계적인 공단전문 컨설팅회사인 AECOM그룹의 McClier사와 개성공단 마스터플랜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개성공단을 국제적인 공단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며 노력했던 정몽헌 회장은 안타깝게도 2004년 12월 첫 제품이 생산되는 개성공단 가동 모습을 보지 못하고 타계하였다. 이처럼 갖은 난관과 희생을 극복하며 문을 연 개성공단이 끊임없는 북풍과 남풍의 소용돌이 속에서 풍전등화처럼 흔들릴 때마다 ‘만약 당시에 정몽헌 회장이 타계하지 않고 현대가 인프라 투자와 공단개발을 모두 주도하였다면 개성공단은 남

북한 당국의 정치·군사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안타까운 생각을 해보게 된다. 이제 가동 10년이 된 개성공단은 초기 계획에는 상당히 못 미치는 ‘절반의 성공’에 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단계, 3단계는 물론 1단계 사업조차도 완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우수한 인프라시설에도 불구하고 정체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그만큼 개성공단 투자환경이 아직까지 불안하다는 점을 말해준다. 남북 당국은 유럽, 중국, 러시아 등 외국자본 유치를 통한 개성공단의 국제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미 분양받은 남한기업들도 공장건축을 계속 기피하고 있고 개성공단 제품에 대한 미국, 캐나다의 특혜관세 혜택도 계속 불투명한 상황에서 과연 외국기업들이 자본투자에 얼마나 적극적인 관심을 보일지 의문이다.

## 참여주체들 간의 신뢰 부족

반면 개성공단보다 10년 이른 1994년 시작된 중국-싱가포르 합작 소주공단(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은 덩샤오핑과 리관유 간의 확고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였다. 개성공단과 소주공단을 비교분석해 보면서 개성공단이 당초 계획에 비하여 상당히 부진하게 된 원인과 향후 발전을 위한 주요 과제를 간단히 정리해 보았다.<sup>1)</sup> 남북 당국 간 고위급 협력체계가 구축되지 못한 현실 속에서 남북 간의 불신의 골



개성공단을 시찰하고 있는 민화협 해외협의회 상공인들

이 깊어질 때마다 개성공단은 정치·군사적 압박수단으로 이용되면서, 공단개발은 남북관계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보이며 개발성과도 부진할 수밖에 없었다. 당초 개성공단의 개발주체 및 관리주체의 역할을 부여받은 현대그룹이 재정적으로 어렵게 되자 남한 정부는 LH공사를 참여시켜 개발·관리를 모두 주도하였다. 결국 북한은 남한 당국 압박수단으로 개성공단을 활용하였고 남한도 개성공단을 대응방안 중의 하나로 인식함으로써 개성공단 참여주체들 간에 불신·갈등 관계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아울러 수시로 발생하는 남북 간 갈등·대립 상황에서 적절한 갈등해결 메커니즘이 없어 계속 곤란을 겪고 있으며, 개발주체인 현대그룹과 LH공사는 수익창출 모델을 찾지 못하고 있고 개성공단관리위원회도 적자운영으로 남북협력기금의 지원에 의존하는 등 참여주체들 모두가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적에 따른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북한은 자본주의 영향을 차단하기 위한 ‘모기장식 제한적 개방정책’을 고수하면서 개방 및 투자보장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남북 당국이 공동 추진해야 하는 개성공단의 외자유치 활동에서도 북한은 방관자적 자세를 견지하였고 개성공단을 북한 국내 경제와 분리하는 차단정책 때문에 개성공단을 활용한 국내 경제 연계발전 효과도 미미하다.

## 중국 소주공단 방식, 국제공동개발 비즈니스모델 필요

개성공단 2단계 사업은 그동안 축적된 1단계 사업시행 경험과 함께 기존 인프라 투자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1) 이 글은 필자의 박사학위논문 “개성공업지구와 소주공업지구 비교 연구”(북한대학원대학교, 2014) 중에서 일부를 발췌·보완한 것임.

게다가 연속된 사업으로서 사업 초기 데  
가 및 보상 문제와 관련된 갈등을 최소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의 다른 어느 지  
역보다도 사업여건이 유리하고 다른 어떤  
남북경협사업보다도 성공 가능성이 높다  
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남북한 당국은 1단  
계 개발·관리 과정에서의 교훈을 바탕으  
로 개성공단 2단계 사업을 현재 교착상태  
에 있는 남북경협의 새로운 돌파구로 활  
용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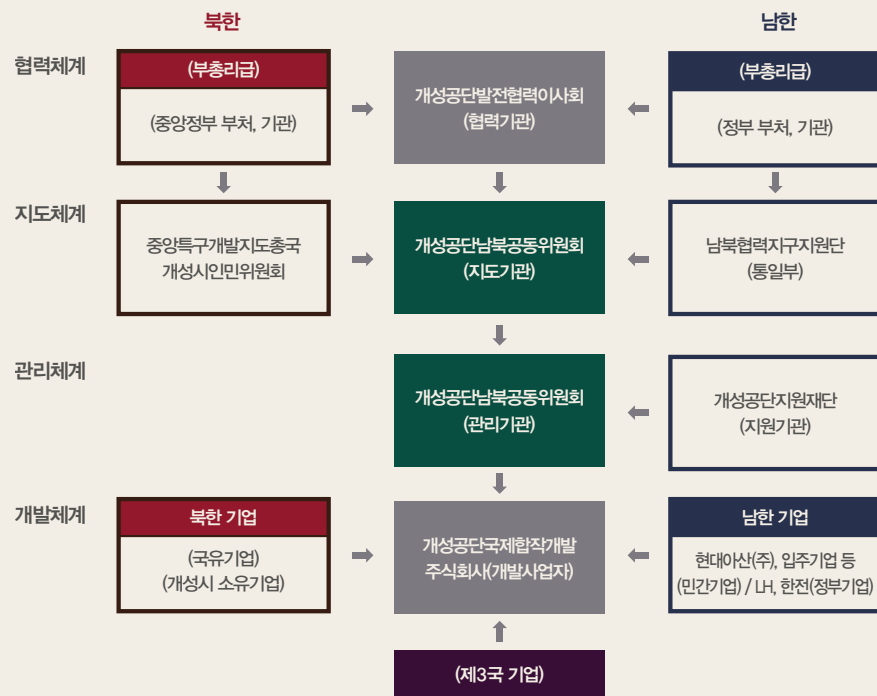
북한은 앞으로 많은 경제특구 및 경제개  
발구를 성공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개  
성공단 2단계 사업을 남북 공동 또는 다  
국 공동으로 추진해 성공시키는 선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남한 당국도 개성공단 관련 과거 정부에  
서 약속했던 사항들에 대한 이행 여부를 분명히 하고 개성공  
단의 장래에 대한 발전적 논의를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

개성공단 2단계 사업을 위해서는 ①참여주체 간 신뢰·협력  
을 위한 발전협력체계 구축 ② 국제공동개발 비즈니스모델 도  
입 ③북한의 주도적, 발전적 역할 등이 필요하다.

개성공단 2단계 사업은 아래 <표>에 제시한 바와 같이 협력체  
계부터 조직 후 지도체계 - 관리체계 - 개발체계의 다층적 조  
직체계 형태의 공동개발·공동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  
다. 협력체계의 핵심주체 역할을 하는 '개성공단발전협력이사  
회(가칭)'와 같은 고위급 협의기구가 가동된다면 개성공단 문  
제 해결뿐만 아니라 남북한 당국의 신뢰 고리 역할도 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2단계 사업은 현재의 공영개발모델보다  
는 소주공단 공동개발모델처럼 민관협력모델이 바람직하다.

#### 개성공단 2단계 국제공동개발 추진체계 구축 방안



자료  
- 개성공업지구 법제연구회,  
『개성공업지구 법제의 진화  
와 미래』 (서울: 경남대학교  
출판부, 2012), p.33  
- 개성공업지구 관리체계와  
중국 소주공업원구 조직체계  
를 참고하여 필자 작성

우선 남북 당국이 관련 합의서 체결, 법규  
재정비, 추진체계 구축 및 개발계획 확정  
과 함께 기본 인프라 건설을 완료시킨 후  
민간 개발사업자를 선정하여 개발을 맡기  
는 일종의 선관후민(先官後民) 방식이 성  
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한편 개성공단 2단계 사업에 참여하는 남  
북한 당국, 기관, 기업들은 중국 소주공단  
모델을 참고하여 국제공동개발 비즈니스  
모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1단계 사업은  
남북한이 모두 win - win 할 수 있는 가  
장 바람직한 남북경제협력 사업모델이라  
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당초 의도했던 수  
익사업을 목표로 하는 비즈니스모델이라  
기보다는 남한 정부가 북한의 경제개발을  
지원하는 개발협력모델의 성격이 더 컸  
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2단계에서는 공  
공성보다 수익성을 우선하는 민관협력의  
비즈니스모델이 개성공단을 장기적으로  
지속 발전하는 데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북한은 개성공단관리위원회 운영  
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공단개발·관리  
경험을 쌓아야 하며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개성공단 내에서 합영·합작을 통한  
기업경영 방법도 배워야 한다. 북한은 다  
른 경제특구와 경제개발구들을 성공적으  
로 개발시키기 위해서는 개성공단이 '잣  
대'(barometer) 역할을 한다는 점도 명심  
해야 한다. 즉 개성공단에서부터 먼저 국  
제 규범 및 관행에 합치하는 투자보장 정  
책과 일관성 있는 태도를 보여줌으로써 남  
한 및 외국기업들의 신뢰를 쌓아 나가야  
하며 그동안의 방관자적 자세에서 벗어나  
외자유치를 위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매일 매일 남북한 기업과 근로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제품 생  
산, 수출을 위하여 협력하고 있는 개성공단이야말로 현 정부  
가 강조하고 있는 남북 간 작은 통일, 작은 경제공동체의 실  
험장이라고 생각된다. 남북한이 지금의 개성공단을 개성남북  
경제공동체로 발전시키고 나아가 한반도 경제공동체, 더 나  
아가 유라시아 경제공동체로 확대 발전시킬 수 있다면 개성  
공단이라는 시발점을 통해 우리의 민족경제공동체 이상을 구  
체화시키고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목표도 달성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 개성남북경제공동체로 발전시켜야

제10차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연설에서 박근혜 대통  
령은 “평소 철도를 타고 부산을 출발해 북한을 통과해서 유럽  
으로, 밀라노로 오는 꿈을 키워왔다. 그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  
는 날, 아시아와 유럽의 연계성은 최종적으로 완성될 것”이라  
고 말했다. 북한을 통과해서 유럽까지 갈 수 있는 경의선 철길  
은 이미 연결되어 있지만 남북한 상호 간의 불신의 골은 경의  
선 철길을 녹슬게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의 꿈이 임기 내에 가시  
적인 성과로 꼭 이루어졌으면 한다. 우리는 이미 과거 전례를  
통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대북정책의 연속성이 단절  
되는 경험을 겪었기 때문이다.

개성공단이 개성남북경제공동체로 발전하기 위한 가장 중요  
한 과제는 결국 신뢰프로세스 구축이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  
한 당국뿐만 아니라 민간기업 등 모든 참여주체들이 10년 전  
초심으로 돌아가 과거에 대한 반성과 함께 새로운 비전을 수  
립하는 총화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난 10년간의 땀과 눈  
물로 이룩한 오늘날의 개성공단이 '절반의 성공'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10년에 필요한 비전과 모델도  
준비되어야 하며 이 과제에 대한 논의가 새로 발족된 통일준  
비위원회의 최우선 과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장원빈**은 서울대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미국인디애나대학교 경제학 석사, 북한  
대학원대학교 북한학(경제) 박사학위를 받았다. 외환은행 국제금융부, 뉴욕지점  
에서 근무하고 금호그룹의 흥광합작금융회사 대표를 역임하였으며 현대이산(주)  
의 경영지원본부장, 관광경협본부장으로서 금강산관광사업과 개성공단사업 등  
대북사업을 담당했다. 현재는 한반도개발협력연구네트워크 운영위원장으로 활  
동하고 있다.

# 물질 중심적 사고와 개인주의 높아졌지만 여전히 친숙한 사회주의 체제 선호

장인숙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 연구위원



“변한 듯, 변하지 않은, 변한 것 같은 북한~”

아이돌 그룹 씨스타의 소유가 부른 <썸(some)>이라는 곡의 인기가 대단하다. “내꺼인 듯, 내꺼 아닌, 내꺼 같은 너~, 니꺼인 듯 니꺼 아닌 니꺼 같은 나~”라는 가사가 유행어가 되어 생활 곳곳에서 활용된다. 두 남녀가 ‘사귀자’ 또는 ‘사랑한다’는 고백을 주고받지 않은 관계에서 때로는 연인 같고, 가끔은 그저 친구 같기만 한 상대방과의 애매모호한 관계를 재치 있게 표현했다. TV의 개그프로그램이나 각종 예능 방송 등에서도 명확하게 규정하기 애매한 상황에 부딪히면 이 노랫말을 개사하여 사용하곤 한다. 대표적인 예가 종합편성 채널 JTBC의 ‘비정상회담’이다. 10여 명의 세계 각국 젊은이들이 하나의 주제로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문화 차이를 확인하게 되는 방송이다. 각국의 역사와 환경 문화 등에 따라 어느 나라에서는 정상으로 보이는 것이 다른 나라에서는 비정상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정상인 듯 정상 아닌 정상 같은 너~”라는 개사곡으로 표현한다.

‘북한 사회의 변화 어디까지 와 있나’라는 질문 앞에서 필자는 “변한 듯, 변하지 않은, 변한 것 같은 북한~”이라는 노랫말이 떠오른다. 북한 사회가 변했다고 느낄 때 다른 한편에서 전혀 변하지 않은 모습에 직면하게 되며, 전혀 변하고 있지 않다고 여길 때 놀라운 변화를 목격하게 된다.

## 정치적 신분질서 뛰어넘는 새로운 경제적 계층화 진행

최근 북한 사회의 변화된 모습을 인터넷과 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접하게 된다. 패스트푸드점에서 햄버거, 피자, 콜라를 먹고 있는 북한 주민들, 미키마우스 책가방에 앵그리버드 신발을 신고 있는 북한 어린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렇듯 눈에 띄는 모습 외에도 외국 라디오 방송 청취, 남한 드라마 DVD 시청이 북한 주민들 사이에 널리 퍼져있다.

북한 사회 변화의 중심에는 시장이 있다. 시장을 통해 외부정보의 유입과 내부 정보의 급속한 확산이 이루어진다. 특히 북한 사회의 외부정보 유입과 유통은 휴대전화 사용자 급증과 더불어 가속화되고 있다. 가격 정보나 흥정이 휴대전화를 통해 진행되면서 휴대전화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라고 한다. 휴대전화 사용자는 2013년 중반에 200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른바 ‘대포폰’으로 중국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까지 합하면 통계적으로 북한 생산활동가능 인구(1천480만 명)의 약 20%가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제 북한에서 휴대전화는 권력과 부의 상징을 넘어서 생존과 생활의 일부가 되어



평양 시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택시와 수입 자동차들. 최근 북한을 다녀온 이들은 대부분 북한의 경제상황이 과거에 비해 상당히 나아진 것으로 평가했다.

가고 있는 것이다. 휴대전화 사용자의 급속한 증가는 세계 그 어느 나라 보다 폐쇄적인 북한 사회의 변화를 보여주는 상징적 예다.

북한 사회 변화 추세만큼 주민들의 의식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1990년대 이래 ‘고난의 행군’을 겪으며 북한 주민들은 ‘시장’을 통해 스스로 생존을 영위해왔다. 주민들의 자구적 생계유지 활동은 집단주의 약화를 초래하였고 북한 사회에 금기시되어 온 개인주의가 확산되었다. 이처럼 사적 경제활동이 이뤄지면서 이데올로기보다 물질을 우선시하는 배금주의 풍조 또한 폭넓게 퍼져 있다. 영국 외교관으로 평양에 3년 가까이 거주했던 존 에버라드(John Everard)는 북한에서 출신성분은 더 이상 주민들의 삶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지 않는다면 배우자 선정에서도 성분보다는 소득이 우선시되고 있다고 말한다. 이는 자본을 축적한 상인계층의 등장으로 종래의 정치적 신분질서를 넘어서는 새로운 경제적 계층화가 진행되는 북한 사회의 반영이다. 북한 주민 의식에는 북한 사회질서 유지의 근간이 되어온 이데올로기 중심적 사고와 집단주의적 가치가 쇠퇴하고 그 자리를 물질 중심적 사고와 개인주의적 가치가 대체하고 있다.

현재 북한 주민들의 체제에 대한 불만, 개혁·개방에 대한 기대감, 외부 정보와 문화 접촉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북한 변화의 핵심이자, 이제는 거스를 수 없다고 보여지는 ‘시장화’에 대한 피로감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다.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에서 지난 3년간 실시해온 탈북민 조사에 따르면 북한에서 장사활동 경험을 지닌 탈북민이 70%를 넘을 만큼 ‘시장’이 북한 사회에 널리 확산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김정은 시대 북한 주민들의 장사활동 접촉 수준과 시장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 평균값이 조사연도 기준으로 2013년 3.95에서 2014년 3.66으로 감소하였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조사 결과에서도 탈북민의 장사 경험이 2013년 74.4%에서 2014년 69.8%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렇듯 장사활동과 시장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감소한 것은 김정은 집권 이후 사회에 대한 통제 및 조직 생활 강화가 주요 요인일 것이다.

#### ‘시장화’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피로감 증대

그러나 자발적 의지에 의해 감소가 이루어졌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탈북민들은 북한의 생활수준 향상이 장사활동 감소의 배경으로 작용하였다고 말한다. 최근 북한 경제가 비교적 안정되고 있다는 점은 여러 곳에서 확인된다. FAO와 WFP는 북한의 식량생산이 2011년부터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지난 3년간의 생산실적은 1995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또한 북한의 다양한 지역을 해마다 방문하고 있는 한 해외 인사에 따르면 최근 북한 방문에서 북한의 생활수준과 복지가 향상되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었다고 한다. 거리, 주민들의 옷차림과 표정에서도 나아진 생활상을 느낄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한 탈북민 단체장도 북한 주민들이 집을 꾸미고, 옷을 구입하는 등 먹는 문제 외에 관심을 기울이는 분위기라고 전한다. 이처럼 경제가 조금씩 나아지면서 장사활동이 줄어들고 시장의 필요성이 감소하는

것에 대해 탈북민들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한다. 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하여 하루 종일 일해도 버는 돈은 적고, 돈을 더 벌기 위해서는 뇌물을 더 많이 줘야 하고, 뇌물을 많이 주면 남는 돈이 없다는 것이다. 큰돈을 벌기 위해서는 권력과 자본이 필요한데,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은 권력층과 연줄이 없고 자본을 축적하기 힘든 상황이라 부를 축적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경제가 안정화되고 배급제가 정상적으로 작동된다면 당장 장사활동을 그만둘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할 것이라는 증언이다. 20여 년 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에 피로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다수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평양 광복거리에 세워진 광복지구상업중심 내부의 의류 판매코너의 모습

수 있었다. 이들은 북한이 경제적으로 먹고 살만하게 된다면 자본주의 사회보다는 익숙하고 편안한 사회주의 체제 유지를 희망하는 계층이라고 보여진다.

#### 외부의 인식과는 달리 자유보다는 생활수준 향상 희망

개인주의·물질주의 확산이 보여주는 북한 주민들의 의식변화 그리고 신분질서 변화에 따른 계층분화, 국가-사회 간의 지배양상 변화 등을 근거로 북한 주민들의 체제불만 증대와 체제붕괴 가능성이 거론된다. 그러나 본 연구원이 2012년부터 3년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다수의 북한 주민들을 자신들을 통제하는 정권에 무관심한 채 일상을 영위한다. 그들의 주요 관심사는 ‘먹고사는 문제’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북한주민 통일외식조사에 따르면 통일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90%를 넘는 응답률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통일을 바라는 가장 큰 이유 중 1순위는 바로 지금보다 잘 살게 될 것이라는 응답이다. 이러한 북한 주민들의 생각은 지난 2011년 한국방송공사(KBS)의 조사 결과에서도 보여진다. 중국을 오가는 102명의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57.7%가 사회주의체제, 40.2%가 중국식 일국양제 방식의 통일을 희망한다고 응답했다. 북한 주민들이 원하는 통일된 사회는 그들이 익숙하고 친숙한 환경이기를 희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는 북한 사회와 주민들의 의식 변화를 우리가 기대하는 방향으로만 해석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제한된 정보의 크레미놀로지(kreminology) 시각 또는 디아스포라(diaspora)적 시각 등 외부자의 시선으로 대다수의 북한 주민들이 현 체제를 부정하며,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본주의 사회를 모두가 갈망할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 사이에 김정은 정권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나, 그들의 관심은 누가 집권하든지 보다는 단지 지금보다 더 나은 생활수준을 희망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현 체제에서 잘 먹고 잘살게만 해준다면 지금의 일상이 크게 변하는 불안과 불편함을 겪고 싶어 하지 않는다. 북한 사회가 급변해왔고 주민 의식 또한 상당한 수준의 변화를 이어왔지만 그러한 변화가 북한 체제 변화의 추동력을 형성하고 있지는 못하다. 북한의 변화를 이끌 강력한 동력은 북한 주민으로부터 비롯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갈 길이 멀다고 여겨진다. 북한 사회의 가시적인 변화가 북한 사회 발전과 통일로 가기 위한 진정한 한 걸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조급함을 버리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소통의 기회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

장인숙은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북한학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에서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 조동섭

윤이상평화재단 부이사장

# “윤이상의 염원과 예술혼을 담아 남북의 평화와 화해를 꿈꿉니다”

글 염규현 정책홍보팀 부장  
사진 김성현 객원작가

분단의 아픔과 상처를 온몸으로 견디며 살다 간 세계적인 작곡가 고 윤이상. 그의 음악과 예술혼을 기리는 윤이상평화재단의 이사장인 영담 스님, 조동섭 부이사장, 장용철 상임이사 등 3명이 지난 9월 26일부터 29일까지 평양을 방문하고 돌아왔다. 북한 윤이상음악연구소 창립 30주년을 맞아, 보고회 및 기념음악회의 초청을 받은 것이다. 5·24조치 이후 단절되었던 남북 간 문화교류로서는 첫 평양행이기도 했던 이번 행사에서 윤이상평화재단은 북측에 ‘평화를 위한 자전거 투어’와 ‘DMZ에서의 지구촌 평화음악회 공동 개최’를 제안했다. 조동섭 부이사장을 만나 이번 방북의 의미와 함께 윤이상평화재단의 향후 활동 계획을 들어보았다.

**Q.** 윤이상평화재단은 2006년 금강산, 2007~2008년 평양에서 북한 윤이상음악연구소와 함께 합동으로 윤이상음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후 꽤 오랜만에 이뤄진 만남인데, 이번 방북의 의미와 성과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난 5·24조치 이후 남북 간 민간 교류가 거의 모든 분야에서 단절된 상태에서, 사회·문화교류 차원의 방북이 이뤄진 점이 적지 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윤이상음악연구소의 창립 30주년을 기념해 우리를 초청해 준 북측도 고맙고, 우리의 방북을 승인해 준 통일부에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비록 남북이 정치적으로는 경색되어 있다고 해도, 비정치적 분야의 교류는 막지 않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여기에 ‘우리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전달하자’는 나름의 생각도 더해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물론 우리의 방북을 정부가 승인한 것 자체가 일정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기도 하죠.

방북 기간 동안 박춘남 문화상, 한철 문화성 부상, 강수원 조선불교도연맹 위원장, 홍경호 윤이상음악연구소장, 안동춘 문학예술총동맹 중앙위원장, 장조일 국립교향악단 단장 등 많은 이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중요한 손님으로 환영해주었다는 의미도 있겠고, 다른 한편으로는 북측 역시 우리의 방북을

통해 무언가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긍정적인 방향이겠죠. 경색된 남북관계를 문화로, 예술로 먼저 풀어가지는 의미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대화를 통해 서로 소통하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음악회에 참석하러 온 손님의 차원을 넘어, 자신들의 생각을 전하고 또한 우리들을 통해 남측의 생각과 행간을 읽으려는 노력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재단차원의 사업 제안도 했지만, 우리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의지 등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설명을 했습니다. 상호 불신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서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하고, 또한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하지 않겠냐고요. 북측 역시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습니다.”

**Q.** 공교롭게도 이번 방북 기간은 김정은 재위원장이 장기간 공식 석상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이후 모습을 드러냈지만, 당시엔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던 시기였는데, 직접 느낀 당시의 분위기는 어땠나요?

“그 어떤 이상한 분위기도 전혀 느낄 수 없었습니다.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들부터 사업 논의를 함께 한 이들과, 모두들 활기차고 자신감이 넘쳐 보였어요. 만약 정치적 변화나 그 어떤 비상 상황이었다면 도저히 그런 표정들을 지을 수 없었겠죠. 물론 짧은 방문 기간 중 목격한 것들이라 한계가 있었겠지만, 평양은 매우 차분하고도 밝아 보였습니다. 오히려 여기저기 건설이 한창이라 과거보다 일정 정도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 활기차 보이는 평양 시민들, 곳곳에 건설이 한창

**Q.** 윤이상평화재단에서 북측에 제안한 사업들, 자전거 투어와 DMZ 평화음악회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그리고 북측의 반응은 어땠는지도 궁금합니다.

“두 사업 모두 2017년 윤이상 탄생 100주년을 맞아 기획한 것입니다. 먼저 ‘평화를 위한 자전거 투어’는 독일 베를린 윤이상

하우스에서 출발해 러시아와 북한을 지나 판문점을 거쳐 통영 생가에 도착하는 코스입니다. 남과 북에서 한 팀씩, 그리고 윤이상의 음악과 평화를 사랑하는 해외 팀 등 총 3개 팀이 함께 출발해 달리는 계획이에요. 한편 DMZ에서의 지구촌 평화음악회는 생전 윤이상 선생이 제안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DMZ에서 남북의 음악가와 전 세계 음악가 그리고 연주인들을 초청해 평화를 노래하는 겁니다. 그 못 이룬 꿈을 현실로 만들어보려고 제안하게 된 것이죠. 다행히 북측의 반응은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들 역시 윤이상 탄생 100주년이라는 것에 적지 않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다만 우리의 제안을 남측 정부가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며 반문했어요. 다시 공이 우리에게 넘어온 셈이죠.”

**Q. 백산인터내셔널이라는 기업의 CEO이시기도 한데, 평화운동, 통일운동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조금은 독특한 이력인데, 통일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나 배경은 무엇인가요?**

“대학 졸업 후 정신없이 살아가다 어느덧 기업을 운영하게 되면서, 제가 가진 미약한 능력을 어떻게 사회에 긍정적인 부분으로 환원할 수 있을까 고민해 왔어요. 그러다 평화와 통일 그리고 교육문제라는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분야에 참여하기로 결심했죠. 평화를 생각하니 자연스레 북한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어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석사과정을 마쳤고, 또한 홍세화 선생님을 만나게 되며 교육운동단체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윤이상평화

재단은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알게 된 여러 분들이 제안해서, 2013년부터 참여하게 되었어요. 잠시 고민하기도 했지만, 윤이상이라는 음악가에 대해 여전히 남아있는 편견과 불편한 인식에 제 나름대로의 대응할 수 있는 논리를 갖추었다고 판단해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 윤이상 탄생 100주년, 남북이 함께 평화와 화해를 노래하자

**Q. 앞서 소개한 사업들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단의 향후 계획을 소개해 주세요.**

“먼저 재단 내부적으로는 사회적으로 여전히 남아있는 편견이랄까, 이념적 잣대를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칭 진보적이라 말하는 분들, 혹은 남북화해나 통일운동에 관심이 있고 참여하는 분들 중에서도 여전히 윤이상이라는 음악가를 이념적 잣대로 판단하고,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재단은 윤이상이라는 음악가를 통해 남북의 반목이나 갈등이 아닌, 평화와 화해 그리고 통일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담론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이상이라는 이름이 남북의 갈등이나 남남의 갈등을 일으키는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화해와 평화의 상징으로 제대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음악가’ 윤이상을 제대로 알리는 작업이 여전히 필요할 것입니다. 예술을 통해 민족과 평화와 통일을 이야기했던 그 정신을 알리는 것이죠. 때문에 재단의 주요 사업 역시 남북이 문화와 예술을 통해 보다 가까워지고, 상대를 더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야 할 것입니다. 상호 음악인을 초청해 음악회를 갖고, DMZ 평화음악회를 통해 남북의 평화 의지를 세계에 알리는 일도 해야죠. 남북이 음악으로 하나 되어 평화를 노래하고 통일을 꿈꾸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DMZ 세계평화공원 사업에도 우리 재단이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결합 가능한 일이죠. 공원 내에서 남북의 음악인들이 모여 윤이상 음악회를 개최한다면 그것 역시 매우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요?”



01 평양 윤이상박물관을 찾은 윤이상평화재단 일행과 북측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02 9월 27일 열린 윤이상음악연구소 창립 30주년 기념음악회 개막식 및 1일차 공연 모습

**Q. 마지막으로 현 남북관계 개선에 있어 바라는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현재 한중문화예술교류협회 부이사장직을 맡아 중국에서 문화예술지원 및 조직 사업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6년 정도 중국에 있다 보니 느끼는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남북관계를 바라보고, 또한 이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 중국의 변화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생각, 그 생각이 최근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저는 중국의 미묘한 변화와 함께 북중관계의 변화를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북중관계는 정치적으로 미묘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경제적으로는 과거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교류가 이뤄지고 있어요. 특이한 상황이에요. 북한은 중국을 대상으로 대규모로 관광지를 개방하고, 나진을 비롯한 경제개발구를 통해 투자 유치를 꾀하고 있어요.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시진핑 주석의 글을 노동신문 3면에 게재하고, 과거엔 서로 우호적인 이야기들을 주고받았던 양국 기념일에도 별다른 이야기가 없어요.

저는 그 이유를 중국 사회가 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조금씩 중국 체제가 변해가고 있는 것이죠. 이제 중국은 국민들의 여론이랄까, 민의를 일정 부분 수용하지 않고서는 공산당 1당 독재를 계속 유지해 나가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과거와 달리 상당히 민주화된 민의, 바로 그 민의가 북한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젠 혁명 1세대들도 사라지고,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이들도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 자리를 젊은 신세대들이 채우고 있는 상황입니

다. 중국 신세대들에게 북한은 이해하기 어려운 나라일 뿐 더 이상 혈맹이 아닌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북한을 과거와 같은 형제국가로 대하기가 더 절끄러워진 것입니다. 물론 여기엔 핵문제를 비롯해 다양한 변수들이 함께 작용하고 있겠지만, 중국이라는 국가 자체가 변화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한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북한에겐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가 중요해집니다. 최근 일본과의 관계 강화 노력도 그 움직임 중 하나겠죠. 하지만 일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면 우리에게 기회인 것이죠. 때문에 저는 북한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를 주의 깊게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정색기가 끝나고 양측의 필요에 의해 북한과 중국이 다시금 가까워지게 된다면, 그때는 북한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국에 예측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통일은 더 요원해지겠죠. 장기적으로 상황을 살피면서도, 중요한 순간을 놓치지 않는 능력도 남북관계에선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남북공동발굴로 만여 점의 유물 출토, 역사적 성과가 남북관계 발전으로 이어지길

지병목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고고연구실장

우리나라의 영문 표기에 'Korea'라는 단어가 들어간다. 이 단어가 '고려(高麗)'(918 - 1392)라는 나라 이름에서 유래하였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고려 이후 서양 사람들에게 우리나라는 예나 지금이나 Korea인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민족성이나 역사에 대한 자긍심이 강하다고 한다. 특히 저 만주 별판을 호령하며, 중원 왕조와 당당히 겨루었던 고구려에 대한 향수는 매우 남다르다. 따라서 그런 고구려를 계승하였다고 하는 고려에 대한 감정 또한 특별할 수밖에 없다. 상감청자로 대표되는 도자기술, 서양에 어깨를 으쓱하게 하는 금속활자술 등이 이러한 감정을 배가시킨다. 그러나 막상 고려에 대해 우리 주변에서 직접 접할 수 있는 것들은 그리 많지 않은 듯하다. 학술적인 면에서 고려시대 연구

자의 숫자는 물론, 일반인의 관심이나 성과물도 다른 시기에 비해 많다 할 수 없다. 가장 흔히 접할 수 있는 것이 사찰 등에 남아 있는 탑과 같은 건축물이다. 그것도 매우 단편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왜 그럴까? 몇 가지 이유가 있다.

## 남북 민족사 연구의 일대 사건, 만월대 공동발굴조사

첫째는 많은 전란을 거치면서 사라졌기 때문이다. 유난히도 많은 외침을 받았던 고려다. 대륙의 홍망 성쇠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살았다. 대륙의 혼란기에 국가를 이루어 한동안 황제를 칭하며 웅혼한 기상을 떨치기도 하였지만 수십 년이 넘는 전화(戰火)에 전 국토가 유린당하기도 하였다. 그러니 남아 있을 것이 많겠는가. 둘째는 고려의 수도가 현재 우리가 접할 수 없는 북녘땅 개성에 있기 때문이다. 당대 가장 활발한 인구 활동과 그 유산이 남아 있는 곳은 두말할 나위 없이 그 나라의 수도이다. 그런데 그런 곳에 갈 수 있는 길이 막힌 지가 60년이 훨씬 넘었다. 그러니 현재 남쪽에 살고 있는 사람의 거의 대부분은 가본 적이 없거나, 보았더라도 이미 기억 속에서 없어졌거나 희미해졌을 것이다.

60여 년 이상 갈 수 없었고, 볼 수 없었던 지역이 마침내 남쪽에 그 방문을 허락하였다. 2007년 4월, 남과 북은 소위 '만월대(滿月臺)'로 불리는 고려 궁궐터를 공동으로 조사하게 된 것이다. 만월대는 919년

(태조2)부터 1361년(공민왕10)까지 고려의 정궁(正宮)이 있던 곳이다. 이 유적에 대한 조사는 단절되었던 남과 북의 민족사 연구에 한 획을 긋는 일대 사건이다. 단지 그동안 단편적인 자료들에 의존하여 연구되었던 고려시대에 대한 연구의 폭을 확대시키는데 머무는 것이 아니다. 남과 북이 함께 수십 일 동안 직접 유적 현장을 파면서 조사하고 토론하며 결론을 도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현장 발굴조사란 것이 고된 육체 작업과 수집된 자료의 분석과 해석을 필요로 한다. 자연스럽게 참여하는 사람들 간의 인간적인 접촉과 공동 노력이 필수적이다. 또한 유구나 유물의 출토 맥락을 현장에서 서로가 직접 발굴, 확인하고 기록하는 것이므로 다른 불필요한 선입견이 개입될 여지가 적다. 이런 조사는 하루나 이틀 정도 만나 학술토론을 하거나 자료 교환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연구방식과는 근본을 달리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만월대 공동발굴이 시작되기 전 이미 남북 간의 공동조사사업은 몇 차례 이루어진 예가 있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6차에 걸쳐 조계종이 추진한 금강산 신계사 남북공동발굴은 그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조사였다. 이후 2004년 4월부터 7월까지 있었던 토지박물관과 북한 고고학연구소의 개성공업지구 조성을 위한 공동조사는 지표, 시굴, 발굴조사 등 일련의 과정이 실시되어 개발사업 시행 전 문화유적 조사의 필요성이 적용된 첫 사례가 되었다. 이 밖에도 평양일대에서 2005년 7월에 행해진 고구려유적에 대한 현장조사, 2006년 안학궁 남북공동조사는 고구려연구재단이 북한의 김일성종합대학 등과 공동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평양일대에 대한 조사사업이었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2006년 남북역사학자협의회 주관으로 국립문화재연구소와 문화보존지도국 등의 북한 기관이 공동으로 행한 평양일대 고구려 고분에 대한 보존현황 조사는 유적에 대한 보존, 관리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방향의 공동 사업이었다는데 의미가 있다.



01 개성 고려궁성 대형계단지 전경  
02 만월대 안내판과 세계유산 등재안내문



03

### 최근 발견된 대형 계단지, 학계의 비상한 관심 불러

개성 만월대에 대한 공동발굴조사는 위와 같은 일련의 화해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신계사 조사와 같이 특수 목적을 지닌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조사가 일회성에 그치거나 소규모 유적에 대한 단기간의 조사였다. 그러나 만월대 공동조사는 단일유적으로 최대급에 속하며 연차적인 조사 계획하에 장기간에 걸쳐 조사가 이루어진다는 점이 특징이다. 사업의 주체는 남쪽에서는 ‘남북역사학자협의회’라는 민간단체가, 북쪽에서는 ‘민족화해협의회’(약칭 민화협)가 맡고 있었다. 이는 남북 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정부기관이나 국가조직이 직접 대화 창구로 나서기가 쉽지 않다는 현실을 반영



03 개성 고려궁성 남북공동발굴조사 현장작업  
04 개성 고려궁성 출토 청자반구병  
05 개성 고려궁성 출토 범자문 압수막새

하고 있다. 실질적인 현장조사는 남쪽에서는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가, 북쪽에서는 조선중앙력사박물관이 주축이 되어 공동발굴조사단을 구성하여 2014년 현재까지 6차에 걸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양측의 국가 중심 문화유산 기관이 중심이 되어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그 맥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만월대 조사가 지니는 상징성은 매우 크다. 먼저 고려의 정궁(正宮) 유적이라고 하는 상징성에서 찾을 수 있다. 남과 북의 시각차가 있기는 하지만, 고려가 통일국가라는 점은 변하지 않는 역사적 사실이다. 북한에서는 신라의 삼국통일을 외세의 힘을 빌린 반역사적 행위로 규정하여 그 역사적 의의를 낮게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통일신라라는 용어를 1970년대 후반 이후 찾아볼 수 없다. ‘국토의 남부 통합’이라는 식으로 그 역사적 의미를 깎아내리거나 ‘후기 신라와 발해’라는 시대 구분상의 시기 설정으로 역사상 통일왕조가 아님을 공식화하고 있다. 이런 논리에 근거하여 고려를 우리나라 역사상의 진정한 첫 통일국가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다. 그 통일왕국 고려의 궁궐을 남과 북이 공동으로 발굴한다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의미가 클 수밖에 없다. 통일을 염원하는 남과 북의 열망이 통일국가 고려의 정궁터를 공동으로 발굴함으로써 그 역사적 의의가 배가될 수 있을 것이라는 데는 그 어느 쪽에서도 크게 이의가 없을 것 같다. 최근 몇 년 사이 남북 간의 일련의 경색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 3년간 중단되었던 조사가 다른 대북 사업에 앞서 2014년 7월 다시 재개할 수 있었던 데에는 그만큼 이 공동조사가 지니는 역사적 의미가 남다르다는 것을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6차에 걸친 만월대 남북공동조사는 그 상징적 의미에서뿐만 아니라 학술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우리들이 역사책 등에서 보던 만월대의 웅장한 계단은 그 발굴조사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조선의 정궁인 경복궁이 대지를 평탄화

하여 평지 궁궐을 조성한 것에 비해 만월대는 구릉상의 경사면을 그대로 이용하여 궁궐을 만들었다는데 그 특징이 있다. 따라서 만월대에서 가장 특징적으로 드러나는 유구는 축대이다. 경사면을 몇 개의 단으로 나누어 각각의 대지에 여러 전각들을 배치하였다. 크게는 ‘중심건축군’이라 불리우는 회경전 등이 있는 권역과 그 서편의 약간 저지대에 자리한 ‘서부건축군’(북편의 서북건축군을 별도로 구분하기도 함)으로 구분된다. 중심 건축군과 서북건축군은 이미 70년대와 그 이후 북한에서 어느 정도 조사가 되어 단편적이거나 우리에게도 소개가 된 바 있다. 그러나 서부건축군은 잘 알려진 바가 없었다. 개성 고려박물관(옛 성균관)에 전시된 만월대의 모형물에도 중심건물군이 있을 뿐, 서부건축군은 보이지 않는다. 남북이 공동발굴조사를 행하는 곳도 바로 이곳 서부건축군이며, 조사대상 면적이 약 33,000㎡에 달한다. 6차에 걸친 조사에서 40여 동의 건물지와 약 1만 점에 이르는 유물들이 출토되었다. 송나라 서경(徐兢)이 고려에 사신으로 왔다 간 후 지은 『선화봉사고려도경』(宣和奉使高麗圖經)에 묘사된 궁궐의 터가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고려사』(高麗史)에 보이는 5대 왕의 어진이 보관되었다던 경령전(景靈殿) 터로 추정되는 유구가 확인되기도 하였다. 특히 2014년 발굴에서는 중심건축군과 서부건축군을 연결하는 폭이 약 13.5m, 길이 약 11m에 달하는 대형 계단지가 확인되어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그동안 베일에 싸여 있던 양구역 간의 이동 동선이 밝혀진 것이다. 이는 앞으로 만월대 축조와 구조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계획적으로 마련된 돌을 쌓아 만든 암거(暗渠)형의 배수시설 또한 주목되는 성과이다.

### 장기적 남북공동연구,

#### 남북관계개선과 역사적 성과 동시에 이뤄낼 것

지금까지의 발굴에서 약 10,000점에 이르는 유물이 출토되었다. 궁궐터라는 건물이 있던 유적의 특성상

절대다수는 기와(편)들이 차지하고 있다. 「판적」(板積), 「월개」(月蓋), 「덕수」(德水) 등의 생산처가 명시된 명문 기와 등이 출토되어 『고려사』(高麗史) 등의 문헌 기록과도 일치된다. 또한 청자의 나라, 고려의 궁궐답게 다양한 종류의 청자(靑)들이 발견되고 있다. 비록 수차례에 걸친 전란으로 폐허가 되었고, 이후의 인위적인 훼손(도굴, 경작, 석재 등의 반출 등)으로 화려한 유물은 많지 않다. 그럼에도 당대 최고 물산이 총집합하였을 궁궐답게 국내산뿐 아니라 중국제 청자들도 다양하다. 높이 65cm에 달하는 원통형 청자는 그 예를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유물로 이목을 끌고 있다. 앞으로의 연구로 그 제작기법과 용도 등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2007년 이후 올해까지 벌써 6차례에 걸쳐 남과 북의 연구자들이 얼굴을 맞대고 현장에서 동고동락을 하며, 길게는 한번 조사에 60일 가까이 공동작업을 진행하였다. 처음 만났을 때의 어색함과 단절이 가져온 양측의 견해나 입장 차이도 이제는 많이 해소되는 듯하다.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서로의 연구 성과를 참고하고 공유할 수 있었고 조사기법이나 유구 해석 등에 대한 현장 토론이 예전보다 훨씬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처음의 서먹함은 몇 마디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선입견이 스스로 녹아내리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다. 이는 단지 며칠 동안의 교류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의 접촉과 서로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었을 때에 가능한 것이다. 갑자기 생겨나는 돌발 상황이 간혹 이런 긍정적인 분위기를 해치는 경우도 있지만, 이미 쌓여진 상호 간의 이해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동조사와 관계 개선에 커다란 밑거름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

**지병목**은 프랑스 Paris VII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장,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는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고고연구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의 남측 조사단장을 맡고 있다.



# 북한인권 문제, 민관 역할분담으로 남북관계 개선과 병행해야

서보혁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HK연구교수

2003년부터 매년 봄에는 제네바, 가을에는 뉴욕에서 유엔의 북한인권 결의문이 채택되고 있다. 관계 정상화 직후 2001~2년 북한과 유럽연합 사이의 정치대화, 인권대화가 있었지만, 2003년부터 유럽연합 주도로 북한인권 결의안이 상정·채택되면서 북한은 그것을 정치적 공세라고 비판하고 대화의 문을 닫아 버렸다. 199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유엔에서의 북한인권문제는 인권소위원회, 인권위원회, 인권이사회, 총회에서 결의문 채택이 이어지고 있다. 그 사이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임명,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활동, 북한 지도자의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및 그를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인권 논의 제안 등이 있었다. 이런 일련의 유엔 북한인권정책에서 우리 정부는 포용정책 시기에 남북관계와 비핵화 문제 등을 중시해 탄력적인 입장을 취했으나, 이명박 정부 이후에는 북한인권문제를 다른 대북정책 사안과 분리해 일관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지난 9월 박근혜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COI 보고서와 북한인권사무소의 한국 설치 지지를 언급한 것은 후자의 입장을 뚜렷하게 나타낸 것이다.

박 대통령의 연설 직후 북한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등에서 격렬한 반응을 나타냈다. 냉전 시기와 마찬가지로 남북 간에는 지금도 인권문제가 체제경쟁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가운데 남북이 유엔에서 보인 고무적인 현상도 있다. 물론 별도의 의사 표명이었지만 남북이 인권대화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북한 리수용 외무상의 “우리를 적대시하지 않는 나라들과 인권대화와 협력을 해나갈 용의가 있다”는 발언은 인권대화의 조건을 언급한 것이다. 그에 비해 남한의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북한이 남북자 문제, 국군포로 및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해야 한다”고 인권대화의 의제를 언급했다.

## 북 인권문제는 복합적 성격 띠고 있어

남북 인권대화는 전쟁 중에도 대화가 있었다는 박 대통령의 발언과도 상통한다. 국제무대에서 이뤄진 남북 고위당국자들의 인권대화 언급은 북한인권문제가 보다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기회를 마련해줄 수도 있다. 그럼 어떤 조건에서 남북대화에서도 인권문제가 다뤄질 수 있는가? 그것이 인권문제를 둘러싼 남북 간 대립을 지양하고 북한의 호응을 이끌어내려면 어떤 방법이 좋은가? 당면한 숙제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여전히 북한인권 문제를 둘러싸고 편향적인 이해와 정략적인 접근을 하면서 또 하나의 사회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때로는 갈등을 진정시키고 다양한 여론을 수렴해야 할 정부가 그런 임무를 방기하고 논란을 증폭시키는 경우가 없지 않다. 최근 일부 극단적인 민간단체의 대북 비방전단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북한인권 설명회'를 하고 있는 북한 대표부의 모습

살포에 대한 정부의 우유부단하고 무책임한 태도가 그런 예이다. 전단 살포 문제는 단지 남북대화 복원을 위한 분위기 조성 차원의 문제를 넘어 우리 국민의 안전과 한반도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의 평화적 생존권 문제이다.

북한인권문제는 크게 3가지 측면을 가진 복합적 성격을 띠고 있다. 국내 논란은 대부분 그 중 특정 측면을 강조하는 선별적 태도에 기인한다. 북한인권문제는 북한체제, 분단체제, 정전체제와 관련돼 있다. 북한인권을 둘러싼 많은 논쟁은 북한체제에 초점을 두되 정치체제와 관련지어 시민·정치적 권리를 강조하거나, 경제·사회적 측면을 연결 지어 경제·사회적 권리를 강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모두 선택주의(selectivism)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분단체제 측면은 남북한 인도적 문제를 비롯해 분단이 겨레의 자결권과 인간다운 삶을 제약하는 직접적 원인이다. 이는 북한인권개선이 남북화해와 통일 문제에 깊은 상관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북한 정치체제에 주목해 민주화를 북한인권개선의 첩경으로 삼는 측과 분단체제에 주목해 화해협력을 북한인권개선의 주된 방법으로 삼은 쪽의 대립도 발견할 수 있는데, 대립하는 이 두 입장이 북한인권문제가 정전체제와 관련이 있음을 소홀히 하는 데서는 같다. 국제인권진영이 계속 주목해왔지만 제도화가 미흡한 평화권(right to peace)이 그것인데, 전쟁을 겪고 전쟁의 위험에 처해 있는 한반도만큼 평화권이 절실한 곳은 없을 것이다. 북한인권에만 관심 두는 사람들은 한반도 평화 정착을 북한인권에 대한 무관심으로 오해하는데, 사실 그것은 북한인권에 대한 총체적 인식

의 부족함을 드러내 주는 것이다. 북한인권문제를 거론할 때 북한의 군사주의 노선과 문화를 지적하면서 남한의 압도적인 군사비, 한국과 미국의 대북 합동군사연습을 거론하지 않는 것은 위선에 가깝다.

## 인권침해 감시·비판과 함께 개선 방법도 전달해야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세 측면 중 ▶북한체제 요소는 북한체제의 변화 ▶분단체제는 남북 협력 ▶정전체제는 남북과 관련 국가들의 협력이 각각 요청된다. 인권은 보편적이면서 불가분하고 상호의존적이고 상호연관 되어 있고, 평화, 개발, 법치 등과 상호보완적인 관계이다. 구체적인 사례로서 북한인권문제도 마찬가지다. 북한인권문제는 북한 지역 내 문제, 북한정부의 책임, 북한정권 압박만으로 접근할 단순한 성질이 아니다.

이상 북한인권문제가 갖는 세 측면을 함께 고려하면 실질적 개선에 알맞은 접근 원칙과 정책을 새롭게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접근 원칙으로는 북한의 인권 역량 제고, 남북협력과 국제협력의 병행, 평화, 개발을 아우르는 포괄 접근 등을 꼽을 수 있다. 주요 전략으로는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을 통해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을 고려해 인적 접촉, 인도적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면서 인권대화의 폭을 확대해나가야 할 것이다. 민간은 단체별 관심사에 따라 북한과 교류협력에 나서며 인권개선 방법을 전달하는 한편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감시와 비판을 병행해나가야 할 것이다. 일방적이고 자기 만족적이거나 인권감수성이 없는 행동으로는 북한을 변화시키기는커녕 인권 상황만 악화시킬 뿐이다. 긴 대결 끝에 대화를 준비하고 인권대화까지 거론되는 시점에서 북한인권문제에 있어서도 포괄적 인식과 입체적 접근을 할 때이다. 🌀

서보혁은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고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 이화여대 평화학연구소 연구교수를 거쳐 현재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HK연구교수로 근무하고 있다.

# 한민족의 미래 위한 '재외한인 비전 하우스' 세우자

홍면기 동북아역사재단 정책기획실장



01 일본 해외이주자료관(요코하마)  
02 중국 화교박물관(시아먼)  
03 한국이민사박물관(인천)

세계화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면서 재외한인과의 접촉이 일상화되고 있고, 결혼, 노동, 유학 등을 위해 국내에 들어와 있는 재외교민도 이미 수십만에 달하고 있다. 그동안 관련 학계의 연구 성과가 축적되고 재외동포 정책도 진화를 거듭해 왔다. 그러나 이들을 전략적으로 네트워킹하며, 역사발전의 동반자로 자리매김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700만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재외한인은 보이지 않는 '국력의 팔'로서 한국의 외교적 잠재력을 확충해 나갈 귀중한 자원이다. 한국과 거주국, 지역 간 중개·조정·소통자로서 우리 국력의 외연을 넓힐 수 있는 유력한 외교자원이 되고 있는 것이다.

## 재외교민, 지역평화 구축하는 공공 외교 자원

국제정치의 생태가 근본적으로 변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얼마나 튼실한 '연결성(connectedness)'을 확보하느냐가 새로운 국력의 척도로 중시되고 있다. 분단과 지정학적 조건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새로운 국력 요소를 발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전략적인 공간을 얻게 된 셈이다. 무엇보다 분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통일준비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리고 우리 사회의 다문화적 가치를 증진시키는 데에도 재외 한인사회과의 전략적인 연계와 활용은 매우 중요한 정책적 과제가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재외한인에 대한 문제의식과 정책적 뒷받침은 아직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필자는 기본적으로 역사를 기억하는 방법, 특히 역사 비전의 부재에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생

각한다. 재외한인 네트워크가 아직 정돈된 철학적 입론점과 전략적 일관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한·중·일 3국의 대표적인 재외교민 박물관(한국 인천의 한국 이민사 박물관, 중국 시아먼의 화교 박물관, 일본 요코하마의 해외이주 자료관)을 살펴보면 이런 한계를 극명히 관찰할 수 있다. 이러한 재외교민 박물관은 미래 지향적이라기보다는 자국 중심의 '일방성', 과거 지향성 등의 한계를 공통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세계가 그물망처럼 복잡하게 연결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아시아 각국의 재외교민들은 지역 평화를 구축해 가는 공동의 공공 외교 자원이다. 그러나 '자기', '과거'에 갇힌 재외교민에 대한 폐쇄적 인식을 탈피하지 못하면 이들이 새로운 역사를 설계하고 이끌어가는 진취적 역할을 다할 수는 없을 것이다. 여기서 특히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의 재외한인이 독특하고, 유일

하게 이런 역할을 감당할 역사적·인구학적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한류의 새로운 개념 전파하는 기지역할도

위의 문제의식을 구체화하기 위해 재외 한인사회의 기반과 강점, 가치와 미션, 비전 등을 체계적으로 구성해 볼 필요가 있다. 아래 그림은 이런 개념 구도를 통합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재외 한인사회의 네트워크는 우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반과 강점을 기반으로 평화와 협력·호혜의 가치를 추구한다. 이런 가치 구조 속에 재외한인 네트워크는 결국 거주국과 모국 간의 공동번영과 평화를 성취한다는 사명을 내재화하고, 공동의 공공외교 자원을 창출하여 미래 세계 평화의 주역으로 활약한다는 비전을 지향할 수 있을 것이다.

## 재외한인 네트워크 비전 하우스(VISION HOUSE)



필자는 이런 개념적 기초위에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개념의 박물관, 즉 '재외한인 비전 하우스'를 세울 것을 제안한다. 인천의 한국이민사박물관을 활용할 수도 있지만 국민 인식전환을 위해서는 서울의 상징성 있는 거리에 새로이 건축하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비전 하우스는 우선 재외한인의 역사와 현실을 전면적으로 충실히 담아내야 한다. 나아가 이 비전 하우스를 한국인과 재외한인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는, '치유'와 '복권'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 분단의 경계인으로서 살아온 재외한인들이 자신의 역할을 주체적으로 자각할 수 있는 역사성을 충분히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다. 비전 하우스를 미래 지향성, 개방적 진취성을 고양하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이 비전 하우스를 모국의 국민과 재외한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세계의 한인들을 네트워킹하는 중추이며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 영역과 방법을 과감하게 발굴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류의 새로운 개념을 생성하고 전파하는 기지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박물관은 단순한 과거를 박제해 두는 공간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개념의 재외한인 박물관, 즉 재외한인 비전 하우스는 과거를 정확히 기억하고 기록하면서도 '미래를 위한 기억'을 충전해 둘 수 있는 여백을 가져야 한다. 재외한인을 미래의 역사과정에 가까이 참여시키며 통일과 번영의 미래 자원으로 기억하자는 것이다. 국민들이 이런 긍정과 기약의 미학을 공유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민족의 대통합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새로운 국력의 원천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

홍면기는 고려대 대학원 정외과 박사과정생 수료했고, 중국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통일부에서 근무(1989-2007)하다 동북아역사재단으로 옮겨 연구위원, 정책기획실장으로 일하고 있다.

# “통일의 기폭제는 남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어”

라이언 러셀 국제변호사

● 외국인으로서 한국에 사는 것이 어떻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상대방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간단히 할 때가 있죠. “아주 편하고 좋습니다!”, “사계절이 있고, 맛있고 건강한 음식들이 많아서 좋습니다!”, “한국 사람은 정도 많고 자상하기 때문에 함께 살고 일하는 것이 나쁠 이유가 없지요!”라고 대답할 때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솔직한 대답은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보다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한국에 살면서 편한 것도 많지만 어디서나 마찬가지로 불편한 점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계절을 찬양하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 실은 우리 세상에 사계절은 정상 아닙니까? 게다가 요새 대한민국에서도 지구온난화 때문인지 봄과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을은 너무나 짧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식은요? 한국 음식을 너무 잘 먹어서 살이 많이 찼 것이 사실이지만, 입맛에 안 맞는 음식도 아직 많습니다.(홍어를 좋아서 드시는 분 정말 계십니까?) 무엇보다도 한국에 처음 왔을 때, 2년 동안 전라도에 살아서 그 이후 서울과 경상남도에서는 상대적으로 음식이 입맛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의 가장 친한 친구들 중에 한국 사람도 여러 명이 있지만 한국인들과 일하면서 나쁜 점이 하나도 없다는 말은 좀 지나칩니다. 저도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저보다 한국에 사는 것과 한국 자체를 더 많이 좋아하는 외국인을 찾기는 아주 어려울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국의 복잡하면서도 모순될 수 있는 ‘분위기’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알면 알수록 새로운 나라입니다. 저는 정말 한국과 한국 사람을 사랑합니다. 문제나 단점이 없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약점 속에서도 독특한 매력을 보여주고, 그 약점을 놀라운 속도로

극복하기 위해 온 나라의 힘을 합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어쩌면 불완전함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한국과 한국 사람의 모습이 인류의 긍정적인 상징이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므로 세계에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현안 중 하나인 한반도의 평화로운 통일은 여러분한테 맡겨져 있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통일 역시도 온 나라의 힘을 합치면 전혀 이루지 못할 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 입장에서 여러분에게 통일에 대한 제안을 하는 것이 좀 우습게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13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 한 번도 와 본 적도 없었고, 북한은 지난달에 처음으로 갔습니다. 저는 아직 나이도 어리고, 경험이 그렇게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보다 경험과 지식이 많으신 분들이 통일에 대해서 연구하고, 좋은 제안을 많이 발표하고 계신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저는 통일정책에 관한 말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정책을 떠나서 다른 면에서 하고 싶은 말은 있습니다. 북에 살고 있는 여러분의 친척들에게 마음을 여십시오. 제가 한 말을 왜곡하여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북한의 어떤 정책이나 지도자를 찬양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 말은 완전 다른 차원에서 하는 말입니다. 정치는 정치지만 궁극적으로 사람은 사람입니다.

저는 일 외에도 북한 시민과 제3국의 민간 교류를 지원하는 조선익스체인지라는 비영리법인과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원봉사활동을 하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남한뿐만 아니라 북한 역시도 복잡하고도 모순된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외국 매체에서 흔히 말하고 있는 것보다 더 복잡한 곳입니다. 외국인 중에 한국에서 좀 살았다고, 그래서 한국을 잘 안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가끔 보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한국처럼 깊고 복잡한 나라를 잘 아는

것은 거의 불가능 할지도 모릅니다(심지어 한국 사람에게도). 여러분들이 북한을 바라볼 때에도 그런 비슷한 실수를 할 위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민족이라서 북한 사람들을 속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뉴스를 많이 봤다고, 책을 좀 읽었다고 북한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마음 역시도 착각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합니다. 위에 언급한 “복잡하고 모순될 수도 있는 분위기”가 물론 한국에만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수백 년 넘게 같은 나라로 지냈기 때문에 북한과 한국이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 중에 참 많은 부분이 비슷하다고 말하는 것이 너무 충격적이거나 논쟁적으로 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통일이 되면 100% “대박”은 아니더라도 이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고, 말로 표현하기도 어려운 여러 가지 기회들이 분명히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극복하기 어렵고 새로운 문제점이 생길 거라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서로를 속단하지 않고, 경시하지 않으며 협력하면서 최선을 다하면 남북이 극복하지 못할 일은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물론 외국인과 외국 기업, 재단, 금융기관 등의 뒷받침도 필요할 것입니다. 국제질서가 한반도 분열에 기여했으니, 한반도의 재결합에도 반드시 기여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통일의 기폭제는 남북에 살고 있는 사람들 마음 속에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의 마음에 통일이 없이는 성공적이고 평화로운 한반도의 통일이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

라이언 러셀은 국제변호사(미국 뉴욕주 / 콜롬비아 특별구 자책)로 뉴욕, 도쿄와 서울에서 인수 금융과 기업법을 비롯하여 다양한 법 분야에서 업무해 왔다. Columbia Law School에서 법대 박사, Columbia School of International and Public Affairs에서 한국학, Brigham Young University에서 정치학과 한국어를 공부했다. 2001년부터 한국 - 미국을 오가기 시작했고, 2012년부터 북한에서 활동하는 싱가포르 비영리 단체인 조선익스체인지(<http://www.chosonexchange.org/>)에 전략과 법률 자문을 하고 있다.

# 젊음, 그 힘을 믿고 통일 만들기를 실천하자

장유을 이화여자대학교 4학년



나는 취업준비생이다. 사회에 발 디딜 틈 하나 마련하기 위해 한 학기에 원서를 50개씩 넣고, 용돈을 쪼개 자격증 교재와 싸구려 면접 정장을 사고, 후배들이 부럽고 부모님께는 죄송한 그런 한국의 수많은 취업준비생 중 하나이다. 어느 때처럼 출근 시간대에 쥐포처럼 몸을 납작하게 만든 채 버스에 올라탄 날이었다. 친구에게 전화가 왔다. 친구는 서류면접에 떨어진 이야기, 과외를 받고 있는 남자에게 말을 안 듣는다는 이야기, 수업 이야기 등을 늘어놓았다. 그리고 그런 녀석들은 미묘한 짜증과 한숨으로 마무리됐다. “야, 800명 뽑는 회사에 12만 명이 지원하는 세상이야. 내 앞가림도 못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누굴 신경 써 주고 사회에 관심을 가져?” 이해가 가면서도 씁쓸했다. 우린 언제부터 주변을 돌아보는 것도 눈치 보이고 사치처럼 느껴지게 된 걸까. 내 마음이 조금하다는 이유로 내 주위 사람

들에게 너무 소홀했던 것은 아닌가 싶어 오랜만에 휴대폰 주소록을 하나하나 읽어보았다. 그때 유독 정겨운 이름이 있었다. ‘00이모’ 나는 탈북자 이모를 가지고 있다. 10여 년 전의 일이다. 우리 가족은 새터민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행사에 참가했고, 그곳에서 이모를 만났다. 비록 피를 나눈 사이는 아니지만, 그녀는 남한에 정착한 뒤 내 어머니와 의자매를 맺었고 우리 가족의 일부가 되었다. 어릴 때 이모에게서 들은 북한 이야기는 머나먼 세상 이야기 같았다. 예쁜 꽃은 구체적인 이름을 지어주지 않고 무조건 ‘김정일화’, ‘김일성

화’라고 부르다던 이모의 말이 아직도 생생하다. 이모의 탈북 이야기는 눈물 없이 들을 수 없을 정도로 파란만장하다. 갖은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은 아무지게 공부를 하고 있는 이모를 통해 나는 처음 ‘새터민’을 접했다.

## 무관심과 무기력 속의 흔들리는 청춘들

탈북을 하고 나서도 새터민의 삶은 녹록지 않다. 대한민국에서 박사 학위를 따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미담들이 들리는 와중에도 부적응으로 고생하는 새터민들의 이야기가 줄을 잇는다. 가족을 남기고,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은 것 자체로도 이미 한 편의 다큐멘터리인데 그들이 꿈꾸던 ‘해피 엔딩’이 없는 것이다. 왜일까 생각해봤다. 이모를 통해서 얻은 대답은, 아직은 새터민이나 통일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환영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특히, 사회 구조적으로 제도와 기반 시설이 있해도 정작 그 사회 구성원들의 마음이 열려있지 않으면 새터민은 사회에 적응하기 어렵다. 나는 나 또한 점점 그런 무관심한 일원이 되어가는 것 같아 부끄러웠다. 초등학교 시절 우리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다 함께 따라 불렀다. 중학생 때는 통일 관련 포스터와 표어를 만드는 것이 연례행사였고, 정선 아리랑과 함께 평안도, 함경도 아리랑도 배우곤 했다. 고등학교 때도 남북 관계에 대한 웅변대회나 백일장이 있었다. 20대 이상이라면 누구나 이산가족상봉이 TV에 중계되던 모습을 기억할 것이다. 우리는 ‘통일’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던 시절에도 통일에 관한 노래를 흥얼거렸지만, 어느덧 시

간이 흘러가면서 점차 이러한 것들을 뒷전에 두게 되었다. 이 삼십 대의 통일인식이 약하기 때문에, 이들이 권력과 영향력을 가지게 될 시기에는 이러한 무관심이 점점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우리 세대가 남북관계에 대한 관심이 적어진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우리는 자신의 앞길이 구만리라는 생각에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고 있다. 둘째, 주변을 돌아본다고 하더라도 ‘과연 내가 힘이 될까?’라는 의문에 결국은 주저하기 마련이다. 나를 포함한 많은 젊은이가 취업 걱정, 대출 걱정, 전세값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낸다. 신문을 읽으며 사회적 이슈를 걱정하더라도 뒤돌아서면 어차피 세상은 이런 거라는 말과 함께 술잔을 기울이거나 자기 일을 챙기기에 바쁘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한다. 젊은이가 움직여야 나라가 건강하다. 우리는 좀 더 자신의 영향력을 믿고 움직여야 한다. 우리는 절대 영향력이 없지 않다. 오히려 손끝으로 표현한 작은 관심이 모여 커다란 신드롬을 만들어낸다.

## 2030, 변화의 힘은 우리에게 있다

나는 친구들에게 SNS를 활용하라고 권하고 싶다. 올여름을 뜨겁게 달구었던 ‘아이스 버킷 챌린지’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퍼지며 루게릭병 환자를 위한 거액의 기부금을 모았다. 뒤를 이어 개발도상국 어린이의 손 씻기 교육을 후원하는 ‘Give Life a Hand’ 캠페인, 시리아 내전으로 인한 난민 어린이를 후원하는 ‘Wake up Call’ 캠페인 등이 SNS에서 퍼지고 있다. 통일에 관한 캠페인이 바통을 이어가는 것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남한 말에 해당하는 북한 말을 세 개 올리고 새터민들을 후원하는 캠페인, 통일이 된다면 하고 싶은 것을 써보며 남북관계에 대한 젊은이들의 관심을 독려하는 캠페인 등 소재는 무궁무진하다. 늦었다고 생각한 때가 진짜 늦은 거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반은 틀린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늦었다고 ‘생각’만 한 때는 늦은 거지만, 늦었다는 것을 깨닫고 ‘행동’하는 때는 가장 이르다. 우리 세대가 조금 더 의식을 갖고 실천하여 내 이모가, 나아가 우리 다음 세대가 더욱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

# 두만강 유역 개발에 따른 환경문제, 우리가 기술적 지원을 해야

김지영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두만강 하구 삼각주 지역을 중심으로 북한, 러시아, 중국의 개발협력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중리와 국경을 맞댄 나선특별시 나진특별경제지구의 나진항은 부동항으로 중국에게는 동측으로의 해양교역 창구 역할을 하고, 러시아로서는 연해주 다섯 개 항의 해상운송 적체를 해결할 수 있다. 북한은 이곳에 외국의 투자를 유치하여 다양한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북한은 중국과 나선시 특별경제지구에서의 경제협력을 하기로 하고 나진항의 부두를 50년간 장기 사용하도록 하였다.

중국은 이 지역과 연계한 자국 내 인접지역에서의 산업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훈춘 - 나진 간 93km의 고속도로를 건설하여 2011년 완공하였고 나진에 오피스텔 단지와 호텔들을 건설하는 등 경제협력을 활성화하고 있다. 러시아는 북한과 철도 연결, 가스관 연결, 송전선로 연결(러시아에서 전기를 생산해 북한에 공급하는 계획)을 한꺼번에 해결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연해주 극동항들의 보완적인 역할에서만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러시아에 나진항의 3호 부두 50년 사용권을 제공하면서 경제협력을 하고 러시아는 나진 - 하산 철도 구간을 개선하고 화물 운송에 활용 중이다. 2014년 러시아 전용부두에는 컨테이너 운반용 크레인 4대가 설치되었고 이를 지원할 전용발전시설도 들어섰다. 한국도 코레일, 포스코, 현대상선이 함께 협력하여 북한 - 러시아 간에 30 - 70의 지분으로 투자한 라손콘트란스의 러시아 측 지분 중 절반 정도를 인수하여 나선지역의 사업에 합류하려 하고 있다. 러시아 - 북한 - 남한이 대략 35 - 30 - 35의 비율로 나진개발 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 우수한 자연환경 갖춘 두만강 유역

북한, 중국, 러시아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두만강 삼각주 지역은 퇴적층이 잘 발달된 연안습지와 호수로 구성되어 있는 자연환경이 우수한 곳이다. 북한은 2003년부터 습지 - 철새보호구를 지정하여 이곳을 보호하고 있다. 나선철새보호구 중 만포, 서만포는 세계적으로 철새 서식에 유리한 습지조건에 매우 부합하여 IUCN(국제자연보전연맹)의 보호구로 지명된 곳이다. 이곳은 가창오리, 알락꼬리마도요, 재두루미, 갯두루미 등 특별보호조류와 흑고니, 붉은꼭두오리 등의 세계적 보호조류 등 200여 종의 조류가 관찰되는 곳이며 4~5만 마리의 사철새와 철새들의 여름 번식지이다.

북리 개발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이 있을까. 철도, 가스관, 송전선로 등의 선형 사업과 나선시 특별경제지구의 개발 등 북리개발사업, 북리, 북중 간의 국경을 넘는 도로, 철도, 교량 건설 및 자국 내 산업 확장이 국경을 접한 삼국의 환경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 지역은 이해 당사국 간 공통의 환경적 영향을 다뤄야 하는 월경성 환경영향평가(TEIA: Transboundary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가 필요한 곳이다. 또한, 개발로 인하여 두만강 하구의 철새보호구역에 미치는 영향은 국제적인 환경보호의 이슈가 될 수 있다. 나선특별시의 개발로 인한 도시환경, 대기문제, 물, 폐기물



북한, 중국, 러시아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두만강 하구 삼각주 지역과 나진항. 동그란 지역이 나선철새보호구이다. 두만강 하구 삼각주는 서쪽으로는 북한지역, 동쪽으로는 러시아 지역에 걸쳐 분포하고 있다. 이 지역에 습지, 호수들이 잘 발달된 것을 볼 수 있다. 그림의 아래 나진구역이라고 표시된 남쪽으로 열려있는 만이 나진항이다.

등 매체별 환경영향이 예상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환경관리정책과 환경기초시설의 건설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오염심화지역의 환경관리와 환경기초시설에의 투자 필요성 등을 검토하고 예방 또는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전문가의 협력이 필요하다. 북한과 조금이라도 접촉해본 기관 또는 인사들은 북한의 환경에 대한 태도를 '절대 관심이 없다'고 말한다. 북한과 다양하게 접촉하며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독일의 한스 자이텔 재단은 북한과의 환경적인 협력이나 환경 관련 사업은 그 사업이나 환경문제 그 자체만으로는 협력을 얻어낼 수 없다고 전한다. 한편, 북한은 나선시 특별경제지구에 '크라운'이라는 관광회사를 세우고 세계적인 나무심기 운동을 본떠서 '북한 나무심기 관광' 패키지를 개발하여 외국인 관광을 유치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것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운동의 하나로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나무심기(tree - planting) 활동을 관광에 응용한 것으로 북한이 환경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외형적으로 표방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난해 9월 북한 나진에서 러시아 하산 - 나진 간 철도 개통식이 열린 가운데, 북한 병사들 뒤로 나진항 부두 시설이 보인다.

#### 국경 넘나드는 환경문제, 다자간 협력체계 필요

러시아는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잘 갖추어진 나라이지만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만 활용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국가 간 국경을 넘어서는 환경적 문제를 다루는 에스푸(ESPOO) 협약에도 가입한 지 오래되었으나 정식으로 국가의 승인절차를 밟지는 않고 있다. 발트 해를 통과하여 유럽으로 가스를 공급하는 가스관 공사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러시아 자국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어서 개발로 인해 환경에 영향을 주는 국가와 영향을 받는 국가들 간에 러시아도 동참하여 월경성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북러 개발의 경우 시베리아 지역에서 채굴된 석탄이 하산 국경을 거쳐 북한의 나진항까지 운송되는 과정에서 석탄의 분진들이 지속적으로 주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미세분진들의 영향은 그 규모와 범위가 광역적일 것이다. 몽골 남고비 지역의 대규모 노천채굴석탄을 중국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석탄 먼지들이 지속적으로 발생 비산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와 유사한 영향이 이곳에서도 예상된다. 또한 석탄의 하역과정에서 집중적이며 장기적으로 나진항과 주변지역으로 미세석탄분진의 비산 및 축적이 일어나 환경과 건강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그렇지만 러시아 내에서도 철도를 통해 자국 내 도시들로 수없이 많은 석탄 열차들이 운송되고 있어 이로 인한 환경영향에 대해 '그게 그렇게 심각한 환경영향인가'라고 되물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영향의 규모, 범위, 지속되는 기간 등이 심각한 수준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규명되어야 하며 이해 당사국들이 그 결과에 동의해야 할 사항이다. 러시아 연해주에서 나진지역을 거쳐 북한 동부를 통과해 남한으로 공급되는 가스관 계획 역시 환경적 문제가 심각한가에 대해서 러시아 측은 크게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또한 인접국의 이익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월경성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그 영향을 규명하는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

#### 남북, 상호 환경협력의 사례 만들어가야

국가 간 월경성 환경영향평가는 상호 공동이익이 있을 경우에는 진행이 순조로울 수 있으나 상호 이익에 반하는 경우 그 문제가 심각해진다. 한국은 북러 협력이 협조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재의 시점에서 기술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향후 월경성 환경영향평가의 틀을 다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북러 개발과 관련하여 남한은 북한에 기술협력 차원에서 접근하여 상호 협력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의 수행경험을 공유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의 시점에서 쉬운 프로젝트부터 협력하여 시행하게 되면 기술적 프로토콜의 공유 경험을 가지게 될 것이고 향후 국경지대 또는 국경을 통과하는 개발협력이 확대될 때 더욱 쉽게 월경성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이러한 전문가 그룹 간의 기술적인 상호 교류 경험은 DMZ생태평화공원과 같은 국경 가까이에서 시행되는 다른 종류의 사업에도 신뢰를 갖고 상호 전문가들이 환경영향평가의 준비작업을 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접촉과 협력이 가능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한국은 제3국을 통해 북한 전문가들을 접촉하고 직접적인 환경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협력의 시작, 지속화, 전문가 그룹의 지속적인 후원과 협력사업의 시행을 할 수 있다. 제3국에 협력기구를 설치하고 창구로 사용하는 방안은 북한과의 자유로운 접촉 및 지원을 위해 바람직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에 경제지원을 하는 경우, 원조 공여국이나 원조 공여기관들이 경제지원으로 인한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해당 국가와 지식공유, 전문가의 역량 강화를 선결조건으로 시행하며 개발계획을 병행 추진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들은 남북 간의 효율적인 사업의 시행을 위한 것이며 분야별 협력의 채널을 넓히고 신뢰를 쌓아가는 방법이 될 것이다. 이것은 상호 정치적인 결정이나 일정과는 독립적으로,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준비작업과정에서 시행되어야 할 일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지역의 북러 양측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 월경성 환경영향평가 등에 기술적 전문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한러, 북러 월경성 환경영향체계의 구축을 위한 상호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

**김지영**은 서울대학교에서 이학박사 학위를 받고, 원자력연구소에서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였다. 현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재직 중이다.



# 광복 70주년, ‘문화’로 먼저 통일을 만들어가자

강동완 동아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남북한 통일은 남한만이 아닌 북한이라는 분명한 상대가 있다. 그 상대는 다시 일반 북한 주민들과 정치적 결정권을 가진 당국자로 구분할 수 있다. 통일은 정치적 결정과 함께 실제 남북한 주민들이 ‘함께 잘 살기’ 위한 상황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독일 통일 25여 년이 지난 지금, 정치, 제도적 통일은 이루어졌지만 동서독 주민 간의 이른바 ‘마음의 통합’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만큼 독일통일의 과정은 정서적, 인식적 통합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지금까지의 남북관계는 정치, 경제적 분야에 집중되었다. 남북한 사람 간 마음의 관계 확장을 모색하고 증진하려는 노력은 상대적으로 도외시되었다. ‘나중 언젠가’ 통일이 되면 남한의 자본과 북한의 노동력이 결합되어 경제 부흥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하지만, ‘지금 여기에서’ 남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서로 만나 살아갈지에 대한 이야기는 부족하다.

지금까지의 통일담론이 정치, 경제 분야가 중심이 되었다면 이제는 문화적 통일담론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즉, ‘마음의 관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것들에 대한 존중의 관계로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무엘 헌팅턴이 ‘경제는 문화에 중

속되는 것’이라고 했듯, 문화적 관계가 정치, 경제적 관계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간과할 수 없다.

## 남북 주민간 신뢰형성이 중요

북한의 3대 세습과 핵, 미사일 위협, 경제난 지속 등의 현상은 북한체제뿐 아니라 북한사람에 대한 거리감과 적대감을 격화시켰다. 6·25전쟁 이후 남북한 군사적 대결 상황은 남북한 사람 심성에 ‘경직성, 의심, 배타성’ 등을 뿌리 내리는 배경이 되기도 했다. 이는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을 약화시켜 분단의 한국사회뿐 아니라 통일 이후의 사회경제적 비용문제로 불거질 수 있다. 따라서 ‘적대, 중요’의 심성을 극복하기 위한 철학적 사유와 실천이 적용되어야 한다. 문화적 접근을 통해 북한사람에 대한 일상과 마음을 이해하고, 통일의 필요성, 통일에 대한 개인의 역사적 책임 등을 공유하는 과정은 분단의 시·공간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이는 우리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통일 한반도의 새로운 소프트 파워로서 국격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국정운영 과제로 통일기반조성과 문화융성을 제시하였다. 통일부는 ‘실질적 통일준비’를 위한 네 가지 중점 추진과제로써 ‘북한이탈주민’, ‘통일교육’, ‘국민 합의’, ‘통일외교’ 등 네 개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실질적 통일준비는 기존의 정치, 경제적 차원의 통일이익이나 제도적 통합과 함께 “사람 간의 통합”이라는 문화와 정서적 접근을 통해 실제로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을 확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탈북민을 이른바 “먼저 온 미래”로 표현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적 차별이 여전히 존재한다. 북한이탈주민을 결혼 배우자나 사업 동업자로 아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얼마만큼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까. 한반도 통일은 남북한 주민들이 함께 만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며, 실질적 통일준비는 바로 남북한



지난 6월 27일 경기도 파주시 경의선 도라산역에서 열린 통일문화네트워크 출범식. 류길재 통일부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함께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북한을 대표하는 모란봉악단의 공연 모습. 남북 간 문화예술교류는 상호 이질성 극복을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

주민들의 상호 증오감과 적대감을 줄이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무엇보다 남북한 주민들이 상호 함께 살아가야 할 대상으로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서적 격차를 줄이기 위한 문화적 접근에 기반을 둔 상호이해 증진이 필요하다. 향후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통합과 문화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남한 주민들이 그동안 접해 보지 못한 새롭게 변화되는 북한의 사회상을 이해해야 한다.

#### 북한의 '한류 현상'

#### 남북한 주민들의 문화적 접점될 수도

최근 북한에서의 한류 현상은 남북한 주민들의 문화적 공감대 형성의 가능성을 잘 보여준다. 영화, 드라마, 예능프로그램, 가요 등 대중문화는 대중들의 전 삶을 포괄하고 있다. 정서와 가치관, 일상생활을 망라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직·간접적으로 정치, 경제상황 등을 표현하고 있기도 하다. '포괄성'을 특징으로 하는 종합예술로서의 대중문화가 북한 내부에 유통되고 있다는 것. 이는 반세기 이상 분단의 저편에 가려진 '아랫동네(남한)' 사람들의 모습을 '윗동네(북한)' 사람들이 속속들이 마주할 수 있

는 만남의 장이 마련되고 있다는 것은 아닐까. 북한 주민들의 남한 영상물 시청을 통한 남북한 사람 간의 '같은 추억' 만들기 과정은 남북한 사람 간 '공감대' 형성과 거리 좁히기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한다. 북한 지역에서 확산되고 있는 한류는 북한 주민들의 남한 문화 및 생활에 대한 간접경험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북한주민들의 의식 변화는 물론 나아가 향후 남북한 주민들의 동질성 확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외부정보와 문화의 유입을 통해 북한주민들이 정권의 실체에 대한 정보를 인식함으로써 사회변화를 추동할 수 있는 주체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문화적 접근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통일부가 추진하고 통일문화네트워크, 세계 북한학 학술대회 등 사회문화분야 활동은 의미가 크다. 세계북한학 대회는 전 세계 북한학 관련 학자들의 교류를 통해 학문적 성과를 제고할 뿐만 아니라 문화를 통해 상호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된다. 또한 미술, 영화, 공연 등 문화생활을 즐기며 통일을 생각하는 계기로 마련된 통일문화주간 행사도 의미가 있다. '영화를 통해 통일을 꽃피우다'는 주제로 분단을 소재로 한 한국 영화는 물론 <김동무는 하늘을 난다> <세 자매> 등의 북한 영화를 국내 개봉관에서 일반인들에게 무료로 상영하였다. 또한 민화협이 개최한 통일캠핑 역시 기존의 강의식 방식이 아닌 체험과 공연, 놀이를 통해 통일을 이야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우리 국민들은 지금까지 통일과 북한 하면 주로 무겁고 어두운 주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생활 속에서 쉽게 통일을 이야기하고 체험할 수 있는 여건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문화공연을 통해 통일을 생각하게 한 것은 의미가 크다.

한국은 글로벌 디지털 혁명을 주도하고 있을 만큼

IT 기술, 정보화에 있어 빠른 성장세를 보여 왔다. 이는 통일담론 확산에 있어 IT와 문화 콘텐츠와의 결합, 참여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중문화적 접근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ICT와 3D 영상, 시물레이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 고부가가치 산업의 새로운 콘텐츠와 통일, 북한 문제를 접목함으로써 신산업 분야를 개척하고 통일이 대박임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통일과 결합된 문화콘텐츠를 통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통일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북한과 통일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강의형식을 지양하고, 이른바 '재미'와 '흥미'를 유발하여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인지형' 방식이 필요하다. 문화예술 공연이라는 대중에게 친숙한 접근을 통해 세대별로 특화하고, 재미와 감동이라는 요소를 결합하여 통일논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해야 할 것이다. 통일대박 액션 플랜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역시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이다. 통일편익이 경제적 수치로 제시되는 수준으로는 국민들이 느끼는 통일편익은 구체화되지 못한다. 가령, 통일한국이 수십조 원의 경제적 편익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 수치가 국민 개개인의 삶에 체감되지 못한다면 허상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기존의 정치, 경제적 차원의 통일이익이나 제도만의 통합이 아닌 '사람 간의 통합'이라는 문화와 정서적 접근을 통해 실제로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을 확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질적 통일준비는 최근 변화된 북한 사회상의 재인식과 북한 주민에 대한 공감적 이해를 통해 남북한 주민들이 상호 문화적, 정서적 동질감을 형성하는 것이다.

#### 북 모란봉악단, 남 걸그룹 합동공연 가능

2015년은 광복 70년이라는 뜻깊은 해이자, 분단 70년이라는 비극의 해이기도 하다. 분단역사의 아픔을 종식하기 위해 남북한 모두 실천 가능한 분야부

우리 국민들은 지금까지 통일과 북한하면 주로 무겁고 어두운 주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생활 속에서 쉽게 통일을 이야기하고 체험할 수 있는 여건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문화공연을 통해 통일을 생각하게 한 것은 의미가 크다.



터 서로 접점을 마련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내년을 문화적 소통과 공감대를 통한 남북한 화해협력의 분기점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남북 간 사회문화 교류의 대표적 사례로 모란봉악단 합동공연도 고려해볼 만하다. 모란봉악단은 김정은의 아이 콘이라 할 만큼金正은은 시대를 대표하는 북한의 악단이다. 북한에서 가장 의미 있고 중요한 행사일에는 반드시 모란봉악단 공연이 있었다. 그런데 모란봉악단은 북한의 공연이라 믿기지 않을 만큼 화려한 조명과 무대, 그리고 현대식 전자악기와 여성단원들로 구성된 악단으로 평양판 걸그룹으로 불려진다. '오페라의 유령', '디즈니 주제곡' 등 세계명곡 등을 연주한다는 점에서 최소한 정치적 색채를 배제한 남북 합동공연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남한 걸그룹의 북한 방문이나 모란봉악단이 남한에 오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중국 등 제3국에서의 합동공연도 고려할 수 있다. 분단 70년이라는 민족의 아픔을 남북한 모두가 공감하여 대승적 차원에서 화해협력의 불씨가 지펴지기를 기대해 본다. 🌀

**강동완**은 성균관대학교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받고, 통일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였으며, 현재 동아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로 『한류, 북한을 흔들다(공저)』, 『한류, 통일의 바람(공저)』, 『모란봉악단, 김정은을 말한다』 등이 있다.

# 부산 그리고 평양의 국제영화제

전영선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HK연구교수

필자가 보는 영화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남북 관계를 다룬 영화이다. 직업이 직업인지라 남북관계나 통일문제를 다룬 영화는 ‘의무관람’하듯 빠짐없이 본다. 일 년에 통일문제나 남북관계를 다룬 영화가 얼마나 될까 싶지만 생각보다 많다. <신이 보낸 사람> <은밀하게 위대하게> <용의자> <붉은 가죽> <베를린> <동창생> <간첩> <코리아> <R2B: 리턴 투 베이스> <풍산개> <고지전> <겨울나비> <스파이 파파> <적과의 동침> 등.

어떤 영화는 북한 내부의 실상을 고발하기도 하고, 어떤 영화는 현실에서 이뤄보지 못한 작은 통일의 꿈을 스크린에서 꿈꾸어 보기도 한다. 그리고 또 어떤 영화는 북한이탈주민이나 이산가족의 아픔을 덤덤하게 그려내기도 한다.

이런 영화를 보는 이유는 순전히 직업 때문이다. 남북관계나 통일문제를 연구하는 것이 직업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영화를 보아야 한다. 시간이 없을 때에는 휴대폰이나 노트북으로 다운 받아서 보기도 하지만 웬만하면 극장을 찾는다. 연구와 관련된 영화인 만큼 진지하게 보아야 한다는 의무감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저 한 편의 영화를 만들려고 몇 개월 혹은 몇 년을 얼마나 고생했을까 싶은 생각이 든다.

## 1,000만 명이 보거나 통일영화거나

영화를 만든 감독은 몇 개월 혹은 몇 년을 고생해서 만들었을 것이다. 그것을 생각하면 경건해지기까지 한다. 논문 한 편, 책 한 권은 물론, 잡지의 한 귀퉁이에 오를 글을 쓰는 일도 쉽지 않다는 것을 뼈저리

게 느끼면서 누군지 모르지만 영화를 만든 감독에 대한 일종의 동지에 같은 것도 느낀다. 물론 영화를 보기 전까지 생각이다. 막상 영화가 시작되면 희미한 동료애는 사라지고 비평가의 시선으로 돌아간다. 남북관계를 다룬 영화 중에서는 흥행에 성공한 영화가 많지 않다. <쉬리>가 당시 한국 영화사상 최다관객을 동원하기도 하였지만 스크린에 걸린 지 며칠 만에 막을 내리는 경우가 더 많다. 영화를 보겠다고 혼자 극장을 찾았다가 관객도 몇 없는 객석에 앉아 보기도 하였다.

극장을 찾는 두 번째 이유는 그야말로 흥행 대박 영화를 보기 위해서이다. 어찌다 보니 대한민국 흥행을 가늠하는 기준이 되었다. 이른바 천만 관객은 대한민국의 40~50대 남자들이 영화관을 찾아야 한다는데, 그 나이가 되었다. 주변 가까운 동년배들이 영화 이야기를 하면, 세상에서 홀로 설 자신이 없기에 문화적 흐름에 동참하고자 극장을 찾는다. 문화적 소외를 당하지 않으려는 발버둥이다.

지난 10월 1일이었다. 부산에 있는 대학교에서 세미나가 있어 갔다가 저녁 시간에 지인에게 전화를 했을 때였다. 첫 마디가 “영화제 때문에 왔나?”는 것이었다. 알고 보니 10월 2일부터 부산국제영화제가 열리는데, 개막식 전날 행사가 있었던 것이었다. 영화제를 쫓아다니면서 환호할 나이는 지난 지라, “영화제 쫓아다닐 나이는 지나지 않았어?”라는 반문으로 답하였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한 관심을 읽을 수 있었다.

## PIFF vs BIFF

이제는 영화의 도시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부산에서 국제영화제가 열리기 얼마 전인 9월 17일부터 평양에서 제14차 평양국제영화축전(The 14th Pyongyang International Film Festival)이 열렸다. 평양영화축전의 약칭은 ‘PIFF’이다. 부산국제영화제의 약칭은 ‘BIFF’인데, 얼마 전까지는 ‘PIFF’였다. 평양영화축전은 평양에서 2년마다 개최되는 국제영화제로서 비동맹 제3세계 국가들이 주로 참여하여 벌이는 영화제이다. 영화를 통한 비동맹권 국가 간의 우호와 친선 증진을 목적으로 북한에서 열리는 유일한 국제 영화제이다. 평양에서 열리기 때문에 북한이 주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렇지 않다. 평양영화축전은 1983년 10월 평양에서 열린 비동맹 교육·문화장관회의에서 비동맹국가가 참여하는 영화제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고, 1986년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한 비동맹 국가의 영화제이다. 비동맹과 개발도상국 간 영화인들의 친목과 정치적인 연대를 목적으로 시작한 대회로, 북한과 친분이 있는 비동맹과 제3세계 국가들이 주로 참가하는 국제영화제의 초청형식으로 진행된다.

1987년 9월 1일 제1회 대회를 시작하여 2~3년마다 개최되다가 1990년부터 2년마다 짝수 해에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2014년으로 제14회 대회가 개최되었다. 2014년 평양영화축전은 ‘자주, 평화, 친선’을 주제로, 9월 17일 봉화예술극장에서 개막식을 시작해 24일까지 진행되었다. 영화제는 양강도에 있는 국제영화회관을 비롯하여 인민문화궁전, 대동문영화관, 개

선영화 등에서 진행되었다.

우리의 극영화인 예술영화를 포함하여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단편영화 등의 작품이 출품되었다. 새롭게 창작된 영화보다는 우리나라에서도 소개된 미국 영화 <슈팅 라이크 벅> (Bend It Like Beckham)과 같이 이미 창작되어 상영 중인 영화들이 출품되었다고 한다. 영화제의 개막작인 <빠른 처녀들> (Fast girls)은 2012년 작품이며, 특별상영상을 받은 호주 영화 <로켓> (The rocket)은 2013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되었던 영화라고 한다. 제14차 평양영화축전에는 고려여행사가 후원업체로 참여하였는데, 평양영화축전과 함께, 평양과 판문점도 둘러볼 수 있는 관광 상품을 내놓기도 하였다. 2천 달러인 관광 상품에는 평양영화축전의 개·폐막식을 비롯하여 영화 상영회, 감독과 북한 영화배우와의 만남뿐만 아니라 영화 촬영지 방문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한다.

평양에서 열리는 영화축전으로 국제대회를 표방하고 있으나 국제영화제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영화축전 초기, 1980년대에는 북한 영화가 상당한 강세를 보였다. 하지만 최근 들어 북한 영화의 수상은 크게 줄었다고 한다. 우리 영화가 국제사회에서 상당히 주목받고 있는 것과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북한영화가 상영되었던 적이 있었다. 전통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일회성으로 끝났지만 남과 북의 주민이 상대 영화를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져본다. 2014년 10월 마지막 주에 열리는 통일문화주간 행사의 하나로 북한 영화가 상영되는 통일영화제가 열린다고 한다. 이번을 계기로 꾸준히 영화로 통일의 디딤돌을 놓았으면 하는 희망을 가져 본다. 🌀

전영선은 한양대학교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연구교수로 재직하면서, 민화협 정책자문위원, 통일준비위원회 전문위원, 통일교육원 객원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 EBS 청춘 토크 콘서트 ‘통일드림’

# 가슴 뛰는 통일 이야기

정경란 EBS 사회협력부장

통일에 무관심한 젊은 세대에게 가슴 뛰는 통일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기획된 ‘EBS 청춘 토크 콘서트 - 통일드림’은 젊은 세대들에게 자칫 어렵고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는 ‘통일’이란 주제를 흥미로운 강연과 다채로운 공연이 결합된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풀어 젊은 세대들이 통일을 쉽고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자는 뜻에서 기획되었다. 이를 위해 3월 초 통일부, 국민대통합위원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EBS 등 4개 기관은 한반도 통일시대 기반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고, 서울을 비롯한 전국 4대 도시에서 통일 주제 토크 콘서트를 공동 주최하고 그 내용을 EBS를 통해 방송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초봄부터 시작된 기획이 9월과 10월의 행사를 거쳐 10월과 11월에 프로그램으로 방송되니 내게 2014년은 ‘통일의 꿈’과 함께한 해로 기억될 것이다.

“포미닛이나,

제 딸처럼 음악을 하는 친구들이 문화를 전달하고, 통일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이거든요. 그 친구들이 통일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어른으로서 노력해야 합니다.”

서울 송실대에서 열렸던 ‘1회 문화, 통일을 만나다’에서는 그룹 ‘부활’의 리더인 김태원이 ‘통일 멘토’로 나서 “문화를 이용해 통일을 앞당기자”는 문화 통일론을 펼쳤다. 김태원 씨는 ‘가장부터 관심을 가져야 가족 모두가 통일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말과 함께,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을 담은 신곡 ‘To be one’을 제작 중이라고 밝혔다. 또 대한민국 유일의 손해금 연주자인 박성진 씨는 “북한 주민들도 암암리에 소녀시대 춤을 배운다”며 북한에 깊숙이 자리한 한류 문화를 소개했다. 탈북미녀 김아라 씨에 따르면 드라마 ‘겨울연가’의 배용준을 보고 탈북한 이도 있을 정도로 북한 곳곳에는 한국드라마와 영화가 침투해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북한 주민들이 남한의 드라마, 영화, 노래를 보고 듣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그들을 폄하하는 말과 행동을 조심하는 것은 물론 북한 주민을 위한 배려와 사랑의 마음을 다양한 문화를 통해 표현해야 할 것이다.

“북한 사람들과 남한 사람들에게

각각 8만 원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때 얼마를 주겠냐고 묻는 실험을 했습니다.

누가 더 많이 나눠줬을까요?”

대전 충남대에서 열렸던 ‘2회 경제, 통일을 만나다’에서는 서울대 경제학과 김병연 교수가 멘토가 되어 일시적 통일 비용과 항구적 통일 편익에 대해 이야기해주었는데, 통일 전 북한의 경제를 발전시킨다면 통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내용은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통일 이후 북한 주민들이 복지를 보장하며 투표권을 행사한다면 그 비용은 어떻게 될

까? 통일이 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철저한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 사실 경제라는 주제가 딱딱하지 않을까 걱정했었는데, 예상외로 경제학 실험 결과는 흥미진진했다. 집단주의 체제에 살던 탈북자들은 자신이 가진 돈의 50%를 상대방에게 나눠주겠다고 했으나 남한에 사는 대학생들은 20%를 나눠주겠다고 했다고 한다. 상대방이 돈을 가진 사실을 모르기에 요구하지 않는데도 50%나 주겠다는 북한 사람들의 선택은 놀라운 일이다. 그런데 같은 실험을 탈북한 지 오래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니 한 푼도 나눠주지 않겠다는 사람들과 여전히 50%를 나눠주겠다는 사람으로 양분되었다고 한다. 자본주의에 과도하게 적응한 사람과 여전히 적응하지 못하는 부류가 있다는 말이다. 통일을 위해서는 경제적 학습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저는 체육을 통해서 긴장된 남북관계가 완화될 수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남·북이 함께하는 스포츠 이벤트가

자주 이루어지면 통일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산에서 열렸던 3회 “스포츠, 통일을 만나다”에서는 1991년 남북한 단일 탁구팀의 코치였던 이유성 단장이 멘토가 되어 영화 ‘코리아’로도 소개되었던 남북한 단일팀의 에피소드를 비롯하여 스포츠를 통해 통일을 앞당길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었다. 이날 관객에게 던진 ‘남한과 북한이 경기를 하면 누구를 응원하겠는가?’라는 질문에 관객의 80%는 남한, 나머지 20%는 북한을 응원하겠다고 하여 북한에 대한 배려를 느낄 수 있었고, 북한과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북한을 응원하겠다고 100% 나와 우리 모두가 북한을 체제만 다를 뿐 하나로 느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걸그룹 포미닛의 공연 모습

“나이 드신 분들은 통일 도수가 100도입니다.

왜? 같이 살았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같은 젊은 학생들은 통일 도수가 10도 미만일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통일드림 콘서트를 통해서 우리들의 통일 도수를 올렸으면 좋겠어요.”

광주에서 열렸던 ‘4회 비전, 통일을 만나다’에서는 박재희 교수가 멘토가 되어 역사 속에서 통일의 의미를 살펴보는 기회를 가졌다. ‘화이부동(和而不同)’이라는 말을 통해 통일의 원칙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배려하며 존중해서 위대한 통합의 시너지를 내는 것’이라고 알려주었고, 통일의 자세로 ‘구동존이(求同存異)’, 즉, 서로 다른 것을 보기보다는 같은 것을 먼저 찾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날 박재희 교수의 열정적인 강연에 관객들 역시 열렬하게 호응하여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평소에 북한이야기를 텔레비전을 통해 보긴 했지만 ‘통일’은 잠시 망각하고 있었던 것 같다. 또 우리들이 말로만 통일, 통일이라고만 하고 노력 또한 많이 부족했던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해주었다. (cho\*\*\*\*\*)

초봄 얼음 밑에서 찬란한 봄의 새싹들이 자라고 있듯이, 분단국가를 사는 우리 모두는 의식을 하지 않더라도 ‘통일’에 대해 무관심할 수 없다는 것을 방청

신청과 후기, 또 현장의 관객들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여전히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었다. 다만 통일의 당위성은 과거 이산가족 상봉의 패러다임으로는 설명할 수 없기에, 통일에 대한 이야기가 새로운 방식으로 좀 더 활발히 이뤄져야만 한다. 이야기하다 보면 더 좋은 아이디어와 방법이 나올 수 있기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우선이다.

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EBS와 통일부, 국민대통합위원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네 기관은 매달 실무 회의를 가져 주제, 출연자, 홍보, 모객 등을 함께 고민했다. 교육방송 PD 경력 25년 중 많은 전문가들과 교수님의 자문을 받아왔지만, 이렇게까지 다수의 인원이 모여 유기적으로 작업을 해보기는 처음이었다. 처음엔 서로 다른 배경과 생각을 가졌기에 결정도 더딘 것 같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호흡이 착착 맞아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괴로워할 때 무료 대관을 위해 백방으로 애써준 통일부 관계자 덕분에 좀 더 인기 있는 걸 그룹을 출연시킬 수 있었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합위원회, 통일부 관계자 모두 경쟁적으로 모객과 홍보에 힘써주었다. 또 녹화된 테이프를 글로 옮긴 스크립트를 보고 내용적인 오류도 바로잡아주는 등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팀이었다. 그 결과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고 자부한다. 탈북 청소년 그룹홈을 운영하는 총각 엄마 김태훈 씨의 말, “(북한 청소년들과 내가 사는) 우리 집에서는 이미 남과 북이 작은 통일을 이루었다”처럼 4개 기관 역시 이 행사와 방송 프로그램을 위해 작은 통일을 이루었기에 이 결과는 더욱 값지며, 이 자리를 빌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다. 🌀

**정경란**은 연세대 불문학과를 졸업하고 89년 EBS 입사했다. ‘코리아 코리아’(2008년) 연출을 비롯하여 다수의 유아,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제작했으며 현재는 사회협력부장을 맡고 있다.

## 통일문화주간

### 통일에 대한 오감만족

## 2014 통일문화주간 “시작! 하나로”



- 01 통일에 대한 오감만족으로 기획된 “시작! 하나로”  
02 남북영화상영전 개막행사에서 통일부장관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제막식을 하고 있다.

문화적 접근을 통해 통일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2014 통일문화주간’ 사업 “시작! 하나로”가 10월 11일부터 11월 1일까지 열렸다. 행사는 각계의 단체와 문화예술인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기획하고, 통일부가 일부 예산 및 행정을 지원하는 민·관 협업으로 추진됐다.

행사는 통일을 그린다·보다·입다·노래하다·느끼다, 통일아 놀자 등 문화적 소재를 통해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통일’을 생각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10월 11일(토) 파주평화발전소 미술제(10. 11~11. 30) 개막식을 시작으로 통일부가 지정한 ‘2014 통일문화주간’(10. 25~11. 1) 기간에는 남북영화상영전(10. 25~10. 31)과 ‘To be One’ 콘서트(10. 31), ‘통일국악한마당’(11. 1)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열려 시민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파주평화발전소 미술제는 10월 11일(토)부터 11월 30일(일)까지 분단의 최전선인 판문점과 도라산역 그리고 파주에서 열렸으며, 국내·외 작가 18명의 평화와 화합을 주제로 한 현대미술 작품 20점이 전시됐다. 남북영화상영전은 “영화를 통해 통일을 꽃피우다”를 부제로 하여 10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전국의 20개 CGV·롯데시네마 상영관에서 열렸다. 상영전에서는 분단과 통일을 주제로 한 우리영화, 가족

애·스포츠·로맨스 등을 주제로 하는 북한 소재 해외영화와 북한영화 등 총 8편이 무료로 상영되어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25일 여의도 CGV에서 열린 개막행사에는 류길재 통일부장관, 영화배우 예지원, 영화감독 등 총 70명이 참여하여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제작한 ‘한반도 통일염원 핸드프린팅’ 제막행사를 갖고, 영화 ‘굿바이 평양’을 관람하기도 했다. 10월 31일(금)부터 11월 1일(토)까지 양일간 광화문 북측광장에서는 통일디자인 Show와 ‘To be One’ 콘서트, 제1회 청소년 통일문화경연대회 본선 및 통일국악한마당이 열렸다. 통일디자인 Show에는 디자이너 신소영이 “춤추는 한반도에 웃을 입히다”는 주제로, 김학수 화백의 ‘한강대전도’를 활용하여 디자인한 의상을 선보였으며, ‘To be One’ 콘서트에는 록그룹 부활과 인디밴드, 테너 김승일 등이 참여하여 통일을 노래했다. 특히 그룹 부활은 5월부터 ‘한반도 부활프로젝트 70’이란 이름으로 작곡해 온 통일 노래 ‘To be One’을 선보이기도 했다. 행사는 (사)통일문화네트워크, 영화산업고용복지지원회, 출판도서문화재단, 유니웨어, (사)한국국악협회가 주최하고 통일부의 후원으로 열렸다.

# 민화협 NEWS

Korean Council for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 민화협 창립 16주년 기념 후원의 날



민화협 창립 16주년 기념 후원의 날 행사가 9월 25일 오후 5시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렸다. “커져라 통일희망, 불어라 통일바람”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통일의 희망을 함께 나누고, 남북관계 발전과 통일을 위한 의지를 다지는 자리로 마련됐다. 홍사덕 대표상임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민족화해와 민족협력은 7년대(七年大旱) 큰 가뭄을

맞고 있다. 그러나 이 자리에는 ‘세상일은 이치에 따라 도리에 맞게 귀결된다’는 것을 확인하는 분들이 모였다”며, “마치 박을 켜기 전의 흥부네 집 같은 우리 민화협을 잘 도와주셔서 고맙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김남식 통일부 차관은 축사를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남북관계의 진전과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하겠다고 생각하며, 내년이 분단 70년인데 통일은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하고, “정부부터 열심히 할 것이니, 여러분도 지금까지 해왔듯이 남북문제와 통일문제에 더욱 관심을 갖고 애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인명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임대표, 정현백 참여연대 공동대표, 남부원 YMCA사무총장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들과 정세균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 천호선 정의당 대표, 서상기 국회의원(새누리당)을 비롯한 정계인사 300여 명이 참석하여 민화협 활동을 격려하고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 여성 평화·통일 워크숍 - 여성 평화와 통일의 길을 걷다



민화협 여성위원회(여성위원장 여혜숙, 진민자)는 9월 17일~18일 강원도 화천과 양구 일대에서 ‘여성 평화·통일 워크숍 - 여성 평화와 통일의 길을 걷다’ 행사를 개최했다. 분단

현장방문과 평화통일 강의, 민통선 걷기, 소통과 마음나누기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14개 단체 40여 명의 여성단체 임원과 회원이 참가하여 진행되었다.

강의에 나선 정지석 국경선평화학교 대표는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한 실천 활동은 품고 기르는 여성들의 몫이며 평화통일교육은 현장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평화통일 실천을 위해 ▶평화통일에 대한 간절한 마음 ▶평화통일교육의 대중화 ▶국제적 실력을 키울 것 등을 제시했다. 행사에 참여한 여성위 소속단체들은 분단현장을 돌아보고 민통선을 걸으며, 남북이 참여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실을 극복할 생활문화 실천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것을 다짐하기도 했다.

## 박경애 교수 초청 간담회, 북한의 경제특구 현황과 협력방향



4차 전문가 간담회가 10월 20일 오후 3시, 민화협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2011년부터 북한과 지식파트너십 프로그램(KPP)을 운영해 온 박경애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 교수를 초청하여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화협 정책위원회를 비롯한 민화협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박경애 교수는 KPP프로그램과 2013년, 2014년 북한에서 진행한 경제개발구 관련 학술회의 내용을 소개하고, 본인이 돌

러본 북한 경제개발구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박 교수는 최근 북한은 외자유치를 통한 경제성장을 위해 전문 인력 양성에 주력하고 있고,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대학에 새로운 학과를 개설하고, 기존 학과명을 바꾸는 등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직접 둘러본 경제개발구의 특성과 관련해서는 나진특구는 이미 어느 정도 인프라가 갖춰진 상태로 활발한 경제활동이 이뤄지고 있었고, 함께 간 외국 전문가들은 제반시설이 잘 갖춰지고 인프라가 비교적 풍부한 청진을 가장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꼽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남포의 와우도 수출가공구는 습지를 메워야 하는 과제가 있기에 신중을 기해야 함을 조언했다고 한다. 간담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북한의 경제개발구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외부자본의 조달이 필수적이고, 남북 간 경제협력이 여기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한의 경제적 성장, 변화에 대응해 우리의 대북정책도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통일준비 토론회

### 북한 민생인프라 구축을 위한 SOC개발협력 추진 방향

북한의 민생인프라 구축과 개발협력을 위해 북한 SOC개발 현황과 과제를 점검하고, 구체적인 사업추진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본 행사는 민화협과 관련 공기업, 국회, 정부 등이 함께 참여하여, 북한 개발을 위한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민관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 시 2014년 11월 25일(화) 14:00
- 장 소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 주 제 북한 민생인프라 구축을 위한 SOC개발협력 추진 방향
- 주 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유기준
- 후 원 국토교통부, 통일부
- 협력기관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 프로그램
  - 개회식
  - 발표 <분야별 현황 및 협력 방안>
    - 장석명 한국도로공사, 박수명 한국철도공사, 권기철 한국토지주택공사, 차형선 한국수자원공사
  - 토론 : 안병민 한국교통연구원, 이상준 국토연구원, 조동호 이화여자대학교,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 문 의 민화협 사무처 02-761-1213

2014 민화협  
통일문화축제

## 가족과 함께 한 2박 3일의 통일 캠핑 뜨거운 가슴과 냉철한 이성으로 통일을 상상하다

글·사진 편집부

### “불어라 통일바람 커져라 통일희망!”

올해로 3회를 맞는 민화협 통일문화축제가 지난 10월 10일 금요일부터 12일 일요일까지 경기도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 및 일대에서 진행되었다. 매년 임진각 일대에서 국민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형식의 행사를 진행해 온 민화협은 올해는 최근 여가생활 경향에 걸맞게 대규모 가족 캠핑형 통일문화행사를 선보였다.

임진각 통일가족캠핑과 DMZ 자전거투어, 평화통일염원 걷기대회, 어린이통일백일장, 통일문화예술회 그리고 각종 부대행사 등으로 꾸며진 통일문화축제에는 오토캠핑 200가족을 비롯해 자전거·걷기 대회 일반 참가자 등 총 1,0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해 통일을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 초가을의 정취 속에 평화와 통일을 느끼다

축제 1일차인 10일은 본격적인 통일캠핑을 준비하는 시간이었다. 오후 들어 속속 임진각 평화누리 제2주차장에 마련된 특별캠핑장에 도착한 가족들은 진행요원들의 행사 안내를 받고 텐트를 설치하기 시작했다. 준 프로급의 실력을 갖춘 가족부터 캠핑 초보가족까지 모두들 앞으로 진행될 행사들을 앞두고 조금은 설레는 모습들이었다. 어느 정도 텐트 설치를 끝낸 가족들은 간단한 저녁식사를 하거나 혹은 오랜만에 가족들끼리 둘러앉아 이야기꽃을 피웠다. 통일문화축제의 첫 프로그램인 ‘통일가족 영화제’에서는 애니메이션 〈넛잡 : 팡콩도둑들〉이 방영됐고, 어느새 모여든 200여 명의 아이들이 커다란 화면 속에 빠져들 것만 같은 눈망울로 영화를 감상했다. 영화가 끝난 후, 참가 가족들은 오랜만에 여유를 즐기며 초가을 정취를 흠뻑 느꼈다. 하지만 불과 몇 킬로미터를 사이에 두고 철책선이 가로막고 있는, 임진각에서의 캠핑은 어느 캠핑과는 조금 다른 느낌을 전해주는 듯 했다. 바로 그날 민간단체가 날린 대북전단에 북축이 포격을 가해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기 때문



민통선 걷기, 통일문화예술회, 어린이 백일장, DMZ자전거 투어 등 통일문화축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참가자들

이다. 참가 가족들은 우연처럼 분단의 상징인 임진각에서 남북의 현실을 느낄 수 있었다.

11일, 통일문화축제의 본격적인 막이 올랐다. 9시 30분 특별캠핑장 특설무대에서 열린 개막식과 함께 축제의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는 DMZ 자전거투어와 평화통일염원 걷기대회가 시작되었다. 홍사덕 민화협 상임의장은 대회를 통해 전날 일어난 남북의 충돌 상황을 이야기하며, “그럼에도 가야 할 길은 가야만 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발걸음은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상생활 속에서

의 통일, 무심코 지나치는 시간 그 가운데에서의 통일을 기억하자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환영사에 나선 이재홍 파주시장 역시 통일과 화해를 강조했다. 분단의 상처와 또한 긴장감을 고스란히 느끼며 살아가는 파주의 시민들. 하지만 그렇기에 더욱더 평화의 소중함과 통일의 절박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재홍 시장은 민화협의 통일문화축제가 단순히 캠핑을 즐기는 차원이 아닌, 통일을 상상하고 평화를 염원하는 시간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참가가족을 대표해 강현아 가족, 일명 ‘아딸아



- 01  
**김민지** 주곡초등학교 2학년  
제목 : 휴전선을 지우개로 지우고 남북이 하나 되기
- 02  
**나민정** 하남 풍산초등학교 1학년  
제목 : DMZ를 남북이 함께 걷고 싶어요

딸’ 가족이 다짐문을 발표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평화와 통일이란, 잠시 잊고 있었던 단어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를 위해 작은 실천을 시작하겠다는 소박하면서도 소중한 다짐이 이어졌다.

#### 가야 할 길은 가야만 하고, 멈추지 말아야 한다

DMZ 자전거투어와 평화통일염원 걷기대회가 동시에 진행됐다. 약 220명의 라이더들이 힘차게 페달을 받아 임진각 통문을 통해 철책길을 달렸고, 뒤를 이어 800여 명의 참가자들이 가족과 연인의 손을 잡고 민통선 철책길을 걸었다. 자전거타기 참가자들은 임진각 통문을 출발해 통일대교 남단-군내삼거리-통일대교 북단-60T통문-64T 초소를 거쳐 다시 임진각 통문으로 돌아오는 총 17km의 코스를 힘차게 달렸다. 1사단 군부대 장병들과 행사 안전요원들의 안내를 받으며 철책길을 달린 참가자들은 손을 뻗으면 닿을 것만 같은 북녘을 바라보며, 통일을 염원하고 평화를 기도했다.

장산전망대 앞 64T 초소 앞에서 만난 함바위(가명) 할아버님은 홀로 자전거투어에 참가하셨다고 한다. 그 이유를 물으니, 가슴이 먹먹해지는 대답이 돌아온다. “아버님의 고향이 여기서 옆어지면 코 닿을 거리야. 어린 시절 아버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던 집과 산과 들도 모두 생각나지. 하지만 이젠 먼발치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어. 돌아가신 아버님 대신, 나라도 고향 땅을 한 번 밟아봐야 하는데, 쉬울 것 같지 않아” 잠시 동안 북녘을 바라보시던 할아버지는 다시 페

달을 밟고 오시던 길을 돌아 출발한다. 그 뒷모습에서 복잡한 감정이 전해졌다. 분단의 상처와 아픔은 단순히 시간이 지난다고 아무는 것이 아님을, 오히려 고인 매듭을 반드시 풀어야 비로소 치유될 수 있음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여전히 무겁게 주어진 숙제, 그것은 바로 평화와 통일이 아닐까. 걷기대회에 참여한 이들도 조금은 색다른 감정을 안고 천천히 철책길을 걸었다. 평소엔 올 수 없었던 군사지역을 걷는다는 신기함과 신선함. 하지만 이렇게 철책을 막고 24시간 국군 장병들이 철통같이 지켜야 하는 첨예한 분단의 현장이기도 한 이곳. 이 철책이 걷어지는 날,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화해가 찾아오리라.

“왜 이렇게 철사들로 길게 막은 거야? 저기로 넘어가면 안 되는 거야?”

어쩌면 당연하지만, 쉽사리 대답하기 어려운 아이들의 질문 앞에 엄마 아빠는 잠시 말문이 막힌다. 하지만 아주 잠시, 통일이 되기 전까지 잠시 이렇게 막아 놓은 것이라는 대답으로 아이들의 호기심을 채워준다.

#### 통일은 즐겁게! 열정적으로!

자전거투어와 걷기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통일비빔밥’으로 맛있게 점심을 마친 후, 잠시 휴식을 가졌다. 하지만 아이들에겐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어린이 통일백일장을 비롯해 다양한 부대행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시와 산문 그리고 그림을 통해 통

일을 이야기하는 백일장대회. 많은 아이들이 초롱초롱한 눈을 빛내며 글쓰기와 그림 그리기에 열중했다. 한 편에서는 에어바운스를 타고 신나게 놀거나 제기차기, 윷놀이 등 전통놀이를 즐기고 통일도서관에서 독서삼매경에 빠지기도 한다.

저녁에는 통일문화축제의 마지막 메인이벤트 통일문화예술제가 시작되었다. 가족장기자랑, 어린이 시 낭송, 축하 공연과 캠프파이어로 진행된 예술제는 그야말로 참가 가족들의 폭발적 호응과 참여 속에 뜨겁게 진행되었다. 아이들의 번득이는 재치와 예상 밖의 깊이가 느껴진 시 낭송 그리고 배꼽을 잡게 만들었던 장기자랑 등, 이 순간만큼은 모두가 한 가족이 되어 가을밤을 만끽했다. 초청 가수들의 공연에 마치 십대로 돌아간 것처럼 환호하며 함께 노래 부르는 참가가족들, 그리고 캠프파이어의 뜨거운 열기와 함께 진행된 신나는 댄스 타임은 참가가족들의 숨겨진 끼가 그대로 전해진 시간이었다. 아니, 저들이 분명 오전에 보았던 그들이 맞단 말인가! 그렇게 2014 통일문화축제의 밤은 지나가고 있었다.

12일, 이제 헤어질 시간이 다가왔다. 아침 일찍 일어난 가족들은 식사와 함께 텐트 정리를 준비했다. 하지만 아직 행사가 전부 끝난 것이 아니다. 어제 제출한 통일백일장의 작품 중 수상작을 발표하고 시상하는 시간이 남아있다. 또한 경품 추첨을 통해 참가 가족들에게 푸짐한 선물을 안기는 시간까지. 올해 통일백일장의 영예의 대상(통일부장관상)은 이산의 아픔을 할머니의 삶을 통해 표현한 김포 장기초등학교 김소희 학생에게 돌아갔다. 그리고 최우수상(민화협 대표상임의장상)은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을 화폭에 적절히 표현한 김민지, 나민정 학생에게, 우수상은 류윤지, 김혜인 학생과 김연후 어린이에게 돌아갔다. 백일장의 심사는 이경형 민족화해 편집인, 윤성택 한국시인협회 사무국장이 맡았다.

민화협은 앞으로도 평범한 일상 속에서 평화를 발견하고, 통일을 이야기할 수 있는 행사들을 꾸준히 진

행할 예정이다. 이 역시 통일을 위한 우리 모두의 마음을 모으는 소중한 작업이기 때문이다. 과연 2015년 통일문화축제는 어떤 모습으로 탄생하게 될지 벌써부터 기대된다. 🌈

**백일장 대상**

**할머니와의 약속**

김소희 장기초등학교 5학년 8반

“드디어 남북통일이 되었습니다!”

밥을 먹고 있던 선미가 뉴스를 보고 있다 남북이 통일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선미는 문득 할머니 생각이 났다. 할머니와 선미는 함께 사는 대가족이었다. 할머니는 한국전쟁 때 남편과 딸을 잃었다. 아들도 있었는데 훗날 선미를 낳게 되었다. 할머니는 가끔씩 고모 이야기를 하셨다.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고모는 어딘가에 살아있을 것이라고 통일이 되면 꼭 만나고 싶다고 하지만 할머니는 선미가 중학교 때 돌아가셨다. 할머니는 돌아가시기 전 선미에게 말씀하셨다. “선미야, 네 고모는 꼭 살아있단다. 이 할머니는 이미 틀린 것 같으니 네가 이 할머니 대신에 네 고모를 찾아주겠다고 할머니와 약속해 줄 수 있겠니?”

선미는 눈물을 머금고 말했다.

“네 알겠어요 할머니.”

“그래 선미야, 고맙다.”

그날 저녁, 할머니는 눈을 감으셨다. 선미가 할머니 생각을 하는 동안 선미와 아버지는 이산가족 상봉의 장소로 향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이산가족 명단에서 고모의 이름을 찾았다. 선미는 옆에 있는 한 여자가 아버지 이름을 찾는 것을 보았다. 선미는 그 여자에게 누구신데 우리 아버지를 찾느냐고 물었다. 그 여자의 이름은 이정원. 자신의 외삼촌을 찾고 있다고 답했다. 선미는 혹시나 하여 이정원이라는 여자를 아버지에게 데려갔다. 아버지가 물었다.

“혹시 어머니 성함이 이선자 아닌가요?”

“네 맞아요.”

이정원이라는 여자와 선미는 조카 지간이었던 것이다. 선미와 아버지는 이정원에게 고모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 며칠 후 세 사람은 고모의 영정 사진과 함께 할머니 산소를 찾았다. 선미는 마음속으로 할머니에게 말했다.

“할머니, 할머니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고모는 아니지만 고모의 사진과 함께 고모의 딸이 찾아왔어요. 고모와 함께 이젠 편히 쉬세요.”

민화협  
해외협의회  
전체회의

# 통일은 문제가 아니라 해답입니다

박지용 민화협 회원사업팀장

민화협 해외협의회 전체회의가 10월 20일(월)부터 23일(목)까지 3박 4일 동안 서울에서 열렸다. 민화협은 남북관계와 통일문제에 대한 해외동포와의 소통과 동포 사회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왔다. 민족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통일 프로세스를 실현하고, 한반도 통일이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 속에 이루어져야 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통일 역량으로서 해외동포들의 역할이 막중하기 때문이다. 올해 3번째를 맞는 ‘해외협의회 전체회의’(이하 전체회의)는 민화협 해외협의회 10개 지역 대표자 60여 명이 참가하여 북한 산림녹화 지원과 농업협력 사업 추진 방안, 광복 70주년 기념사업 추진 방향 등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중심으로 논의했다.

전체회의는 10월 20일 저녁 민화협 의장단과 집행임원, 회원단체 관계자들이 함께 참가한 환영만찬을 통해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환영만찬에서 홍사덕 대표상

임의장은 해외협의회 대표들의 고국 방문을 환영하고, 추진 사업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여 해외대표들에게 이해를 구하였다. 이어 김덕룡 상임고문과 조병창 범뉴욕협의회 대표상임의장의 환영사와 답례사가 이어졌고, 1년 만에 다시 만난 해외 대표들은 서로의 안부를 묻고 지역 상황을 공유하면서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공동의 미래에 관해 이야기하였다.

21일 오전에는 권영경 통일교육원 교수의 북한특강, 문화재제자리찾기 대표인 해문 스님의 문화특강을 진행했다. 권영경 교수는 최근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의 변화와 주민 생활에 대해 강의하여 북한문제에 대한 해외동포들의 이해를 높였다. 이어 ‘빼앗긴 문화재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열린 문화특강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당시의 혼란한 상황에서 무단 유출된 수많은 문화재의 환수 문제와 대한제국 국새, 조선왕실의궤 반환운동으로 민족혼을 깨운 해문 스님의 구체적인 경험을 나누는 감동적이고 의미 깊은 시간이었다.

오후에는 류길재 통일부 장관의 특강과 ‘민화협 해외협의회 전체회의’가 열렸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해외에서 민간 통일운동에 선도적인 활동을 해 온 민화협 해외협의회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활발한 통일준비 활동을 당부하였다. 이어 “통일은 기회이며, 공간적 차원에서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것”이라면서 “우리 사회가 마음을 열고, 주변국가와 상대방에게 울림을 주면서 어울릴 수 있는 열림·울림·어울림의



개성공단을 방문하여 설명을 듣고 있는 해외협의회 상공인들



01



02

01 전체회의에서 의견을 발표하고 있는 홍사덕 대표상임의장 02 통일부장관 특강 후 기념촬영

통일 친화적 사회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전체회의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영훈 부장과 국립산림과학원 박경석 임업연구관의 농업협력 및 산림녹화 지원 사업에 대한 주제발표로 시작하였다. 참가자들은 해외협의회 대북사업 추진 방향과 함께 재외동포 사회의 폭넓은 참여를 위해 북한 산림녹화 현황 등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의 제공을 요청했고, 재외동포 청년들의 참여확대에 대한 의견도 제시되었다. 이 자리에서 홍사덕 대표상임의장은 전체회의에서 합의된 의견들을 정리해서 관계 기관들과 실질적인 의견을 교환하는 형식으로 행사를 개선하고, 민화협 해외협의회는 동포 사회의 그 어느 곳보다 폭넓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기구라는 자부심을 마음속에 담아 더욱 활발하게 활동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2일에는 개성공단 방문단과 판문점 방문단으로 나누어 남북관계 현장을 둘러보았다. 민화협 해외협의회 소속 상공인들로 구성된 개성공단 방문단은 홍양호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장으로부터 개성공단 현황을 청취하고, 입주기업을 방문했다. 참가자들은 관리위원회와 입주기업 대표자들에게 개성공단 투자와 업무 현황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의하면서 공단의 발전 가능성과 투자문제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

하고 현장을 확인하였다.

판문점 방문 또한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 통일부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이루어진 판문점 방문은 분단 현실을 느끼고, 통일은 문제가 아니라 해답이라는 사실을 실감하는 기회가 되었다. 판문점 방문단은 도라산역, 도라전망대, 오두산 전망대 등의 분단 현장도 함께 둘러보았다. 개성공단과 판문점 방문은 해외 동포들에게 개성공단과 판문점 사이의 10km도 채 되지 않은 거리를 두고 벌어지는 협력과 대결의 이중주를 지켜보며 해외라는 또 다른 공간에서 분단의 아픔을 극복하고, 공동 번영의 통일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할지를 고민하는 기회였다.

이날 오후에 열린 환송만찬에서는 여야의 재외동포 정책 담당 국회의원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성곤 의원과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이 참가하여 각 정당의 재외동포 정책에 관해 설명하였다. 이번 해외협의회 전체회의는 민화협 본부와 해외협의회 그리고 각 지역협의회 사이의 유대감과 소속감을 강화하고, 통일 논의와 관련한 자유로운 소통을 통해 남과 북, 해외에서 살아가는 우리 겨레 모두가 행복한 통일 미래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하는 기회였다. 전체회의를 마치면서 동독의 마지막 총리였던 한스 모도로프가 우리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반도 통일에 대해 한 이야기가 떠올랐다. “무엇보다도 남쪽과 북쪽의 모든 사람이 통일을 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다음에는 서로가 다른 사회에서 살아온 상대를 진실로 존중하는 것만이 최선입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것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공동으로 미래를 개척하는 일에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남과 북, 해외에 사는 우리 민족 모두가 진실로 통일을 원하게 하려면 당장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고,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답을 찾기 위한 우리의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 두만강 유역의 초국경 협력, 남북관계 진전이 중요

글·사진 **이현희** 민화협 정책홍보팀장

하늘을 날아서 2시간 30분이 걸리는 거리이다. 초가을의 날씨는 파스했고, 들녘은 눈부시게 빛났다. 광활한 땅. 비옥해 보이기만 하는 들판. 그러나 이곳은 겨울이 매서운 시베리아의 동쪽 끝 연해주의 블라디보스토크다. 150년 전 우리의 조상들이 먹고 살기 위해 그리고 일제 강점기에는 독립운동을 위해 두만강을 넘어 삶을 일구기 시작했던 땅. 연해주와 간도. 학창시절 교과서에서 만난 시와 소설 속

의 지명으로 더 각인되어 있는 땅이지만, 우리 민족의 역사가 살아 숨 쉬는 곳이고 여전히 수많은 조선족, 그리고 고려인이 삶을 일구어 가고 있는 민족의 땅이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각과 희망을 품고 그곳을 향한다. 북을 넘어서기 힘들어 반세기 넘게 시선조차 제대로 두지 못했던 곳이지만, 북한을 가로질러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중국횡단철도(TCR)를 통해 유럽까지 달려가는 상상을 현실화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유라시아 국가들과 다각적 협력으로 유라시아의 에너지, 철도, 해운, 물류망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러시아의 극동개발 사업에도 적극 참여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남북관계를 넘어 중국, 러시아가 참여하는 다자간 협력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면서 국내의 많은 시선과 발걸음이 향하고 있는 곳이다.

### 극동 러시아의 남과 북

민화협은 정책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9월 12일~15일까지 3박 4일의 일정으로 두만강 유역 삼국 접경지역을 찾았다. 최근 북·중·러 접경지역의 협력실태를 파악하고 중국 연길에서 연변대학교와 함께 “동북아 초국경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개최하기 위함이었다. 이번 방문엔 임강택 민화협 정책위원장(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비롯한 남북관계 전문가들과 이성현 민화협 상임집행위원장(전 국회의원)등 민화협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첫 일정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시작했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러시아로 파견 나온 북한 근로자들의 모습이었다. 현재 러시아에는 2만 2천여 명의 북한 근로자들이 파견되어 일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벌채 등 임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건설 현장 등에서 일하는 숙련자 파견이 증가하고 있단다. 솜씨가 좋고 성실해서 현지에서도 선호하는 노동력이라고 한다. 반가우면서도 신기하고 또 한편으로 씁쓸했던 짧은 마주침이었다.

북한과 러시아는 최근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2008년 나진 - 하산 프로젝트 협정을 체결한 이후

에 러시아는 총 3,000억 원을 투자하여 2013년 말에 총 54km 길이의 나진 - 하산 철도구간을 개보수했고, 러시아가 임대한 나진항 제3호 부두도 개보수를 완료했다. 이어 북한과 러시아는 북한 내륙철도 현대화 사업에도 합의하는 등 경제협력을 강화해 가고 있는 모습이다.

작년 11월에 열린 한러 정상회담에서는 나진 - 하산 프로젝트 사업에 한국이 참여하는 방안을 합의했고, 우리 정부의 유라시아 구상과 맞물리면서 남·북·러 삼각협력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도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막연한 기대와 달리 러시아 극동 지역의 인프라 구축 상황은 매우 열악해 보였고 우리 기업의 성공사례도 많지 않았다. 극동 러시아 지역은 면적이 넓은 반면 인구는 600만 명 정도로 소비시장이 작고, 인건비도 높아져서 한국 기업이 투자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 교역량도 중국과 일본에서의 수입이 많아지고 한국은 떨어지는 상황이다. 현지에서 만난 김한일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코트라 관장은 국가 차원에서 개발이 필요한 부분은 기업이 독자적으로 움직여서는 성공하기 어렵고, 항만, 은행, 보험 등을 종합적으로 개발하고 국가가 개런티를 보장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 나진 - 하산 프로젝트의 러시아 출발지 하산역

작년에 중국 방천을 방문하여 두만강 유역의 북중러 접경지역을 둘러보고, 하산에서 북한으로 이어진 철교를 멀리서 바라보며 맞은편에 보이는 러시아 하산은 어떤 곳일까란 상상을 했었다. 눈앞에 바로 보이지만 참 멀게 느껴지던 곳인데 이번에는 나진 - 하산 프로젝트의 러시아 출발지인 하산역을 방문할 수 있었다. 방문이 쉽지는 않은 지역이었다. 한 달 전에 신청을 해야 했고, 방문비용도 꽤 비쌌다. 미리 신청을 해도 상황이 발생하면 방문이 불허될 수도 있다고 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하산역까지는 250여km의



01 러시아에서 바라본 두만강 북러 철교 모습  
02 시베리아 횡단열차의 출발지 블라디보스토크 역



03 하산역 전경과 역사 안의 모습  
04 연변대에서 열린 초국경협력방안 세미나

거리인데 5시간이 소요됐다. 도로상태가 좋지 못했고, 크라스키노에서 하산역까지 46km는 흙먼지 나는 비포장도로를 달려야 했다.

하산으로 가는 길목에는 넓은 초지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는데 경작을 하는 땅은 거의 없었다. 얼마 전 북한과 러시아가 극동 연해주 지역에서 농업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는 보도가 있었고, 10월 13일 열린 통일준비위원회 2차 회의에서는 연해주 농업단지에 북한노동자를 고용하여 공동개발하는 구상이 발표되기도 했는데, 하산으로 이동하면서 본 광활한 초원이 새로운 기회의 땅, 희망의 땅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어렵게 도착한 하산역은 당황스러울 정도로 한적한 변두리의 시골마을이었다. 마을에는 방치된 건물들이 많아 황량한 느낌마저 들었다. 러시아 현지인의 안내에 따라 마을을 지나고 흙먼지 나는 오솔길을 따라 작은 동산을 오르니 나진-하산을 잇는 북러 철교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온다. 아무런 시설도 없는 시골 마을의 언덕배기. 반대편 중국의 방천은 '용호

각'이라는 거대하고 위압적인 전망대를 만들어 끊임 없이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는데 러시아는 황량하고 적막했다. 북러관계가 좀 더 활발해지고 두만강 유역을 둘러싼 개발이 본격화되면 이 지역도 중국처럼 북적이는 관광지가 되겠지만, 오히려 그 적막함이 깊은 인상을 남긴 곳이었다.

하산역은 시골 간이역의 모습이었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북한을 오가는 기차가 운행되고 있고 출·입경 및 세관 시설을 갖추고 있는 국제역이다. 대부분 북한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역사 안은 한글로 된 안내문이 함께 명기되어 있었다. 하산역의 철길은 대륙을 향해 그리고 북한을 향해 길게 뻗어있다. 언제쯤 하산역이 남·북·러를 잇는 국제역으로 제 기능을 할 수 있을까. 하산역으로 이어지는 비포장도로가 말해주듯 가야 할 길은 참 멀게만 느껴졌다.

중국으로 넘어가기 위해 크라스키노에서 국제버스를 타고 중국의 훈춘으로 이동했다. 러시아 현지 가이드가 러시아에서는 그냥 '그러려니~'해야 한다고 조언했는데, 국제버스 시간에서부터 터미널 시설, 그리고 세관통과까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시설도 열악했다. 반면에 중국은 세관 통과도 빠르게 진행됐고 시설도 잘 갖춰져 있었다.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32개의 통상구가 있는데 중국 측 통상구는 인프라가 잘 정비되어 있지만, 러시아는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효율성도 떨어지는 상황이라 본격적인 중러 협력을 위해서는 이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고 한다. 여름에 이 지역을 방문했던 사람들은 러시아-중국 국경을 통과하는데 3~4시간이 걸렸다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 일행은 운 좋게 2시간 만에 중국 땅을 밟았다.

### 동북아 초국경협력 성과 내려면 남북관계 개선되어야

9월 12일에는 민화협 정책위원회와 연변대 동북아 연구원 공동주관으로 "유라시아 구상과 그린데탕트 실현을 위한 동북아 초국경 협력방안" 세미나가 연변대학교에서 열렸다. 1세션에서는 "유라시아 구상 실현을 위한 초국경 협력방안"에 대해, 2세션에서는 "북한의 산림실태와 남·북·중 공동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1세션에서는 나선경제특구와 북중경제협력 현황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졌다. 중국 측에서 발표를 맡은 이종립 연변대 교수와 현동일 연변대 동북아 연구원장은 나진지역의 북중협력과 관련하여 송전, 국경 다리, 도문-라진 간 철도, 무산 철광 개발, 나진항 4호, 5호, 6호 부두개발 및 50년 임대, 북대항 집단농장 등 6개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 나진 지역의 제일 큰 문제는 전기 등 인프라 시설의 부족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가 북핵 문제 및 동북아 정세를 이유로 적극적인 투자를 하지 않으면서 기업들도 대기상태인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활성화 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남북관계를 비롯하여 동북아 정세가 우선적으로 해소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한편으로 중국과 합작하는 방식으로 한국이 이 지역에 대한 투자를 해 줄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조문수 숭실대 교수는 북한을 통과하여 중국, 러시아, 유럽으로 가는 안정적 물류 시스템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육로, 철도, 항만 시설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물류기기, 작업의 표준화, 정확한 물류거점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2세션에서는 북한의 산림 현황 및 남북중 협력 방

안에 대한 논의가 중심으로 이뤄졌다. 박소영 산림과학원 연구원은 남북 산림협력과 관련하여 경험 이 축적되어 있는 민간단체가 북한과의 신뢰를 토대로 거점지역을 확보하고, 정부가 이 지역을 대상으로 대규모 복구지원사업을 진행하는 방법을 제안하면서 정부와 민간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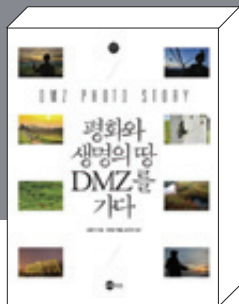
주위홍 연변대 교수는 북한 북부와 기후가 비슷한 연변지역의 지리적 위치를 활용하여, 양묘장 등을 연변지역에 건설하여 북한에 묘목을 지원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한국에서 설비와 기술을 제공하여 연변지역에 묘목장을 건립·운영하고, 생산된 묘목을 북한에 지원하는 남·북·중 협력체계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세미나 참여한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동북아 지역의 초국경 협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핵문제를 비롯하여 남북관계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지역의 초국경 협력도 한계가 있다며, 한국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로 시선을 두고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에서 만난 전문가들은 오히려 남북을 바라보고 있었다.

러시아에서 국제버스를 타고 중국으로 넘어오면서 만난 한 조선족 부부는 사업을 위해 일주일 전에 나진 지역을 다녀왔다고 했다. 이미 나진에는 5,000여 명의 중국인이 기업 활동을 하고 있고, 수익을 내고 있는 민간기업도 많다고 한다. 나진지역의 북한 근로자 인건비가 200달러 가까이 된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북중관계의 악화로 정부 차원의 협력은 지체되고 있지만, 민간의 기업 활동은 막힘없이 진행되고 있었고 그들을 통해 북한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생필품과 정보가 북으로 유통되고 있었다. 남북은 언제쯤 이러한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 한반도 밖으로 나가보니, 한반도 안에서의 협력이 더욱 중요하게 다가왔다. 🌐

# 한반도 분단의 상처를 간직한 DMZ에서 평화와 생명을 외치다

편집부



① 『**평화와 생명의 땅 DMZ를 가다**』  
손민석 외 | 플래닛미디어 | 2014. 7

이 책은 170여 장의 사진과 DMZ가 들려주는 평화의 메시지를 담은 포토 스토리이다. 김한기가 글을 쓰고, 최태성, 박철, 손민석이 사진을 찍었다.

휴전선 최서단 파주의 초소로부터 연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를 거쳐 최동단 고성 마지막 해안 초소까지, 155마일 248km에 이르는 휴전선과 DMZ. 한국전쟁 당시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곳. 지금도 남북 간의 긴장이 첨예하게 흐르는 이곳은 역설적으로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음으로 원시의 자연이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다. 세계인이 주목하는 생태의 보고이자 평화의 아이콘이기도 한 DMZ는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하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제안으로 국내외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책의 저자들은 대한민국 육군과 정식 협약을 체결하고 일 년 동안 DMZ 155마일을 직접 밟으며 생생하게 카메라에 담았다. 인간은 함부로 오가지 못하는 이곳을 자유롭게 드나들며 살아가는 동식물들 그리고 24시간 밤과 낮이 없이 이곳을 지키는 병사들의 모습까지, 한반도 분단의 상처를 보듬은 DMZ는 대자연의 치유력과 회복력이 만들어낸 놀라운 기적을 통해 소중한 평화와 생명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내년이면 광복 70주년을 맞이하게 된다. 하지만 여전히 남북의 화해와 평화 그리고 통일은 멀게만 느껴진다.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생각, 끊어진 허리를 다시 하나로 이어야 한다는 생각도, 젊은 세대들에게는 점점 그리 중요한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다. 지금 이 땅의 삶이 팍팍하기 때문일까. 아니면 너무 오랫동안 따로 살아왔기에 분단이라는 '비정상성'이 어느덧 '정상'적으로 느껴지게 된 것일까. 이러한 지금, 분단의 상처와 아픔이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는 DMZ를 바라보면, 잠시 잊고 있었던 통일과 평화라는 단어가 다시금 생생하게 전해진다. 때문에 DMZ는 단지 아름다운 자연을 간직한 곳일 수만은 없다. 한반도 분단의 상처를 그대로 안고 있는 '현재와 미래의 땅'이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들이 앞으로 어떠한 미래를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 DMZ는 지금과는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줄 수도 있을 것이다. 한반도 분단의 상징에서 평화와 화해의 상징으로, 나아가 세계에 전하는 평화의 메시지로서 DMZ는 지금 새로운 꿈을 꾸고 있다. 책을 통해 저자들이 밟았던 철책 길과 험난한 산비탈을 함께 걷다 보면 어느새 아름다운 DMZ의 자연과 더불어, 또 다른 희망이 생겨남을 느낄 것이다. 언젠가는 그곳을 직접 찾아가 내 발로 밟고 느끼고 싶다는 바람이.



② 『**서울 평양 메가시티 - 한반도 메가수도권 전략으로 보는 한국경제 생존의 길**』  
오로지 경제적인 논점에서 남북통합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 이 책은 '서울 - 평양 메가수도권'이라는 기존 개념과는 다른 획기적인 콘셉트를 통해 한반도가 명실상부한 유라시아의 중심이 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최첨단 교통 · 통신망에 의한 초고속 네트워크 도시, 동북아시아 물류 거점, 세계 투자자들의 자유로운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대 비즈니스 허브의 탄생. 책을 통해 저자는 이것이 과연 상상으로만 그칠 것인지, 아니면 현실이 될 것인지는 오늘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말한다. 민경태 저 | 미래의 창 | 2014. 8

③ 『**브란덴부르크 비망록 - 독일통일 주역들의 증언**』  
독일주재 한국대사관 통일연구관으로 근무하고, 1995년 3월부터 6개월 동안 독일통일연구단 단장으로 파견되었던 저자가 만난 독일 통일 주역들과의 면담 내용을 기록했다. 동독 주민들의 탈출과 시민 혁명을 시작으로 화폐 통합, 정치적 통합, 국제 사회의 합의를 거쳐 마침내 분단 45년 만에 극적인 통일을 이루어내는 숨 가쁜 과정이 현장 사진 자료와 함께 생생하게 펼쳐진다. 양창석 저 | 늘봄 | 2014. 10



④ 『**함흥과 평성 - 공간 · 일상 · 정치의 도시사**』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토대기초과제 연구서 두 번째 성과물이다. 총 3부 중 1부에서는 도시 공간의 물리적 환경이자 구조 해석의 축으로 기능하는 건축과 지리적 환경에 관한 글을 한데 묶었다. 2부는 함흥과 평성의 공간 · 일상 · 정치를 사회공간론의 인식과 방법론적 분석으로 연구한 글을 모았다. 그리고 3부에서는 사회주의 도시 중 소련과 구동독의 도시 경험을 다룬 글을 다루고 있다. 고유환 외 | 한울 | 2014. 10

⑤ 『**북한의 오늘**』  
오늘날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최대의 시대적 과제는 '북한문제'이다. 최근에 들어서는 갈수록 통일과 북한에 대한 문제가 급박해져 가는 느낌이다. 그렇기에 이러한 '북한문제'를 어떻게 푸느냐는 한국 국민들과 한반도의 미래, 나아가 동북아시아 정세의 안정도 좌우한다. 책은 대북정책이 가지는 부족한 구체성, 약한 기술적 고려 등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북한의 정치 · 경제 · 사회 · 외교를 심도 깊게 파헤쳤다. 거시적인 흐름의 맥락에서 살펴보고 지금 북한은 어디쯤에 와있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를 전망해보려는 노력의 결과다. 김근식 외 | 늘봄 | 2014. 9





독자 의견

**READER'S** 2014. 09+10 Vol.70  
 Korean Council for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독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의견을  
소개해드립니다.

〈독자엽서〉로 정답과 의견을 보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70호의 정답은 3번 '나진-하산 프로젝트'입니다.  
채택되신 분들께는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 '한반도 평화와 화해를 위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메시지'가 감명 깊었습니다. 남과 북이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 평화와 통일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가 참 감동적입니다. 최근 잇단 사건·사고로 슬픔에 잠겨 있는 국민 모두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네준 의미 있는 방문이었습니다. - 김혜린 인천 연수구

» 통일준비위원회가 통일 역량을 모으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는 글을 읽고 깊이 공감했습니다. 오십이 되어가는 저는 어려서부터 평화통일을 이루자고 수없이 듣고 자란 세대입니다.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가 아젠다 벗고 나서 온 국민의 염원인 민족통일의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통일이 늦어지면 민족의 동질성을 잃고 세계 강대국에 이용 당하는 비극만 초래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산가족문제, 군사적 적대관계 등 속히 풀어야 할 남북문제를 통일준비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해결해 평화통일이 최대한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공요섭 충북 보은군

» 알면 사랑하게 된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는 북한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반문해 봅니다. 그들에 대해 알지 못하면 동포애니 한민족이니 하는 말은 아무런 의미 없는 메아리에 불과하겠죠. '재미동포방북기'를 읽으며 북한 주민의 일상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 무엇보다 북한 주민도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삶을 사는 사람이란 걸, 단지 조금 다른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단' 코너를 통해 북한 주민의 통일외식과 남한 사람의 통일외식이 너무나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 많이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통일을 염원하는 듯하지만, 그 속내는 자신의 이익과 안정에만 관심 있고 통일에 별 관심 없는 남한 국민들의 분위기와 대조를 이루는 북한 주민들의 통일외식에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하루빨리 통일이 되었으면 합니다. - 김대현 경기도 평택시

» '가을호'답게 〈민족화해〉의 읽을거리가 가득했습니다. 특히 '한반도 부활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부활의 리더 김태원 씨 인터뷰를 읽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반도 통일은 지구 상에서 벌어질 가장 위대한 축제가 될 것이고 또한 그것은 인간에 대한 차별과 편견에 경종을 울릴 좋은 기회라는 말에 저도 동감하고, 그 실현을 위해 저도 꼭 동참하고자 합니다. 음악은 그 어떤 것도 초월하고 화해시키는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원 씨의 통일 한반도 부활 프로젝트가 꼭 성공하길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누구나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볼 수 있는 〈민족화해〉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고운 전남 여수

» 한반도 평화와 화해를 위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메시지. 올여름이 행복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았던 건 프란치스코 교황이 우리나라에 와서 보여준 온화한 미소와 낮은 곳을 향해 축복을 보내는 그의 진정한 성직자다운 모습 때문일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종교를 갖고 있진 않지만 한반도 평화와 화해를 바라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메시지가 우리가 사는 이곳 남쪽에서 우리 동포가 사는 북녘까지 멀리 퍼져서 사람들의 마음에 오래오래 남길 바랍니다.

- 김상현 경남 밀양시

# 제12회 민족화해상 추천 바랍니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와 경향신문사에서는  
'제12회 민족화해상' 후보자 추천을 받습니다.

민족화해상은 민족의 화해와 평화통일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개인과 단체를 찾아 격려하고, 활동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만든 상입니다.  
많은 추천 바랍니다.

**추천대상** 정치, 경제, 학술, 문화, 예술, 교육, 사회운동 등  
각 분야에서 헌신적인 활동으로  
민족화해와 평화통일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개인과 단체

**시상부문 및 상금** 개인부문(500만원), 단체부문(500만원)

**제출서류** 추천서(소정양식), 증빙자료(사진자료·보도자료·활동근거 등)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접수방법** 민화협 홈페이지(www.kcrc.or.kr)에서 추천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로 접수

**접수마감** 2014년 11월 14일(금) 오후 6시까지

**시상식** 12월 예정

**접수 및 문의처**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69, 구세군회관 3층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민족화해상 심사위원회  
전화 02-761-1213 이메일 krc1213@empas.com

